

2010 경기도교육청
정책 연구

미래형 학교교육 운영 방안 연구

연 구 자 : 이수광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길원 (보평초등학교)

연구 협력관 : 이성대 (경기도교육청)

이 연구는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연구 사업으로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혀 둡니다.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3
- 2. 연구의 기대 효과7
- 3. 연구의 내용과 범위9

II. 학교 교육의 미래 코드

- 1. 학교 교육의 미래 준거13
- 2. 학교 교육의 미래 코드18

III. 미래형 학교의 개념과 운영 원리

- 1. 미래형 학교의 개념틀25
- 2. 미래형 학교의 운영 원리28

IV. 미래형 학교의 운영 방안

- 1. 핵심역량 강화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32
- 2. 창의적 평가체제 개발50
- 3.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55
- 4. 학생 개인별 맞춤형 케어(care) 시스템 개발65
- 5. 학교 단위 교사 성장 프로그램 운영71

V. 미래형 학교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 방향

1.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창의적 평가체제 구축82
2. 체계적인 학력 향상 방안93
3. 기초 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97
4. 신개념의 교원 전문성 신장102
5. 미래형 학교 거버넌스 구축113
6. 학생 감소에 따른 기피학교 재구조화119

VI. 요약과 결론

1. 요약132
2. 결론136

<부록> 교육과정 혁신 및 학교 개혁 사례

1. 교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 사례143
2. 학점제 고교 운영 사례184

표 • 그림 차례

<표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17
<표 2> 미래형 학교 교육공공성 실현 개념도	20
<표 3> 미래형 학교상 및 정책수단 연계도	27
<표 4> 학교운영 원리의 전환	29
<표 5>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의 모습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34
<표 6> '2009 개정 교육과정' 주요내용 및 기본 모형	35
<표 7> 초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모형	40
<표 8> 중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모형	41
<표 9>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교과 학습 영역	43
<표 10> 학점제를 적용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모형	43
<표 11> 단위학교에서 개설을 고려할 수 있는 교과목	48
<표 12>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액션플랜	49
<표 13> 학생평가의 변화 방향	52
<표 14> 단위학교 창의적 평가체제 개발을 위한 액션플랜	54
<표 15> 학생참여의 구체적인 권리목록	58
<표 16> 학교구성원의 전면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 절차	61
<표 17> 단위학교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액션플랜	63
<표 18> 복지강화형 학교 시스템(care system) 구축을 위한 액션플랜	72
<표 19> 교사 성장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액션플랜	79
<표 20> 학교 특성화 및 시설 공유에 기반한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모형	122
<표 21> 미래형 학교 정착을 위한 단계별 과제	126
<표 22> 현재 학교와 미래 학교의 차이	133
<표 23> 해외사례 학교 기본정보	143
<표 24> City High 의 문화 리터러시 교육과정	145
<표 25> Northwest School 인문학 수업의 학년별 주제	153
<표 26> St. Paul School의 인문학 III	165
<표 27> St. Paul School의 인문학 IV	166
<표 28> St. Paul School의 인문학 V	16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학교교육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점증하는 상황이다. 이는 학교교육의 3대 지체문제와 관련이 깊다. 즉 학교교육의 ‘시대지체’, ‘수공(需供)지체’, ‘정현(政現)지체’ 문제가 그것이다.

□ 학교교육의 ‘시대지체’란 사회적 요구와 학교교육 현실간의 격차 문제를 일컫는다. 현대사회는 ‘초경쟁시대’(The Age of Super-competition)로 명명되는 만큼, 강한 교육력이 강조된다. 이때의 강한 교육력이란 ‘창의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배움의 열정’의 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일반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장 세대들이 육성되길 기대하고 또한 요구한다.

그러나 당대 학교교육의 현실은 이런 사회적 요구와 일정한 거리가 있다. 본디 창의력이란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자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다양한 사고실험의 과정에서 체득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학교교육 현실을 보면 여전히 입시중심의 교과학습에 치중한다. 교과학습 역시 알파벳티즘(알파벳을 외우는 식의 암기교육)에 다름 아니다.

이는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의 운영문법체계가 강고한 결과다. 이러한 ‘시대지체’ 문제로 인해 당대 한국 학생들은 ‘배움의 퇴행’¹⁾에 빠져 있다. 즉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지만, 투입시간 대비 학습효율성, 자기

1) 쓸데없는 것을 과잉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작 배워야 할 내용들을 등한시한 나머지 자신의 성장 동기를 상실하는 부조리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 흥미도 및 학습가치 인식도는 국제평균 이하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주행형 학교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친화적 학교운영 원리의 개발과 이 원리가 문화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학교교육의 ‘수공(需供)지체’란 수요자의 니즈(needs)와 이에 대한 학교당국 및 교원들의 이해방식 간에 큰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인간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가치 지향적 교육을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 과정에서 관계능력과 기획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학교공간에 대한 이해방식에 근거한다. 즉 학생·학부모는 학교를 단지 텍스트를 전달받는 공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삶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당국이나 교원들에게 이러한 수요자의 니즈는 액면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다. 대개의 학교는 여전히 실제적인 교육목표를 상급학교 진학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적 높이기엔 진력한다. 또한 입시실적을 현실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입시수업 많이 하기’에 몰두한다.

이런 조건에서 학생들은 교육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즉, 지적 관심이나 호기심이 유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억지로 배워야하고, 배우는 것의 총체적 의미와 실제적 유용성을 모른 채 그 단편만을 맹목적으로 접해야 하고, 학교와 교사의 편의를 위해 학생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교사나 교과서가 제시하는 방식과 달리 새롭고 영똥한 방식으로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수공지체’ 문제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두 가지 병폐의 근인(近因)이라 할 수 있다.

퍼붓기와 받아먹기의 교육방식은 두 가지 치명적 특성을 가진 정신습관을 길러놓는다. 지적 무기력성과 호기심 상실이 그 특성들이다. 지적 무기력성 상태는 암기력이나 수리계산력의 부족과는 다르다. 지능지수와도 별 관계없다. 암기도 잘하고 수리능력도 있고 집중력도 있다. 그런데 질문하고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비판적, 논리적, 분석적으로 점검하는 일에 이르면 정신은 절인 배추와도 같은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 생래적 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기력성은 수동적 반응만이 강하게 요구되는 환경에 오래 노출되고 거기 적응하면서 ‘길러진’

정신습관이다. 호기심 상실의 경우도 선천적 저능이 아닌 경우에는 지능과도 큰 관계가 없다. 지적 자극에 대한 반응 능력의 둔화, 뭔가 알고 싶다는 적극적 자발적인 탐구욕의 결여, 무관심, 집중력 부족 등이 호기심을 잃어버린 정신의 특징이다.²⁾

□ 학교교육의 ‘정현(政現)지체’란 당국의 정책방향과 학교현장의 정책수요 의지 및 실천 노력 간에 간극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조어(造語)다. 새롭게 입안·집행되는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정책수요 의지가 중요하다. 이는 정책에 대한 해석능력과 정책수용에 따른 리스크 감당능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정책수요 의지는 탄력적이지 못하다. (정책정합성의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최근 정책당국의 학교교육정책 프레임은 매우 전향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의 정책해석 프레임 경향은 여전히 고답적이다. 일상화된 관행(routine)에 의존해서 정책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조응을 고민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단위학교가 자율적인 학교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동원되는 경우에도 학교현장의 태도는 방어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렇다보니 교원들의 정책당국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는 높지만, 학생들의 학습문제(학습동기 상실, 학습곤란 등) 및 생활상의 곤란(왕따, 비행 등)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부재하다. 실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정책당국의 정책 문제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결국 학교현장 역시 관료주의가 지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현지체’ 문제가 지속되는 조건에서는 그 어떤 정책수단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정책의 저주’³⁾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새로운 정책을 입안·집행할수록, 그리고 신개념의 정책수단을 동원할수록, 학교현장의 정책 저항감과 피로감이 확산되고 그 결과로 학생의 삶은 점점 더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학교교육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학교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2) 도정일(2007), “경쟁력, 수월성, 창의성의 비극”, 『비평』 제15호, 2007 여름, 생각의 나무, p.21.

3) 저자가 쓰는 ‘정책의 저주’란 조어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동원 정도에 비례해서 교원들의 방어적 직무규범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삶이 더욱 더 왜곡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현실화할 수 있는 개념과 논리, 구체적인 시스템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정책 연구는 ‘미래형 학교교육 운영 방안’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미래형학교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모형 및 창의적 평가 시스템의 개발,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구축 방안, 미래역량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체제 개편 방안,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및 지원방안,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그렇다면, ‘미래형 학교교육 운영 방안 연구’는 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시의성이 있는 연구인가? 크게 세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책 환경의 변화’, ‘교육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교육자치실현’이 바로 그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학교교육정책은 ‘자율화’와 ‘다양화’에 방점이 있다. 이는 각종 학교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키워드다. 이런 정책 환경은 단위학교 혁신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사회 내에 학교혁신에 대한 참조체제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단위학교 내부에 혁신동력 또한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변화요구가 거세진다면, 대개의 학교에서는 ‘흉내 내기’ 혹은 ‘자의적 해석하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학교현장의 냉소와 비아냥거림 혹은 의도적 무관심이 확산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자치단체에서 미래형 학교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연착륙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참조체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육생태계의 변화는 경이롭다. 이제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밖 학습기관의 질적 수준이 학교를 압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규학교가 아니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

이 얼마든지 열린 것이다. 물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의 교육탈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조건이다. 이런 현실에서 제도학교의 무감각 혹은 관행의 묵수는 학교에 대한 반매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형 학교의 시스템과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은 적확하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제도학교의 위기정도로 볼 때도 그렇다.

□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학교운영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경기교육이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추격하는 것으로는 새로운 전형의 창출은 고사하고 학생들의 삶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중국에는 학생들의 학교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미래친화형 학교모델을 구안하고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미래형 학교교육 운영 방안 연구’는 이런 필요성에 부합하는 정책연구다.

2. 연구의 기대효과

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기대효과

□ 이 정책연구는 미래형 학교체제에 새로운 개념과 논리를 개발하고, 나아가 학교정책 프레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혁신 모델의 개발과 이의 현장 연착륙화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학교정책을 지역 친화적으로 재해석하고, 경기도 환경에 적합한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정책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브랜드화’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이 정책연구는 단위학교 혁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각 정책부서가 어떤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수립하고, 각각의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칭 결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학교교육정책 개발은 물론 정책로드맵 작성 아이디어 개발도 중시한다.

□ 학교혁신이란 모범사례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스스로 모범 사례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정책아이디어가 동원될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정책당국의 상상력이나 이를 정책화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청의 정책입안 부서 및 장학담당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핵심역량강화형 학교교육과정, 학교운영의 협치체제, 학습복지 구축방안, 교원의 성장 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를 제공할 것이다.

□ 이 연구는 미래 친화적 학교정책의 개발에도 주력하지만 개발된 정책을 어떻게 학교현장에 착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관심을 집중한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풍토에서 어떤 매개조건을 충족시켜야 정책이행이 순조로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이 구사할 수 있는 ‘넛지전략’(nudge strategy)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제시할 것이다.

나. 단위학교 차원의 기대효과

□ 단위학교 차원에서 볼 때, 이 정책연구는 실제적인 유용성이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분기집중 이수제, 블록제, 학점제, 평가체제 등), 학생들의 학습복지 및 생활복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문제, 학생이나 학부모 참여의 조직화 문제, 학력(지적 능력 및 일체의 학습소양)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 나아가 학교가 사회자원을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인가에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연구는 학교구성원의 혁신 마인드를 제공하는데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단위학교가 정책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학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지(方法知)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특성화 사업과 관련한 연관 주제(교육과정평가, 교과서구성, 학습조직화, 교사성장 등)들에 대한 상상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단위학교가 운영구조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떤 실행과제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할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에서 다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교육의 코드를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학교에 적합한 학교교육과정 모형 및 창의적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급별 학교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운영 조건을 구체화한다.

둘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체제 구축 방안을 구안한다.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학습시스템 개발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필 것이다.

셋째,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에 의한 학교운영 체제, 즉 협치구조(Governance)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탐색할 것이다. 미래학교의 소통원리는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어떤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구성원이 교학상장(敎學相長)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밝힐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학교는 교육복지 및 생활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잘하는 아이 더 잘하게, 뒤처진 아이 잘하게 하는 학교’가 바로 미래형학교인 만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을 검토할 것이다.

다섯째, 교원의 성장은 학교혁신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원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의 한계를 확인하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혁신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II. 학교교육의 미래 코드

1. 학교교육의 미래 준거
2. 학교교육의 미래 코드

Ⅱ. 학교교육의 미래 코드

1. 학교교육의 미래 준거

가.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사회의 도래

□ 디지털 기술로 인한 미디어 환경과 소통양식의 변화로 정보/콘텐츠가 다른 영역을 넘나들어 부문 간 경계가 약화됨으로써, 기존의 이질적 요소들이 모이고(수렴), 섞이고(혼합), 바뀌고(변형), 나뉘고(분화), 거듭나거나(재생) 새로운 것으로 창발 하는 현상이 보편화됨.

□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탈 제약적 의사소통으로, 미시적 인간관계에서 거시적 사회구조로, 외적 생활환경에서 내적 의식 세계로, 실제 현실에서 가상 세계에 이르는 사회적 행위 공간 전역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이합집산이 나타나게 됨.

컨버전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문화적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헨리 젠킨스는 이를 집단지성, 참여의 문제와 연관 짓는다. 컨버전스에 의해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개별화된 지식의 집합적 발현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대중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모’ 페인과 ‘네 멋대로 해라’ 페인에서 시작된 참여적 시청자 문화는 컨버전스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문화적 징후였으며, 우리의 삶이 이미 상당히 그 안에 깊게 발을 담그고 있음을 알려준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인터넷 게시판에 감상평을 올리고, 메신저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핸드폰 문자로 번개를 공지하고, 카페를 하나 빌려 지난 방송분을 공동 관람한다. 이들은 다양한 미디어들을 개별적인 낱알의 대상으로 식별하지 않고, 이를 상호 연관된 일종의 미디어 네트워크로 묶어낸다. 소위 컨버전스 미디어가 나오기도 전에, 대중매체의 수용자들은 이미 컨버전스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

컨버전스는 자유, 참여, 다양성, 창의성과 관계가 있다. 이 네 가지 가치는 컨버전스의 조건이

자 결과다. 물론 이러한 가치들은 개방과 공유의 마음속에서 성장한다. 열면 커지고 나누면 많아진다. 하루하루 밀려가다 보면, 어느새 컨버전스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개방과 공유의 마음을 갖고, 나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⁴⁾

□ 또한 정보기술의 진보로 인해 지식의 생산, 공유 및 소통방식이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며,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의 가치는 급격히 탈각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각자의 지식을 융합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make a difference)이 필요함.

미래는 가능성과 방향, 사건, 뒤틀림과 전환, 발전과 놀라움의 집합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조각들은 제자리를 찾고 새로운 미래의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조각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예측해야 한다. 그러한 연결 관계를 잘 이해할수록 그림은 더욱 정확해진다. 때로 나는 무작위성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에 각각의 사건과 현상, 일시적 유행과 뜻밖의 일들을 적고 카드를 섞은 다음 둥그렇게 펼쳤다가 다시 섞어 보곤 한다. 카드들이 무작위로 펼쳐질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연관성이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사건의 새로운 나열 방식과 새로운 패턴이 빛나는 것이다.⁵⁾

나. 글로벌 리스크(Global Risk) 확산과 교육의 과제

□ 미래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운명공동체 속에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됨. 환경문제나 빈곤문제 등이 좋은 예임. 이는 개개의 인간들이 지구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며, 이에 부합하는 윤리의식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반영함.

□ 따라서 교육부문에서는 몇 가지 가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다양성 속에 담겨 있는 일체성을 인식하는 ‘인류의식’, 유한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생태의식’, 온 인류의 안보에 대해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가지는 ‘지구인의 시

4) 박근서, ‘컨버전스, 우리의 새로운 문화’, 매일신문 2009.9.17

5) 안진환·박슬라 역, John Naisbitt (2007), 『마인드 세트』, 비즈니스북스, p.86.

민의식', 그리고 '인간의 조건에 대한 정신적 각성'등이 중핵 가치로 인식되어야 함.

□ 인류의 윤리는 인간이 개인인 동시에 사회의 부분이며 인류의 부분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해야 함. 실제로 개별자들은 이와 같은 3중의 실체를 지니고 있음. 이런 점에서 인간적 성장의 실체는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에의 참여 그리고 인류에의 소속의식이 결합된 것이어야 함. 교육부문에서 이를 확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주된 책무이자 기능임.

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교육적 니즈(needs)의 다양화

□ 사회구조의 다원화, 민주주의적 가치의 확산 등과 더불어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동시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학부모, 학생에게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기본 학교체제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거나 기존 학교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적 니즈(needs)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학생·학부모 양자가 공히 주장하는 바임. 학생이나 학부모 요구 내용은 '교육내용의 시대적 적합성의 담보', '학교제도의 폭력성 배제', '높은 수준의 질적 제고'로 요약됨.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익적 통제'는 유지하되, 각 주체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학교교육의 혁신 역시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학습자의 학습태세에 적합한 다양한 케어 인프라는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단선적인 학교운영 체제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이반현상이 더욱 확산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라. 미래핵심역량에 대한 요구 증가

□ 미래사회에서는 새로운 생존조건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즉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직업세계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OECD에서도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이 필요함을 강조함. 예컨대, ‘도구의 상호작용적 이용’을 위한 ‘언어나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함. 그리고 ‘이질적인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능력’,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생애계획과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권리와 흥미, 한계와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표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역량⁶⁾

범 주	선정 이유	핵심 역량
1.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실현할 필요성 •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할 필요성 • 자신의 환경과 그 기능을 이해할 필요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넓은 시각(big picture)에서 행동하는 능력 2. 인생의 계획과 개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3. 자신의 권리, 관심, 한계, 욕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
2.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술을 가져야 할 필요성 • 세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 작용하도록 활용하는 능력 2.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하도록 활용하는 능력 3. 기술을 상호 작용하도록 사용하는 능력
3. 사회적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다룰 필요성 • 공감의 중요성 •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능력 2. 협동하는 능력 3.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 이미 교육선진국에서는 학교교육의 중심축을 핵심역량개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는 학습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단편적인 지식 공부의 가치가 반감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계에서도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외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 학교교육은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6) 한유경(2009), 「내일을 위한 학교개혁 프로젝트」, 교육과학기술부, 2009, p.22.

2. 학교교육의 미래 코드

가. 제 1 코드 : 집합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

- 성장 세대들이 미래의 융·복합화 시대에 적응해 새롭고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out of the box) 사고방식이 중요함. 특히 미래사회는 지식을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보고,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지식’의 구성을 강조함.
- 교육활동 과정에서 ‘창의성 지식’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개개인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의적 환경’이 우선되어야 함. 즉 상호간에 사고실험을 자극하고, 실험적 시도에 대해 지지·옹호하고, 협력적 학습을 통해 질문이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파생하고 환경에서 창의적 지식이 창조될 수 있는 것임.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학교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창의성의 본질은 ‘개별자적 독특성’이라기보다는 ‘집합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임.
-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에 따르면, ‘천재성’이란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의 정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사회적 현상으로 봄. 같은 맥락에서 창의성도 타자와의 관계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집합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질적 전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즉 학생중심의 학교운영, 학생참여가 가능한 교수·학습형식, 삶과 얽히 결합된 교육과정, 체험과 사색 및 사유가 가능한 시·공간적 환경 구성, 학교 구성원 간 상호 호혜적 관계가 가능한 공동체성의 확보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나. 제 2 코드 : '공공의식' 혹은 '공공하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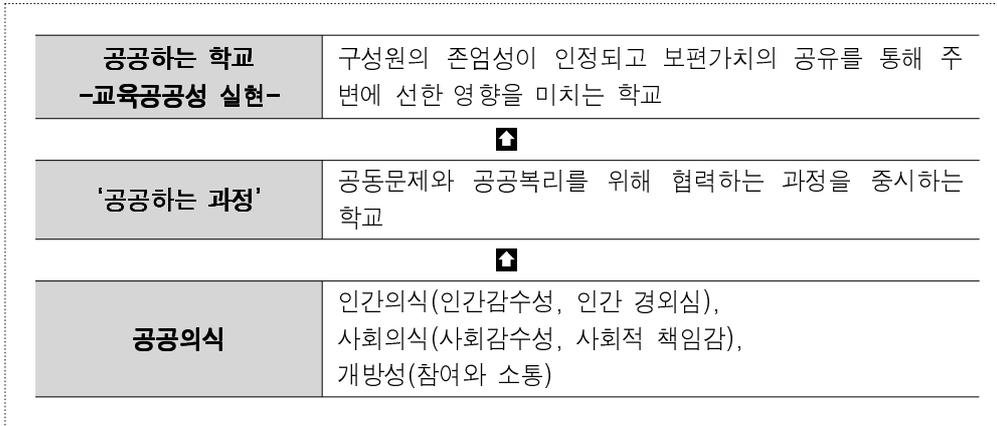
□ 본래 공적기관으로서의 학교는 공인(公人)을 육성하는 곳임. 따라서 미래형 학교에서도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매우 중요함. 즉 미래형 학교는 공인의 대전제인 공공의식이 풍부한 학교가 되어야 함

□ 공공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인간의식, 사회의식, 개방성 세 가지임. '인간의식'이란 인간을 귀히 여기는 심성을 말함. 또한 '사회적의식'은 여러 집단 특히 국가의 사정을 내 것으로 내면화한 의식을 말하는데, 사회적 감수성,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사명감 등을 포함하는 의식임. 그리고 '개방성'은 민주사회 운영의 요체인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의식임

□ 교육공공성의 대전제는 '공공하는 과정'의 조직화임. '공공하는 과정'이 지지되고 옹호되는 조건에서 교육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미래형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바로 '공공하는 과정'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공공하는 과정'이란 공동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것,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공통의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 문제해결 과정에서 타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 동료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 상호 호혜적 공동규범을 만들어 가는 것 등을 말함.

□ 미래형 학교는 중국에 '공공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 '공공하는 학교'란 학교구성원 간에 존엄성이 인정되고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보편가치를 공유·지지하며, 중국에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임.

<표 2> 미래형 학교 교육공공성 실현 개념도



다. 제 3 코드 : 소통(疏通)과 동반성장

□ 학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복잡계(complex system)임. 또한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 중 일부는 복수적 해석이 가능한 내포적 지식들임. 즉 학교에는 상반된 해석에 의한 갈등 소지가 상존함. 이런 점에서 학교구성원간에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함. 기존의 학교가 제도적 권위에 의해 운영되었다면 미래형 학교의 운영 근거는 집단적 지혜임. 이런 맥락에서도 미래형 학교에서는 상호소통을 통한 협치체제(Governance)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학교 업무의 본질은 구성원간의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결정된 사안에 대한 공동체적 집행, 그리고 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이를 피드백 하는 연쇄과정임. 따라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동의와 공유, 헌신, 그리고 자기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함.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수평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해 진다는 점임.

□ 따라서 미래형 학교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의 전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명예처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가 필수적임. 즉 미래사회에서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책임을 함께 분담하는 학교체제, 비유적 표현으로 ‘2.0학교’를 상정함.

□ 또한 학교에 대한 기존의 규정 방식은 학습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해 왔음. 즉 학교는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곳이라는 단선적 규정이 지배적 인식이었음.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학교는 구성원 모두를 학습의 대상으로 포괄하게 됨. 즉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곳으로서의 학교를 상정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구성원 간에 동반성장이 가능한 전면적 학습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라. 제 4 코드 : 체험과 열정

□ 교육받은 사람(educated man)의 특징 중 하나는 성장 동기가 충만하다는 점임. 성장 동기란 배움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 자신이 맞닥트릴 세상에 대해 맞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의미함. 이러한 성장 동기는 미래사회의 다변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증시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은 성장 동기를 자극하는 환경과는 거리가 있음.

“피뿐기와 받아먹기의 교육방식은 두 가지 치명적 특성을 가진 정신습관을 길러놓는다. 지적 무기력성과 호기심 상실이 그 특성들이다. 지적 무기력성 상태는 암기력이나 수리계산력의 부족과는 다르다. 지능지수와도 별 관계없다. 암기도 잘하고 수리능력도 있고 집중력도 있다. 그런데 질문하고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비판적, 논리적, 분석적으로 점검하는 일에 이르면 정신은 절인 배추와도 같은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 생래적 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기력성은 수동적 반응만이 강하게 요구되는 환경에 오래 노출되고 거기 적응하면서 ‘길러진’ 정신습관이다. 호기심 상실의 경우도 선천적 지능이 아닌 경우에는 지능과도 큰 관계가 없다. 지적 자극에 대한 반응능력의 둔화, 뭔가 알고 싶다는 적극적 자발적인 탐구욕의 결여, 무관심, 집중력 부족 등이 호기심을 잃어버린 정신의 특징이다.”⁷⁾

7) 도정일(2007), “경쟁력, 수월성, 창의성의 비극”, 『비평』 제15호, 2007 여름, 생각의 나무, p.21.

□ 따라서 미래형 학교에서는 텍스트를 벗어나 삶과 얹의 공모관계를 구성하는 ‘맥락 중심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들 스스로가 체험을 통해, 텍스트 지식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열정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건의 구비가 필요함. 실제로 의미 구성 과정이 생략된 단편적인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활용가치가 낮은 불활성 지식(inert knowledge)에 불과함. 따라서 관념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넘나드는 과정이 필요함. 특히 실제의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열정과 몰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상에서는 ‘교과통합 수업’, ‘프로젝트 학습’, ‘인턴십’, ‘다양한 체험학습’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학교의 일상생활 중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사회 참여 활동, 학교공동체 놀이 등의 ‘창의적 기획’이 고려될 수 있음.

Ⅲ. 미래형 학교의 개념과 운영 원리

1. 미래형 학교의 개념들
2. 미래형 학교의 운영 원리

Ⅲ. 미래형 학교의 개념과 운영 원리

1. 미래형 학교의 개념들

가. 학교상 :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 함께 성장하는 학교
 - 학교주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공동체 학교

- 즐거운 학교
 -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학교 - 배움의 경이로움과 희열이 풍부한 학교
 - 「소통의 즐거움」이 있는 학교 - 주체간 인간적 존중감이 살아있는 학교
 - 「나눔의 즐거움」이 있는 학교 -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이웃이 되는 학교

나. 학생상 : 자율 하는 공동체적 인간 육성

- 마음의 구김이 없는 긍정적인 학생
 -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생활환경에 대해 긍정하는 학생

- 상황 변화에 두려움이 없는 당당하고 도전적인 학생
 -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않는 당당함과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

- ‘자기기획’(self-plan)이 가능한 자율적인 학생
 -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능력이 있는 학생

- 더불어 사는 삶의 조건에 대해 성찰하는 학생
 - 이웃과 관계 맺고,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학생

다. 정책 목표 설정

- 제1목표 : 미래형 공교육 모델 창조
- 제2목표 :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 제3목표 : 신개념의 교원 전문성 신장
- 제4목표 : 교육복지의 고도화

라. 목표별 정책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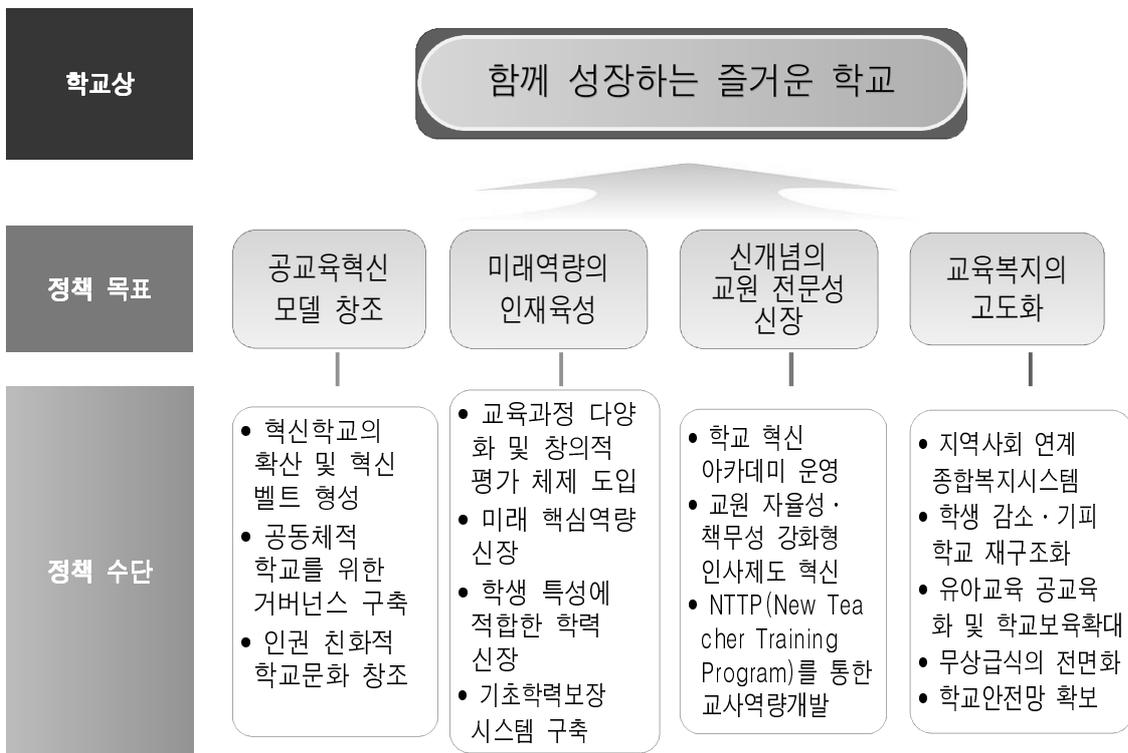
- 제1목표 : 공교육 혁신 모델 창조
 - 혁신학교의 확산 및 혁신벨트 형성
 - 단위학교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창조

- 제2목표 :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창의적 평가체제 도입
 - 미래핵심역량 신장
 - 학생특성에 적합한 학력 신장
 - 기초학력보장 시스템 구축

- 제3목표 : 신개념의 교원 전문성 신장
 - 학교혁신 아카데미 운영
 - 자율성·책무성 강화형 교원인사제도 개선
 - NTTP(New Teacher Training Program)를 통한 교사역량개발

- 제4목표 : 교육복지의 고도화
 - 지역사회 연계 종합복지 시스템 구축
 - 학생 감소·기피학교 재구조화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학교보육 확대
 - 무상급식의 전면화
 - 학교 안전망 확보

<표 3> 미래형 학교상 및 정책수단 연계도



2. 미래형 학교의 운영 원리

□ 기존 학교운영의 주된 원리는 ‘실적주의’, ‘물량주의’, ‘형식주의’, ‘일방주의’를 특징으로 함. 이러한 학교운영 원리 하에서는 학생들의 전인격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오히려 많은 양의 학습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먹기’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성장은 지체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남. 즉 ‘배움의 퇴행’이 일어나는 것임. 즉 ‘쓸데없는 것을 과잉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작 배워야 할 내용들을 등한시한 나머지 자신의 성장 동기를 상실하는 부조리’가 나타나게 됨.

□ 따라서 미래형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교운영 원리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일차적으로 ‘성장우선주의’를 중시해야 함. 개별 학생들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 동기’를 자극하는 일에 주목해야 함. 나아가 성장 동기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지식 학습과 체험학습의 조화, 의존형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조화, 사유와 실천의 결합을 조직화가 필요가 있음. 이러한 원리가 채택될 때 개별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한 교육활동이 기획될 수 있음.

□ 문제는 ‘성장우선주의’ 원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의미가 없음. 따라서 미래형 학교에서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학생·학부모의 질 높은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소통시스템이 필요함.

□ 아래 표에 밝힌 것처럼 학교가 ‘성장우선주의’, ‘적정주의’, ‘실질주의’, ‘상호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학교풍토는 물론 교육과정의 디자인역량도 신장될 수 있을 것임. 이런 점에서 미래형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교운영 패러다임(리눅스LINUX 교육 패러다임⁸⁾)임이 적용되어야 함.

8) 비유적인 표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적 폐쇄 공동체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특정집단을 넘어서는 개방성, 창의성, 참여와 소통의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교육혁신 방식을 의미한다.

<표 4> 학교운영 원리의 전환

기본의 학교운영 원리	새로운 운영원리
실적주의 -대학입시 중심-	성장 제일주의
물량주의 -가급적 많이 제공하기-	적정주의
형식주의 -형식적인 진도 나가기-	실질주의
일방주의 -학생·학부모의 요구 배제-	상호주의
☞ 배움의 퇴행	☞ 배움의 재생

IV. 미래형 학교교육 운영 방안

1. 핵심역량 강화형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
2. 창의적 평가체제 개발
3.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
4. 학생 개인별 맞춤형 케어(Care) 시스템 개발
5. 학교단위 교사 성장 프로그램 운영

IV. 미래형 학교교육 운영 방안

미래형 학교란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고, 핵심 역량을 신장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위학교가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학교체제의 운영방식, 학교의 교육내용 및 운영 구현을 위한 평가제도 등 학교교육 시스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와 이에 따른 액션 플랜을 제시한다.

1. 핵심역량 강화형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목 적

- 기존의 학교교육과정에서는 ‘문제를 푸는 존재’(problem solver) 양성에 주안점을 두어왔음. 즉 학교교육과정 운영 체계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을 중시해왔음.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대 적합성을 담보하는 학교교육과정 디자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은,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과 방법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및 정보원적 지식(knowing where), 그리고 도구적 능력, 자기인식 능력, 사회적 능력(의사소통능력, 관계능력), 감수성 등이 요구됨. 이러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학습내용 및 학습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크게 세 가지 능력 신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질문능력’, ‘관계능력’, ‘기획능력’이 바로 그것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 능력’임. 교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질문할 수 있는가’에 있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한다는 것이고, 온갖 사실과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임. 따라서 질문능력이란 바로 세상의 현재를 분석하고, 현상의 근본 원리를 되묻고, 각각의 지식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의미함. 이러한 질문 능력이 풍부한 경우, 평범함에서 심오함을 발견하고, 진부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게 됨. 또한 거칠지만 평면적 정보를 입체로 재구성할 수 있는 ‘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짐.

□ 이런 점에서 질문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이 있는가, 분석 대상에 대한 추론의 훈련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질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배움의 경이와 배움의 기쁨, 나아가 배움 과정에서 감내해야 할 고통을 알게 됨.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질문은 여타 영역과 관련된 질문의 연쇄를 만든다는 점에서 질문능력 그 자체는 창의성과 탁월성의 필요조건임.

□ 둘째는 ‘관계능력’임. 인간사의 모든 사상(事象)은 관계 형식임. 따라서 관계능력은 단순한 매너 문제 그 이상의 ‘감정이입능력’을 의미함. 대상의 처지와 감정, 대상의 존재형식과 그 대상이 타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관계능력임. 이러한 관계능력은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배경이자 앞서 밝힌 질문능력을 지지하는 내적인 힘이 됨. 즉 관계능력이 풍부한 경우, 질문의 연쇄가 활발해 지기 때문임. 예컨대,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감정이입능력이 풍부할 때, 그들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동한 대안(代案)을 제출하게 될 것임(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계능력은 바로 새로운 형식의 질문으로 나타나게 됨). 따라서 관계능력은 곧 삶과 삶, 실제와 관념을 연결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매개능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 다른 미래역량 중 하나는 ‘기획능력’임. 이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스스로 피드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이러한 기획능력은 책임기를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기획과 실행의 훈련과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것임. 이런 점에서 성장과정에서 어떤 기획의 경험이 있는지, 실행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미래 사회의 특성중 하나는 ‘유목적성’임. 삶의 형식 중에는 유목적 면모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것임. 이런 점에서 기획능력은 미래사회의 ‘생존능력’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미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획의 경험’을 중요한 판별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 학교가 가르쳐야 할 지식은 ‘미래중심 지식’, ‘의미중심 지식’, ‘인간관계 지식’이 되어야 함. 이런 차원에서 학교교육과정 핵심역량 신장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표 5>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의 모습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의 모습]

- 지식을 획득하고 내면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교육에서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 2020년에는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 순수한 전문지식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 인터넷 등 대중 통신매체의 도움으로 지식의 획득이 어느 곳에서든 가능한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학습장소가 다양화 될 것이다.
- 지식의 팽창이 전통적인교과 위주의 수업을 해체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다.
- 학습한 내용의 수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단계별로 구분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개개인의 특수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책임적인 학습이 교육에서 매우 강조될 것이다.
- 교육의 기초였던 교사-학생간의 관계가 인터넷 등 학습 네트워크에 의해 보완되거나 부분적으로 와해될 수 있을 것이다.
- 평생교육의 원칙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다.
- 교육기관의 효용성에 대한 외부평가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 학습 기술적이고 학습 방법적인 능력
- 심리-사회적인 능력
- 외국어 구사 능력
- 대중 매체 활용 능력

나. 제도적 조건

□ ‘2009 개정 교육과정’ 주요내용 및 기본 모형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단위학교 주체들의 ‘해석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개정이란 평가가 가능함. ‘해석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의미이자, 학교 특성 및 자체 논리에 따라 교육활동 로드맵을 재구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함.

<표 6> ‘2009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및 기본 모형

[초등학교]

- 학습의 적정화 및 효율화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활동 전개
 -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에 따라 학년 및 학기당 이수 교과 수 축소
 - 학년군(1~2학년 / 3~4학년 / 5~6학년) 편성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 제고, 특정 교과의 학년 및 학기 집중 이수의 편의성 도모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교과 수업 시수의 자율적 증감 편성·운영 가능-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증감
 - 기존의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 배정에서 벗어나 학년 군별 2년간의 총 수업시수를 배정함으로써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함
- 초등학교 1~2학년 초기단계의 기초·기본 교육 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편성·운영 가능
 -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 미흡 학생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편성·운영 가능
-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에 따른 인성 교육 제고
 -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내용 간의 중복 해소 및 체험 중심 활동 강화
 - 다양한 체험, 봉사, 진로 교육에 기초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수학 256	272	272
	수학		272	272
	과학/실과	바른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 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중학교]

- 교과군 및 학년군 도입
 - 중학교 1~3학년을 하나의 학년 군으로 설정함
 - 기존의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 배정에서 벗어나 학년 군별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배정함으로써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함
-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 편제 및 시간배당 기준에 제시된 학년 군별 교과(군)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허용함
- 학습의 적정화와 교육 효과를 위한 지침 제시
 -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가능한 한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함
- 선택 과목 활성화
 - 중학교 교과 재량활동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선택 과목을 8개 교과(군)중 하나인 '선택'으로 포함함
 - 선택 과목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의 6개 선택 과목(군)으로 함
 - 중학교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함
- 진로 교육 활성화
 - 선택 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신설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진로 활동' 설정 권장

구 분		7(중1) ~ 9(중3)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고등학교]

- 선택 교육과정 확대
 - 현행의 고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함.
 - 기존 교육과정의 10학년 교과목의 성격도 선택과목으로 전환됨.
- 4개 교과 영역과 8개 교과(군) 구성
-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및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확대(24단위)
- 이수 단위 및 이수과목 적정화
 -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단위 수, 현행의 210단위에서 204단위로 축소함.
 -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 수 제시
 -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수를 5단위로 함
 - 한 학기당 가능한 한 8과목 이내로 편성할 것을 권장함.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 시·도 교육청 지정 단위 수의 지침을 삭제함.
 - ‘학교자율과정’신설 : 64단위
 -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
- 학생의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운영
 -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가능
 -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선택이수단위)	
			교과(군)	교과 영역		
교과 (군)	기초	국어	15(10)	45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10)	35		
		과학	15(10)			
	체육·예술	체육	10(5)	20		
		예술(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15)	16		
	소 계		116(75)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변화

-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과 간 통합운영 가능
- 다양한 체험활동 및 진로교육 공간 확대(창의적 체험활동 및 선택교과 신설)
- 단위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 가능
- 우수학생을 위한 심화학습 과정 개설 가능

다.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따른 선행 질문

□ 공교육의 기본 전제는 ‘교육내용의 공공성’임. 즉 ‘경쟁력’(비교 우위력) 이상의 ‘공헌력’(경쟁력×나눔 의지)을 교육목표로 설정해야 함.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공분모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즉 공적가치가 중핵이 되어야 함. 그렇다면 지향해야 할 공적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 동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음. 예컨대, 생명, 생태, 평화, 인권, 정의, 자유, 관용, 참여, 약자보호, 반차별 등이 그것임. 이런 가치들은 정치적·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가치들임.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아끼고, 지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정당화하고, 나아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가치들이 강조되는 조건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풍부한 사회’, ‘더 평등하고 공공적인 사회복지가 갖추어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임.

□ 현실은 비구조화된 세계임. 따라서 텍스트를 통해 배운 지식은 실제 세계에서는 분과적(compartmentalized)으로 작용하지 않음. 즉 의미 구성 과정이 생략된 단편적인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활용가치가 낮은 ‘불활성 지식’(inert knowledge)에 불과함.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은 ‘익숙한 것’(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새로운 것)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남.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참여와 토론, 협력적인 실험과정이 자극되고 조장되는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함.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조함. 따라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사고 실험이 자극되고 학교활동을 통해 관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민해야 함. 체험활동의 활성화 및 참여수업의 제도화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패경험’을 자극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임. 실패란 어떤 기획과 실행노력을 전제할 때 성립됨. 따라서 비록 어떤 시도가 실패되

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주체적인 사유와 ‘자기의미화’ 과정을 경험하는 셈임. 이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실패의 양과 질은 바로 미래 성취 예언력의 근거임. 이러한 실패경험은 학생활동을 다양화하게 조직하고, 그들의 자치공간을 확대하는 학교에서 가능한 일임. 그리고 ‘공공(公共)하는 체험’, ‘함께하는 체험’을 정교하게 조직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임. ‘공공하는 체험’은 타인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자 다양한 대상에 대한 존재형식을 알아가는 과정임. 이러한 체험 과정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인간감수성 및 사회감수성이 함양되고 관계적 자아가 형성됨. 따라서 학생들 간에 혹은 학생과 교사, 나아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조직할 필요가 있음. 이런 활동이 정규교육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중요함.

라.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모형

□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육과정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음.

<표 7> 초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모형

<p>□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질 높은 교육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교육과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내용 재구성하여 활동중심, 토론,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게 함 <p>〈보기〉 사회과 : 우리 고장 탐사대 : 지역 환경, 시설, 자원인사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특정 영역의 교육과정을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화 <p>〈보기〉 과학 : 조현 환경파수꾼 : 과학과 환경 영역을 학년별로 일정 시간을 재구성하여 교사, 지역인사 협력수업</p>
<p>□ 교과별 통합을 통한 미래를 살아갈 능력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 교과 통합으로 통합적 사고력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교육 <p>〈보기〉 국어, 음악 : 나도 작곡가 : 국어 학습의 시쓰기와 음악의 창작 학습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통합을 통해 학교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화

<p><보기> 2~3개 교과 통합 : 통합 주제별 : 10~20차시 이상의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p>
<p>□ 재량, 특별활동을 재구성으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p> <p><보기> 재량, 혹은 특활 자체거나 재량+특활 : 학교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 17~34차시 정도의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시수에 따라 2~3개 활동 가능)</p>
<p>□ 20% 증감 운영을 활용한 보충, 심화형이나 통합적 성격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p> <p><보기> ① 국어 20% 감하여 사회 20%증하여 논술 프로그램 운영 ② 체육 20% 증, 음악 20% 감하여 힙합댄스</p>
<p>□ 학교 규모와 교육과정 영역에 따른 무학년제 운영</p> <p>- 소규모, 소인수 학교인 경우 일부 교과 무학년제 운영</p> <p><보기> ① 수학 교과 3학년 이상 무학년제 ②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무학년제</p> <p>- 재량, 특별활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무학년제 운영</p> <p><보기> ① 재량, 특활 개별 혹은 통합하여 전교생 자치활동 ②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등 무학년제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p>

□ 중학교의 경우 단위학교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함.

<표 8> 중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모형

<p>□ 공통교육과정 순증 모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특정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20% 범위에서 늘리는 모형 · 순증모형은 지역특성 및 학생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다만 순증모형이 자칫 국·영·수 교과 중심의 입시교육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차용될 수 있음 			
상상 가능한 순증모형 교육과정안	운영의 편리성	수요자 탄력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학년 동일 교과 편성 (예, 모든 학년 영어·수학 수업시수 증가) 	+	-	입시교육 강화 가능성 - 자율권 남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적용 교과 교차 편성 	0	0	학업소양 및 성장속도

(예, 1학년 국어, 2학년 수학·과학 등) ■ 학기별 적용 교과 교차 편성 (예, 1학년 1학기 - 국어·영어 등			고려
■ 분기별 적용 교과 교차 편성 (예 1학년 1학기(1/4) - 인권주간 - 도덕 1학년 1학기(2/4) - 과학주간 - 과학 1학년 2학기(3/4) - 학교축제 - 예술 1학년 2학기(4/4) - 책 축제 - 국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활동과 교과 학습 연계 • 입체적인 시간표

□ 공통교육과정 순감 모형

- 순감모형은 특정 교과목 기준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줄이는 모형
- 증감 교과목의 교차편성이 없이, 단순히 기준시수 이하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학교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임.

□ 공통교육과정 증감교차 모형

- 총 기준시수 범위 내에서 특정 교과목 수업시수를 줄이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업시수를 다른 교과목에서 증배하는 모형
- 다른 경우는 총 기준시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교과목간 시수 교차가 가능할 수도 있음. 이런 점에서 증감교차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성'에 있음.

상상 가능한 증감교차모형 교육과정안	편성 예	수업시수 범위	비고
1(증) : 1(감)	영어(증) : 기술·가정(감)	총기준시수 범위	학생요구 및 수업시수 형평성 고려 필요
2(증) : 1(감)	영어·수학(증) : 미술(감) (순증+증감교차)	총기준시수 초과	
1(증) : 2(감)	수학(증) : 도덕·음악(감)	총기준시수 범위	
2(증) : 2(감)	국어·영어(증) : 사회·선택교과(감)	총기준시수 범위	
2(증) : 3(감)	영어·수학(증) : 도덕·미술·음악(감)	총기준시수 범위	

□ 정규교과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정규 교과	체험 활동
생명의 탄생과 진화, 윤리 수업	과학관특별전, 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
음악·미술 수업	미술관, 오페라, 전람회 관람 등
법과 질서 수업	법원 방청, 모의재판 참관 등
과학 수업	과학관, 박물관 관람 등
국사, 세계사	사적지, 유적지 등

□ 창의적 체험활동 구성 방향

-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일찍 선택하고 그에 맞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들이 하나의 유기적 일관성을 지녀야 함. 따라서 3년 동안의 노력이 누적되도록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사회와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 인사와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표 9>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교과 학습 영역

범주	세부 내용
시민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환경	환경 교육, 물 보호 교육, 해양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보건·안전	보건 교육, 성교육, 양성 평등 교육, 안전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호국·통일	통일 교육, 호국·보훈 교육
국제이해	국제 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복지·문화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여가 활용 교육, 저 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지역·전통	농업·농촌 이해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진로·경제	진로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경제 교육, 소비자 교육, 에너지 교육
정보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점제 운영

<표 10> 학점제를 적용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모형

<p>[학점제를 적용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모형]</p> <p>□ 학점제 개념</p>

- (학점) 단계 및 교과목에서 정한 일정한 학습량의 단위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1 단위를 1학점으로 봄
- (학점제) 단계별로 설정된 세부 영역별 '국가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해당 단계의 이수를 판정(무학년 단계 선택 교과)하거나, 혹은 학칙에서 정한 과목의 최소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해당 과목의 이수를 판정(학년간 교차 선택 교과)하는 평정방식
- (학점제 운영 방식)
 - 1) (단계 선택제) 단계 설정이 가능한 교과의 경우 일률적인 학년 간 구분을 없애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설정하여 이수하거나,
 - 2) (과목 교차 선택제)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흥미·적성, 진로 결정에 따라 해당 학년에 관계없이 개설 과목을 교차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 일반계학교 인문사회계열 교과별 학점배당 모의편성(안)

과정	영역 교과(군)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창의 적체험 활동	합계	과목 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음미)	기술· 가정	제2외 국어	한문 교양				
					사회	역사	도덕										
인문 사회	1-1학기	5	5	5	5			5	5	5				4	39	7	
	1-2학기	5	5	5		5		5 택1	5	5				4	39	7	
	2-1학기	5	5	5			5 택1	5 택1				4 택1	4 택1	4	37	7	
	2-2학기	6	4	6	5												
					4 택1					4		4	29	5			
	3-1학기	5	4	5	8(택2)						4 택1			4	30	6	
	3-2학기	5	4	5	8(택2)									4	26	5	
계	26	23	26	10-2 0	5-20	5	15	10	10	4	8	4	20	204			

구분	교과영역	교과(군)	필수이수학점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영역		인문사회	
			기준	인문사회	기준	인문사회		
교과(군)	기초	국어	15	15	45	45	44	16
		수학	15	15				12
		영어	15	15				16
	탐구	사회(역사/도덕)	15	15	35	35 (사20) (과15)	20	20
		과학	15	15				0
	체육·예	체육	10	10	20	20		

술	예술(음악/미술)	10	10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	16	16	16		
소계		111	111	116	116	64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학점		204					

□ 학기당 과목 개설 기준표

교과 영역	교과 (군)	과 목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제5학기		제6학기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기초	국어	국어(5)	●												
		학교지정과목 - 택1(5)			●										
		학교지정과목 - 택1(5)					●								
		학생선택 1(6)							○						
		학생선택 1(5)									○				
		학생선택 1(5)												○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I,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 문학 II, <기타 학교개설과목> 비평적 글쓰기, 연극, 한국현대문학 고전문학 고전강독 문학기행 등													
		수학	수학(5)	●											
			학교지정과목 - 수학 I			●									
	학교지정과목 - 택1(5)						●								
	학생선택 1(4)								○						
	학생선택 1(4)										○				
	학생선택 1(4)													○	
	[선택과목] 수학의 활용,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기타 학교개설과목> 고급수학, 수학과제연구, 미분방정 식, 고급응용수학, 이산수학, 정수 론 등														
	영어		영어(5)	●											
			학교지정과목 - 영어 I			●									
		학교지정과목 - 택1(5)					●								
		학생선택 1(6)							○						
학생선택 1(5)										○					
학생선택 1(5)													○		

		미술(5) [선택과목] 음악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창작 <기타학교개설과목> 음악이론, 미술이론, 음악 감상 등			●														
생활 교양	기술·가정 / 제2외국어/ 한문/교양	학교지정과목 - 제2외국어 택1(4)					●		●										
		학교지정과목 - 교양 택1(4)					●												
		학교지정과목 - 기술·가정(4)											●						
		[선택과목] 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 프 랑스어 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 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아랍 어 I, 아랍어 II, 한문 I, 한문 II, 생 활과 철학, 생활과논리, 생활과심리, 생활과종교, 안전과건강, 생활과교육 등 <기타학교개설과목> 비교문화, 인류학, 미래학 등																	
창의적 체험활동		· 매학기 4학점 필수 · 체험활동내용 구성은 학교필수지 정 및 학습자 선택비율 균형 유지	●		●		●		●		●		●		●				

<표 11> 단위학교에서 개설을 고려할 수 있는 교과목

[단위학교에서 개설을 고려할 수 있는 교과목]	
교과목 명	주요 내용
통합기행	• 학년별 주제 기행 /모둠별 학습기행
농촌봉사활동	• 자매결연 농촌에서의 2박 3일 봉사활동
삶과 철학	•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 • 자유의지와 삶의 형식 • ‘관계적 자아’의 실현과 나의 삶의 목표 등
생태 탐구	• 생활세계에 대한 생태적 관점에서의 재해석 • 우리 동네 생태계의 현실 • 생태순환 논리와 인간의 삶, 나의 삶
미래사회와 진로	• 미래사회의 예측 / • 미래사회에서의 시민 윤리 • 미래사회의 역량과 진로 지형의 변화
한국사회와 인권 (한국사회 소수자 연구)	• 한국의 인권 현실 / • 인권현실에 대한 논쟁적 이해 • 한국사회 소수자 실태 분석 • 소수자들의 사회적 삶과 생활철학
삶과 예술	• 다양한 예술 체험 활동 • 예술가의 삶 조명
지역사회연구	• 지역의 개발과 삶의 변화
IR(individual research)	•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 자기주도 코스웍(2학년 단계) • 교사는 주제관련 자료 제시 및 학생의 진행상황 체크 • 보고서 종료 후 발표회 개최(학부모 참여)

<표 12>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액션플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액션플랜]

-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혁신
 - 학교 실정에 맞게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 -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 교과별 통합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교과와 체험활동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초등) 소규모, 소인수 학교에서의 교과 무학년제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학생의 교육요구에 기반을 둔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개발
 - 진로 감수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진로활동 프로그램 개발
 - 학생의 자기주도성 신장을 위한 주제별 탐구 프로그램 개발
- 창의적·협력적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확산
 - 집합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프레임 개발
 - 교과통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를 위한 협력적 교수·학습모델 개발
-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확보
 - 교육과정 요람(要覽)작성 - 학년별 교과 선택 가이드라인 제공
 - 진로상담 콘텐츠 개발(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양성)
- 교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수업만족도 평가 실시(매학기 학생 평가 주체)
 - 「교과운영계획서」 사전 공지
 - 평가 문제(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공개
 - 학교교육과정 평가 자료 공개
-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Human Ware 확보
 - 지역사회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
 - 교육과정 운영 보조 인력 확충(자원교사 및 학습 멘토 확보)

2. 창의적 평가체제 개발

가. 실 태

- 중·고등학교의 경우 2005년부터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문항 출제 확대,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음
 - 제한적인 범위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항 출제
 -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항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문제 제기 가능성 때문에 창의적인 문제 출제 기피

- 정기고사에서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 출제가 많이 이루어짐
 - 평가의 신뢰성, 채점의 편의성 등으로 선택형 평가 문항 선호
 - 고사시간(50분 이내), 채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답형, 완성형을 일부 출제
 - 학생들은 단편적 지식 암기에 치중하게 되어 입시 위주·점수 위주 교육 강화

- 교사 평가 문화의 관행화
 - 학생의 성장경로에 관한 기록 및 학부모 제공 정보 미흡
 - 창의적 평가 문항 개발 연수 미흡
 - NEIS상에 학생들의 창의성 및 잠재력 관련 기록 미흡

- 양적평가 중심의 평가 문화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
 - 객관식, 단답형, 일제형의 양적 평가로 인해 사교육의 의존성 강화

- 단선적인 평가체제로 인해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특성화 미흡
 - 학교간 차이가 없는 균질화된 교육과정 운영
 - 교과간 통합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의 실험성 부족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부족
 -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다양한 체험실적 쌓기를 위해 사교육 의존

나. 개선 방향

- 중간고사, 기말고사 위주의 학생평가체제(assessment of learning)에서 학습을 돕기 위한 노력 차원의 평가체제(assessment for learning)로 전환
 - 학습주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사고력에 있어서 학습자 개개인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한다.
 - 학습자 각 개인이 수업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은 후 수행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한다.
 - 학습자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평가한다.
 - 각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협동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팀의 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한다.
 -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한다.

<표 13> 학생평가의 변화 방향

학생평가의 변화 방향	
전통적인 학교학습상황에서의 학생평가	미래지향적 학생평가
결과중시	결과 및 과정 중시
선발과 배치 강조, 단면적인 지식 평가	조언을 통한 학습 모니터링 강조
선택형 지필검사 유형의 객관적 평가	지식의 적용에 관한 평가
평가준거와 평가기준의 비명시	수행평가와 관찰 등 주관적 평가 강조
피드백의 부재	즉각적이며 빈번한 피드백 강조
교사에 의한 학생평가	학생 자기평가(self-assessment)강조
학습의 평가(형식적, 총합평가 강조)	학습을 위한 평가(비형식적, 형성평가 강조)

- 창의적 평가방법 도입으로 교수·학습문화의 전면적 변화 유도
 - 정기고사에서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보다 학생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서술형 평가 도입 및 반영 비율 확대
 -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실험·관찰보고서 등 교과특성에 적합하게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활성화
 - 협력적 교수·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모둠별 장기 프로젝트 수행평가 도입

다. 평가체제 개선 과제

- 지필평가에서 수준별 평가 확대
 - 각 교과별 ‘동진도 이심도’에 따른 평가 문항 개발
- 서술형, 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
 - 각 교과별 일정 비율이상으로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권고
 - 교과협의회를 통해 비율 확정
 - 평정의 공정성을 위한 교차 채점 시스템 구축

- 수행평가에서의 수준별 평가 실시
 - 수준에 따라 과제를 달리함으로써 수준별 수업과 평가 연계
 - 교과별 수행평가 문제은행 개발

-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
 - 창의적 평가를 위한 집단적 지혜 도출 및 협력
 - 학생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동의 가이드라인 설정

- NEIS 상의 학생성장 기록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매뉴얼 북 작성
 - 학년별, 교과별 학생성장 기록 방식 개발

<표 14> 단위학교 창의적 평가체제 개발을 위한 액션플랜

[단위학교 창의적 평가체제 개발을 위한 액션플랜]

- 창의적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평가체제혁신TF」 구성
 - 교과별 평가 방법 및 평가 유형 개발
 - 단위학교 차원의 평가유형별 평정 가이드라인 개발
 - 평정 의의제기에 따른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발
 - 연간 평가 계획 및 평가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
 -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참여를 통한 집단지혜 구성
 - 질적 평가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 지필평가·수행평가에서 수준별 평가 비율 및 문항 개발

구 분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 고
기존의 평가관행	동일평가	동일평가	수준고려 정도 - 약
	동일평가	수준별 평가	



개선의 방향	수준별 평가	수준별 평가	수준고려정도 - 강
--------	--------	--------	------------

- 1) 공통학습요소인 기본 내용의 난이도를 달리하는 평가 문항 개발
- 2) 세트문항 평가 방식 개발
 - 수준별 평가문항은 같은 내용을 다른 수준으로 출제하여 배점을 차별화함으로써 학생이 선택하여 답하도록 하는 방식
- 3) PBL(Problem-Based Learning) 결과물 평가준거 개발

- 평가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사성장 프로그램 개발
 - 교과별 수준별 문제은행 구축
 - 평가문항 개발을 위한 교사 워크숍 정례화

- 학생 개인별 피드백 시스템 개발
 -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 구축

3.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

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필요성

- 거버넌스(governance)는 전통적이고 관료제적 통제구조나 행정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리구조로서 네트워크형 협치(協治)를 지향함. 현대사회에서 모든 조직은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음. 학교조직도 다를 바 없음.
- 그러나 그동안 학교는 교원중심의 권력구조였음. 학교 내 권력은 비대칭 구조였음. 따라서 학생·학부모가 학교로부터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간 3분적 권력균형(교원, 학생, 학부모)이 전제되어야 함.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수평적인 소통구조의 시스템화가 가능하고, 집단적 지혜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이 가능해짐.
- 혁신학교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를 구체화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바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2.0학교). 그래야 집단의 지혜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첫째는 교육권재학생(教育權在學生)의 원리임. 학생의 교육권(인간적 성장을 위한 배움의 권리)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행복권 실현의 전제조건임.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정상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학생들은 학교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파트너의 지위를 가져야 함. 학교(교사)와 학생 간 파트너십이 형성될 때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임. 따라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또 다른 원리는 ‘교육권재학부모’(教育權在學父母)의 원리임. 헌법상 학부모의 교육 권은 기본권에 해당됨. 그리고 통칭으로서의 학부모란 자녀의 재학관계 여부를 넘어서서 일반 시민(市民)을 이르는 말이기도 함. (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해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갖는 것은 이러한 법리해석에서 가능해지는 것임) 따라서 학교운영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와 같은 맥락이 됨. 이런 점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전면적이어야 함.

나.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의 장점

□ 미래형 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견제, 균형 관계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교원집단의 방만(放漫)의 특권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노동윤리(철학)와 책무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비전을 공유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능함. 이를 통해 학교문화를 선진적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기존 학교의 조직관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임. 특히 학생, 학부모의 니즈(needs)를 반영하는 만큼 과목 선택, 교재(교과서) 선택, 학습내용 재조직, 수업방법 등의 결정에 있어서 일방성이 지양될 것임.

다.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과제

□ 교사회의 민주적 운영

- 학교운영 정보 투명한 공개, 합의제 의사결정, 논의 및 결정내용 공개
- 각종 위원회의 상시적 운영 및 학년팀·업무팀 책임운영제 도입
- 사이버 토론장을 통한 상호 협력적 학교 운영

- 교직원회의를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지위 부여
- 교직원의 행동지침 및 직무규범 제정

□ 원칙과 신뢰
모든 업무는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하고, 학교구성원은 그 원칙을 신뢰해야 한다.

□ 공정과 투명
모든 업무는 공정무사하게 처리하여 불편함과 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학교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대화와 타협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존중하고, 집행의 과정도 동료성을 발휘하여 협업(協業)한다

□ 소신과 책임
교육활동 기획은 교육적자 양심과 전문기적 소신에 의해 추진하되, 향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 학생참여의 제도적 보장
 - ‘학생을 위한 학교’, ‘학생에 의한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 학생 기본적 보장
 - 학생자치기구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 학교운영에 대한 청문권 부여

<표 15> 학생참여의 구체적인 권리목록

영역	구체적인 권리목록
학교운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 학사일정 협의권 • 학칙개정 요구권 및 참여권 • 학교운영에 대한 청문회 요구권 • 학교평가 참여권
학습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수업 만들기’ 간담회 개최 요구권 • ‘수업운영계획서’ 사전 열람권 • 수업 만족도 평가권 • 선택교과 개설 요구권 • ‘교과주간’ 운영 요구 및 참여권
학생 자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행사 기획권 • 학생회 자율 구성권 •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권 • 동아리 결성 및 지원 요구권 • 학내 집회권 • 학생전용 게시판 운영권

[읽기자료] 학부모 학교 참여의 성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어떤 교육적 성과가 있는가? 여러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학부모의 성과

① 학부모 역할의 개선

- 자녀들을 다루는데 자신감을 높여준다.
-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다.
- 가정을 아동의 학습 환경으로 개선해 나간다.

② 학교/교사/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의 증진

- 학교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준다.
- 학교교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 아이들의 발전을 일상 점검하게 된다.

③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의 하는 일을 도와준다.
- 교직원들과 친숙해진다.
- 학교에 가는 부담감이 없어진다.

④ 가정에서의 계획적인 학습 활동 조력

- 숙제를 돕고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나간다.
- 아이를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 어린이와 함께 학습자로서 배운다.

⑤ 타 학부모와의 관계 증진

- 아이들을 교육할 계획을 함께 수립할 기회가 많아진다.
- 책임을 느껴 부모들끼리 학교에 필요한 일을 결정, 돕게 된다.
- 학교교육과 관계된 지역 문제해결에도 참여할 기회가 많아진다.
- 지역사회 교육자원에 대한 이해가 증대된다.

■ 교사에 대한 혜택

① 학부모에 대한 이해의 증진

- 가정의 문화와 부모들의 재능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를 이해할 기회가 많아진다.

② 의사소통의 향상

- 학생의 성적, 문제 등을 수시 논의하게 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업에 적절히 반영

하게 된다.

- 학부모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져 상호 의사소통을 증대시킨다.

③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교를 도우려는 동기를 자극시킨다.
- 학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게 된다.
-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협력, 지원하게 된다.

④ 가정에서의 학습

- 학습 시간량을 증대시키고 학습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개발해준다.

- 이순형,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학교혁신과 학부모 참여”, 교육개혁포럼 발표(2003년 6월)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1.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등 학급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요약하여 알려준다.
2. 교사가 학급활동, 생활지도, 과제, 보충활동 등을 포함하여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을 알려준다.
3. 훈육방법을 포함하여 학생에 대한 기대를 교사가 어떻게 실행하려는 지에 대해 알려준다.
4.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5.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6.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활동이나 행사 등에 대해 알려 준다.

- 박병량(1997), 『학급경영』, 학지사, pp.351~352.

□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 학부모회의 내적 지위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적 구성
- 학교운영 정보 공개회 개최
- 학부모 성장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자체 평가 실시
- 「학부모의 밤」 매년 개최

라.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사례 - 교육과정 분야

<표 16> 학교구성원의 전면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 절차

[학교구성원의 전면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 절차]

1) 교육과정기획팀

교육과정기획팀은 교무부서와 연구부서를 중심으로 조직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기획팀은 교육과정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 학업 소양, 정서적 특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 교과흥미도 및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학생특성 및 학업준비도 판단 근거로 삼는다. 또한 교육과정기획팀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지자체 수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연수자료 제작 및 구성원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실시 후에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그들의 교육요구를 확인한다. 그리고 별도의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개별 주체의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각 주체들의 교육요구를 종합하여 학교교육과정(안)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안이 갖는 장단점을 분석한다.

2)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내 최고의 권위기구이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교사대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생 자치회 대표, 그리고 지역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기획팀이 분석·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학교의 교육목표를 명료화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원칙을 수립·제시한다. 그리고 각 구성원별(교사, 학생, 학부모) 요구를 종합하여 최적의 학교교육과정을 확정한 후, 결정의 배경을 각 구성원에게 설명한다.

3) 교과협의회

교과협의회에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이수시기, 수업시수의 증감폭 등을 검토한 후 교과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수업시수 증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학교교육의 목표, 학년단계별 목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 및 학습준비도, 학생·학부모의 교육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검토이후에는 교과교육과정안을 편성하여 교육과정기획팀에 제출하게 된다. 교과교육과정을 제출할 시에는 수업시수를 증감해야 할 근거, 증감에 따른 교수요목의 변경 내용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교육과정기획팀에서는 각 교과협의회로부터 교과교육과정안을 제출받은 후, 조합가능한 모형의 학교교육과정(안)을 작성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학부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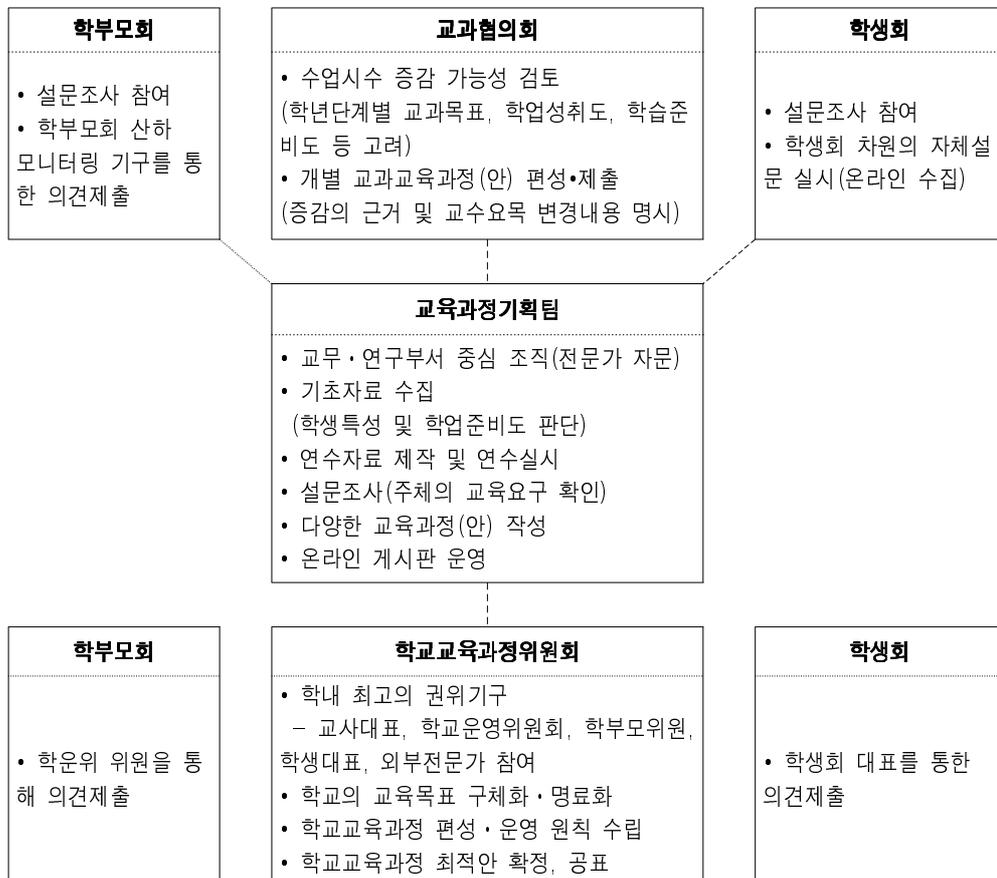
학부모회는 교육과정기획팀에서 제작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회 산하에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이우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지원위원회’가 활동 중임),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육과정기획팀에 제출한다. 그리고 개별 학부모의 경우에도 온라인 공간에 개설된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회

학생자치회도 교육과정기획팀에서 제작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다. 이와는 별도로 학생회 차원에서 수집한 수업만족도 자료를 교육과정기획팀에 제출할 수도 있다. 학생회는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나 교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각 단위기구들은 비선형적인 절차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협력하게 된다. 즉 각 단위기구들은 외형적으로 구분되지만 내적으로는 순환적 협력 네트워크(dynamic cooperation network)로 작동하는 것이다.



<p>학교교육과정 운영과정의 일상적 모니터링 시스템</p> <p>[학생회] - '수업운영계획서' 학기 초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만족도 평가 실시 (매학기 수업종료 직전) - '좋은 수업 만들기' 간담회 (매학기 중간고사 직후) <p>[학부모회] - '수업운영계획서' 학기 초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교과포럼」(매학기 2회)
--

<표 17> 단위학교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액션플랜

[단위학교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액션플랜]

- 교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 안건의 사전 공지 및 회의 결과 홈페이지 공개(회의록 공개)
 - 교사회를 통한 교직원의 직무규범 제정
 - 교사회 주최 학교운영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 학생자치 기구의 권한 확대
 - 학생자치회의 민주적 구성
 - 학생자치회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학교운영에 대한 청문권 부여
 - 포괄적인 학습권 및 자치권 보장

영역	구체적인 권리목록
학습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수업 만들기' 간담회 개최 요구권 · '수업운영계획서' 사전 열람권 · 수업 만족도 평가권 · 선택교과 개설 요구권 · '교과주간' 운영 요구 및 참여권
학생 자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행사 기획권 · 학생회 자율 구성권 ·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권 · 동아리 결성 및 지원 요구권 · 학생전용 게시판 운영권

-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시스템 개발
 - 학부모 성장을 위한 「학부모아카데미」 기획·운영

- 학부모 동아리 조직 및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 학부모회에 학교 운영에 대한 청문권 부여
- 「학부모의 밤」 개최 - 학교정보 공개

4. 학생 개인별 맞춤형 케어(care) 시스템 개발

가. 개인별 맞춤형 케어 시스템의 개념

- 미래형 학교는 삶을 총체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전담교육기관(total edu-care institute)이 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서비스(total educational service)체제를 마련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맞춤형 케어 시스템의 정당성이 있음.
- 맞춤형 케어란 개별 학생의 학습태도, 학습양식, 심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아 개념과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를 조력하는 것을 의미함.
- 맞춤형 케어 시스템은 학생의 학습복지 및 생활복지를 포괄하는 학교단위 복지프로그램의 총체를 말함.

나. 맞춤형 케어 시스템의 필요성

- 미래형 학교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여야 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학교여야 함.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정도,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학습양식에 맞는 개인별 케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이런 점에서 학습의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생활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케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학습동기, 학습인내력, 학습가치인식도 및 학습흥미도가 있어야 함. 이러한 학습준비태세를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적시 학습케어가 필요함.

□ 학생들이 학습 준비도를 갖추는데 있어서의 또 다른 전제조건은 심리적인 안정임. 따라서 교육복지의 핵심 영역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에 맞추어져야 함. 이런 점에서 학생들의 가정적 케어가 결핍된 학생들에게는 ‘후대응 복지’(reactive welfare) 형태를 탈피한 ‘선대응 복지’(proactive welfare)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⁹⁾

□ 정서박약 학생에게는 심리적 불안정성의 심화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 단계로 발전되기 이전에 심리적 안정감 회복 및 자기주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학생자신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케하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갈등(문제 사태)을 관계지향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갈등관리 프로그램’,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진단 및 자기에를 함양시켜주는 ‘예술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신뢰감·리더십 등을 향상시켜주는 ‘상담치료 프로그램’,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시켜주는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등이 고려될 수 있음.

다. 맞춤형 케어 시스템 개발 가능성

□ 학습케어(learning care) 시스템

- 학습일기(study planner) 활용을 통한 학습상담 활동 전면화. 학생들의 학습실패 요인 중에는 ‘학습하는 방법의 무지’, ‘시간관리 관념의 희박’, ‘환경 관리 습관의 미흡’ 등이 있음. 즉 학생들이 일상의 삶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 및 시간 통제력이 부족하고, 학습을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습에서 실패하는 것임. 이러한 일상적 습관의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스터디 플래너 활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학습형식에 따른 개별처치 실시. 고등학교의 경우

9) 이수광 외(2009), 「고한교육 재활력화 및 실행 방안 연구」, (사) 함께하는교육연구소, p.72.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학년별 교과 선택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며(Student Service Handbook),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에 의한 학사상담 또한 중요해짐. 따라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와의 학습상담을 통해 학생이 선호하는 학습형식에 따른 개별처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특별처치 프로그램이 필요함. 따라서 대학생 멘토링제 및 학부모 자원교사제를 활용한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학습하는 능력(learning ability) 함양 프로그램 운영함. ‘학습하는 능력’(learning ability)이란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 즉 준비능력을 의미함. 학생들이 학습부진과 실패로 고통 받는 경우는 대개 학습하는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점에서 학습하는 능력은 성장 동기 향상은 물론 배움의 즐거움 회복의 전제조건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능력’(learning ability)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동기 선진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학습케어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고교)

- 전단계 - 스터디플래너 사용, 학습효율성 검사
- 1단계 - 기초학습을 위한 차별화 전략 :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2단계 - 심화학습을 위한 차별화 전략 :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 속진학습을 위한 차별화 전략 : 학점제, AP 프로그램, 인문학

□ 생활케어(life care) 시스템

- 유아기와 아동기에 가정으로부터의 충분한 애정과 돌봄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정서적·심리적 장애 뿐 아니라, 학습부진 혹은 학습장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이 학생들은 학령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흥미를 잃고 자존감(자기효능감)을 상실하여, 매우 무기력하거나 일탈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음
-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심리 케어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함. 초등학교 중에도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임. 한 조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체 초등학생의 약 1/4이 심리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후적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치료 차원에서도 다양한 심리 케어적 접근이 필요함. 예컨대 <성격검사>, <진로검사>, <정서안정검사>, <자아성장을 위한 집단상담> 및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고려될만함.

[읽기자료]

취학아동 100명중 7명 심리치료 받아야, 정서불안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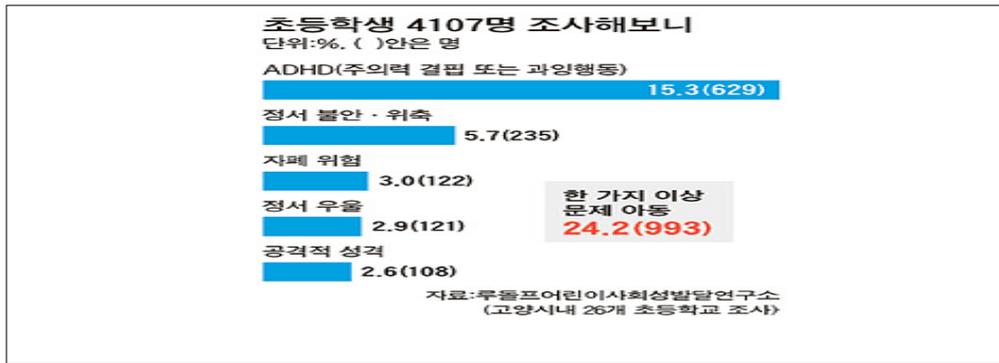
경기도 고양지역 초등학교 1학년 100명 가운데 7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양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루돌프어린이사회성발달연구소에 의뢰해 관내 28개 초등학교 1학년 5천8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3일 루돌프연구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4천155명 가운데 7.6%인 317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공격성 등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문제와 불안, 위축, 우울, 감정기복 등 내면적인 정서문제 등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루돌프연구소는 이들 317명 중 심리평가에 응한 120명을 대상으로 4개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ADHD(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장애) 42명, 자폐 스펙트럼 장애 36명, 지적장애(정신지체 또는 경계선 지능) 11명, 우울장애 35명, 불안장애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어린이의 경우 중복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루돌프연구소는 앞서 BASC-II, SRS, CBQ, ARS, ASSQ 등 5가지 정신건강 종합검진 도구를 사용, 심리평가 및 치료대상 아동을 선정했다. BASC-II에 의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과잉행동 62명, 공격성 61명, 비행 76명, 불안 63명, 우울 121명, 신체화 70명, 비전향성 166명, 위축 151명, 주의력 문제 580명 등이다. 또 학령기 아동의 ADHD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 행동평가 도구인 ARS 검진에서는 주의력 결핍 52명, 과잉행동 26명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핵가족화 등으로 어린이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등 가족 또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정서불안 학생이 많은 것 같다"며 "이들의 치료를 돕는 등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해 정신건강 종합검진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2009.3.2 연합뉴스.



□ 심리케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만함. 이 경우 학생 당사자들의 효과는 물론 교직원의 업무 부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문제는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임. 그러나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도 기획해 볼만함.

[생활케어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고교)

- 전단계 - 동아리 활동 활성화(동료치유 효과 유도)
- 1단계 - 성격검사, 진로검사, 집단상담, 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 2단계 - 상담치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갈등관리 프로그램
- 3단계 -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자기발견 프로그램
- 운영방법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조직

□ 방과후 학교의 질제고

- 학생 개별 맞춤형 케어를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학교급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방과후 학교 강사의 질, 교육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따라서 가정의 보육 및 교육기능의 약화 속에서 방과후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제고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 및 교육자원의 네트워크가 요구됨.

[복지강화형 학교 시스템(care system) 구축을 위한 액션플랜]

- 학습준비도 진단 및 개별처치 프로그램 운영
 - 학년단계에 적합한 학습준비도(태세) 진단 프로그램 운영
 - 학습준비도 진단 내용 학부모와 공유
 - 개별 학생에 적합한 처치 프로그램 운영

- study planner 활용을 통한 학습상담의 일상화·심층화
 - 플래너를 통한 학습상담 정례화
 - 학습 환경 통제 및 시간관리 능력 향상
 - 개별 학생의 학습곤란 정도 파악 및 학부모와 공유

- 대학생 멘토링제의 체계적 운영
 - 참여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연수
 - 멘토링 과정에 대한 컨설팅
 - 멘토링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 또래 튜터링제 운영
 - 또래들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형성
 - 학습을 매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협동의 정신

- '자기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 학습부진 학생 혹은 문제유발 가능학생 대상 운영

- 다분야 지원팀 (multi-disciplinary team) 조직·가동
 -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인력풀 구성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자원 중 상담·심리, 복지, 보건 및 행정 분야 인력으로 구성

5. 학교단위 교사 성장 프로그램 운영

가. 교사 성장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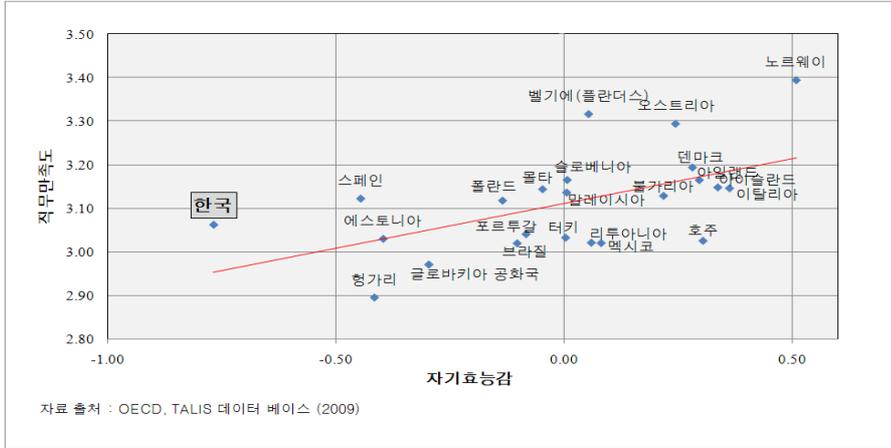
□ 교원은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교원에 대해 교직자로서의 전문성, 시민으로서의 자질, 생활인으로서의 태도 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원은 늘 ‘학습을 즐기는 존재’이어야 하며,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해 ‘삶을 나누는 존재’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민감한 ‘시대정신의 담지자’가 되어야 함.

□ 그러나 최근 교원들의 직무 정체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특히 교사들은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텍스트를 매개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범위로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런 요인은 학생, 학부모의 심리적 이반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함.

□ 현재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매우 낮은 상태임.¹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갖가지 제도적 처방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직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10) “한국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조사국 중에서 중간수준이다. 그러나 교사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은 조사국 중 최하위다. 이는 자기효능감을 묻는 질문, 즉 ‘나는 내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장 다루기 힘들고 동기가 부족한 학생도 지도할 수 있다.’, ‘나는 우리 학급의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나는 일반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가장 낮게 응답한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한-OECD국제 세미나-새천년 학습자 및 교원」 세미나 자료집, 2009.10.14, p.153)

<표 18> 한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됨.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인간의 성장 경로와 심리적 변화에 대한 안목,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식견, 교육활동의 의미를 구성해 낼 수 있는 사유능력, 그리고 자신의 담당 교과에 대한 탁월한 학문적 깊이가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레임의 성장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조직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 교사 성장 프로그램의 문제점

- 교사 개인의 ‘개별적 우수성’ 경쟁 방식의 성장 프로그램
 - 개별화된 교과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룸
 - 교직 사회의 ‘집합적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의 미흡
- 교수-학습의 전문가 양성 차원의 성장 프로그램
 - 텍스트 전달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 새로운 개념의 복지·돌봄 기능 함양 연수 미흡

- 근거이론을 양산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특정사례 추적 중심의 성장 프로그램
 - 교사들이 근무조건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는 방식의 연수이기 보다는 특정 모델 따라 하기 방식의 프로그램 중심¹¹⁾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역량 전승이 미흡한 대증요법적 연수 프로그램
 - 단위학교에서 선진교사와 후진 교사가 교학상장 분위기 부족
 -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교내 연수 프로그램

다. 단위학교에서의 교사 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상상력

- 교직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 교사 스스로 자신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교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교사회의 교학상장 분위기를 진작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필요함
 - 미래의 교사상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워크숍도 상상해 볼 수 있음

11) “OECD가 2007-2008년간 실시한 「교수·학습에 관한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보고를 보면, 한국 교사들의 연간 자기역량개발 일수는 무려 TALIS 조사국 보다 2배 많은 30일이다(방학의 일부가 역량개발일수에 잡힌 탓이다). 그런데 역량개발의 포맷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 교사들은 동료관찰이나 타 학교 참관이 TALIS 조사국의 2.5배에 이른다. 무려 70%의 교사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역량을 개발한다. 이에 비해 TALIS 조사국 교사들의 역량개발 포맷의 1순위가 ‘전문서적 읽고 연구하기’이다. 한국 교사들이 ‘따라 배우기’,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면 다른 조사국 교사들은 전문서적을 읽고 이를 자기화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한-OECD국제 세미나 -세천년 학습자 및 교원」 세미나 자료집, 2009.10.14)

[미국사회에서의 좋은 교사상]

- 1)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기대치가 높은 교사
- 2)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강의록을 작성하는 교사
- 3) 교실에 일찍 도착하여 학생을 기다리는 교사
- 4) 문제를 사실(fact)에서 출발하여 사실이 마지막이 되지 않는 교사, 사실로부터 추론을 자극하는 교사
- 5)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교사
- 6) 전공과목에 자신이 있는 교사
- 7) 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교사

□ ‘협력적 교사역량’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미래 사회에서는 ‘학습공동체’로서의 학교 역할이 중시됨
- 교사들은 이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기존의 독립적이고 고립적이었던 교사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협력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는 교직문화 필요
- 수업을 매개로 한 연구 및 토론(수업연구회)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

□ 미래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Multi-Function Organization) 역량 신장 프로그램

- 미래의 학교는 전통적인 기능인 교수-학습활동 뿐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 학교가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돌보는 total caring system으로 변화되고 있음
- 따라서 돌봄(caring) 과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학교단위의 HRM 연수를 조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돌보는 관계’는 성공적인 교육적 활동(pedagogical activity)의 토대를 제공한다. 첫 번째, 우리는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런 지속적인 돌봄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는 학생들이 우리가 가르치려 하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들은 우리의 노력을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관계의 성실성에서 기인한 협조적인 노력이라고 볼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학생들을 대화에 끌어들이므로써 그들의 요구, 학습 습관, 흥미, 재능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학생 개인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지식을 얻고 표준화된 커리큘럼 이상의 것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무 된다.¹²⁾

□ 교과협의회의 활성화 및 연구 단위로의 전환

- 교과협의회를 전문적인 연구 단위로 전환하고 논문 생산
- 대학 및 전문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성
- 연구모임에 연구비 지급

□ 교사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활동 지원

- 교사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일정한 활동비 지원

12) Nodding, N.(2005), “교육에서의 돌봄”, 『돌봄과 배움의 작은 학교 만들기』 제5회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심포지엄 자료집.

[읽기자료]

학교교육력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중 하나는 교사의 전문 역량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의 전문 역량이란 교과에 대한 지식이나 행정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교사의 전문역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는 말인가? 우선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존재의 성장단계에 대한 존재론적·심리적 안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안목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연속적인 고민을 동반하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이 주제는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과제인 셈이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이를 개별 학생들이 자기의미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 역시 입직전의 텍스트 학습으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교직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특정직’인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교사들의 성장을 위한 자체 교직사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개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주종은 교수·학습에 필요한 기술·기법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주장들에게 대해 교사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방식이 특정 수업의 내용만큼 중요하다. 과정은 학습에서 중요하다. 실내 수업은 학생들이 아무런 역설도 못 느낀 채 ‘현실세계’라고 부르는 것과 단절된, 사방이 둘러싸인 벽 안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빚어낸다. 생물학 수업 시간의 개구리 해부는 예의 바른 학우 중 어느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을 자연에 관한 교훈을 가르친다. 학교 건축물은 수동성, 독백, 지배, 인위성을 강화하곤 하는 교수법을 응축한 것이다. 내 요지는 단순하다. 뻔한 수업 내용을 넘어서 다양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13)

이에 더하여 교사가 바람직한 ‘노동철학’을 갖고, 성공적인 교사상에 대한 자기중심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사와 학생 존재의 관계, 배움의 본질, 교육관과 교육현상의 의미, 교육정책의 변화와 단위학교의 대응전략, 학교운영의 원리와 모순 등에 대한 주제 워크숍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철학적·법률적 이해, 해외 교육사례 분석, 개별 교과의 연구동향 파악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13) 데이비드 W. 오어(이한음 역), 『학교를 잃은 사회, 사회를 잇은 학교』 현실문화, 2009, p.36.

[참고자료]

교사워크숍 자료

1. 교사 자기평가를 위한 성찰적 질문 항목

-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 내가 수행하는 교육 활동은(가르치는 교육내용은) 나에게 도전적인가?
- 내가 수행하는 교육 활동은(가르치는 교육내용은) 나에게 흥미로운가?
- 내 주변의 동료 교사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
- 내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감수하여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 과거에 내가 지양하였던 일 가운데 의미 있게 기억되는 일은 무엇인가?
- 과거에 내가 좌절한 경험 가운데 의미 있게 남아있는 일은 무엇인가?
- 지금 내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이 학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2. 다음의 열 개 문장을 완성해 보자. 그리고 열 문장 가운데 버릴 수 있는 것 다섯 문장을 지운다. 남은 다섯 문장 중 다시 세 문장을 지운다. 최후의 두 문장 가운데 한 가지만을 남긴다. 마지막까지 남은 남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 이유는 무엇인지 기록해 보자.

- 나는 _____ 하는 교사다

나는 _____ 하는 교사다

3. 교사로서 자신의 장단점을 점검해보기

- 교사로서 나의 장점
- 교사로서 나의 단점

4.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 학교의 장·단점을 점검해보기

- 우리학교의 장점
- 우리학교의 단점

5. 교사로서 자신의 꿈 범주화하기¹⁴⁾

범 주 1

범 주 2

범 주 3

범 주 4

범 주 5

범 주 6

14) 교사의 꿈 범주화 하기는 교사의 '자기기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교과 교사로서의 꿈, 연구자로서의 꿈, 상담가로서의 기대, 업무담당자로서의 꿈, 시민으로서의 꿈, 배우는 학생 존재로서의 꿈을 통해 자신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19> 교사 성장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액션플랜

[교사 성장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액션플랜]

- '교직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사 워크숍 운영
 - 배움·돌봄·복지 담당자로서의 자긍심 함양 프로그램 운영
 - 교사회 차원에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성찰 및 꿈 나눔 프로그램)
 - 교사조직을 업무조직에서 우정과 환대의 삶의 조직으로 전환

- 수업 공개를 매개로 한 '수업연구회'의 일상화
 - 동료 교사 간 수업공개
 - 공개된 수업에 대한 동료 컨설팅의 정례화(수업연구회)
 - 수업연구회 자료집 발간

- 다기능(MFO) 역량 신장을 위한 학교단위 HRM 연수 실시
 - 교수·학습, 상담, 돌봄(caring)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연수
 -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연수로 확대 가능
 - 연수 자료집의 일반화

- 교과협의회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
 - 평가계획 수립, 평가도구 개발, 교과목 개설 여부는 동교과 협의회에서 결정
 - 동교과 협의회의 학습·연구 조직화(연구비 지원)

- 교사 동아리 활성화
 - 교사 취미 및 학습동아리 지원
 - 학교간 교사연합 및 학부모 참여 동아리 운영
 - 동아리 활동 자료집 발간(대중서로 출간)

-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운영(학교연합 프로그램)
 - 교육행정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수업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심리상담 및 학습상담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

V. 미래형 학교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 방향

1. 교육과정의 다양화 · 특성화, 창의적 평가체제 구축
2. 체계적인 학력 신장 방안
3. 기초 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
4. 신개념의 교원 전문성 신장
5. 미래형 학교 거버넌스 구축
6. 학생 감소에 따른 기피학교 재구조화

V. 미래형 학교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 방향

단위학교가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단위학교 차원의 전환과제 설정 및 연차록화 전략 채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위학교가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은 ‘체제내적 자율성’이다. 국가정책이나 시·도 교육청의 시책 범주를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단위학교 혁신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 보면, 장차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과생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서 밝힌 단위학교의 전환 과제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청의 정책 방향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즉 감독청과 단위학교간 정책 내적 일관성 및 정책 간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단위학교 액션 플랜을 포섭할 수 있고,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체제도 공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창의적 평가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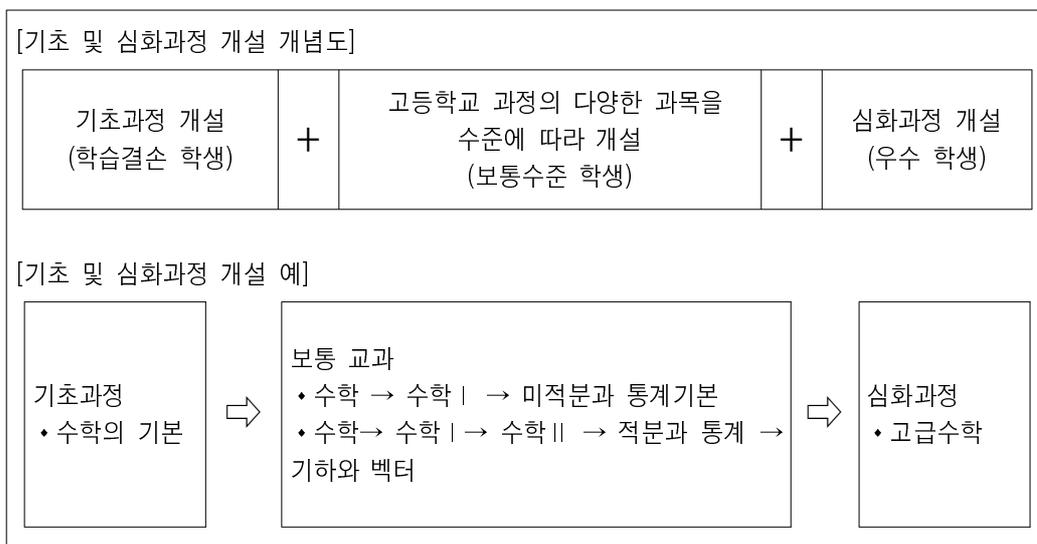
(1)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 구현

가. 실 태

□ 2010년 현 시점은 교육과정 프레임의 전환시기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적용되는 혼돈의 시기임. 따라서 교육청과 단위 학교 간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해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단위제 운영에서 벗어나 학점제 학교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전환은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직원 수급, 물적 조건, 학사운영 방식, 성취기준의 설정 및 미달학생 지도, 단위학교의 책무성 범위의 재설정 등 많은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또한 교과교실제와 연계된 일반계고교의 기초 및 심화과정 개설, 선택과목 확대 조치로 인해 다양한 트랙의 교육과정이 개설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학교간의 교육과정 특성화 경쟁이 가속화될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



□ 이상의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해설집 발간 및 다양한 연수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단위 학교의 체계적인 개편 노력은 부족함. 오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따른 단위 학교 교육과정 디자인 능력의 한계를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최근 ‘고교 교육력 제고’의 일환으로 교과부에 의해 추진 중인 ‘학점제’, ‘고등학교 심화과정(UP)’ 등에 대한 교육청 내부의 정보 공유 및 논의구조가 부족함. 이는 본격

적인 제도 도입 시 ‘또 다른 정책’이 Top-down 방식으로 추가되어, 교육청의 업무 분장으로 배속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단위 학교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전시성 공모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음.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 자율화’, ‘공교육 내실화’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한 ‘능동적 예측’과 ‘창조적 적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나. 성과와 한계

□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 연수, 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함. 이를 통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부 성공적인 모델 가능성을 확인함.

□ 교육특기자 육성고 사업, 교육과정 특성화고 운영, 교육과정 실천연구대회 등을 통해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특성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수월성 교육 강화, 교육과정 편성 우수 사례의 보급 및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함. 단위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개정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의 보급, 단위 학교 교육과정 디자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의 보완(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와 인사 시스템의 연계), 지역 교육청의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의 역할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함.

□ 교육과정 자율화·특성화 관련한 교과부의 다양한 정책을 종합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조정팀의 구성과 운영이 요구됨. 현재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는 수준에서는 개별 업무간의 중복 및 충돌을 피할 수 없고, 개별 업무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특히 최근 교과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기존의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확대, 방과후 학교, 진로(진

학)지도 업무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 대안

□ 방향

- 학교교육과정의 미래적합성 담보
 -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재구성(교과통합 및 체험활동 강화)
 -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 감수성 제고
 - ‘미래 세대 삶의 설계’로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고품질화 촉진
 - 과목 이수 시기 및 이수 단위의 자율 결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제고
 - 교과교육 내용 및 학습부담 적정화를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의 등의 탄력적 운영
 - ‘뒤쳐지는 학생은 잘하게,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하는 학교단위 학습케어시스템의 구축

- 학습자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특성화 추진
 -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목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시수 증감 결정
 -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선택에 따른 다양한 과정 개설(고교)

- 학교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 확보
 - 교육청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기능 강화. 컨설팅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전문화
 - 단위학교 특성화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내용

가치 감수성 심화 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규교육과정의 질적 심화를 위한 교과별 정책 마련, 교과별 재구성 방안, 교과별 통합방안, 창의적 체험활동 특성화 방안, 초등단계 무학년제 운영방안, 학생특성에 따른 보충·심화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또한 특정교과 심화교육 및 진로교육 특성화를 위한 대학과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체제 구축이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삶과 삶의 결합을 강조하는 창의적·협력적 교수·학습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실행 과제

■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혁신

- 학교 실정에 맞게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 -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 교과별 통합 - 창의적 통합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교과와 체험활동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초등) 소규모, 소인수 학교에서의 교과 무학년제 제한적인 운영

[정책아이디어]

- ▶ 「통합교과 운영 모형 연구학교」 지정 및 연구결과 일반화(초·중등 공통)
- ▶ 「교과·체험활동 연계 모형 연구학교」 지정 및 연구결과 일반화(초·중등 공통)
- ▶ 「소규모학교 무학년제 운영 연구학교」 지정 및 연구결과 확산(초등교육과)
- ▶ 학교평가 준거 개발을 통한 단위학교 교과교육과정 혁신 유인(학교정책과)

■ 「창의적 체험활동」 고품질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제고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기획력 신장
-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의 지역성 강화

[정책아이디어]

-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초·중등 공통)
 - 학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 방안 상세화
- ▶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지도(resource map)」 제작·보급 및 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별, 영역별, 지역별 교육 자원 상세 안내
-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결과 공개 의무화」(학교평가 준거에 반영)
 - 학교별 홈페이지에 기획, 운영과정 및 결과 공개

■ 창의적·협력적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확산

- 집합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 신장을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 개발
- 교과통합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협력적 교수·학습모델 필요

[정책아이디어]

- ▶ 「창의적 교수·학습모델 연구학교」 지정 및 연구결과 일반화
- ▶ 교육청 차원에서 「창의교사」 선발 및 선도 사례 보급(학생, 학부모, 교사 추천)

■ 가치교육 내실화를 위한 브랜드화 전략 추진

-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치교육의 내실화 필요
- 가치교육 브랜드화를 위한 교재 개발 및 편성 의무화 추진 고려(초·중·고)

[정책아이디어]

- ▶ 「가치교육 교과목의 경기도교육청 지정 과목화 방안 연구」 추진
 - ‘창의적 체험활동’ 및 ‘선택교과’ (중고)에 편성 의무화 방안 탐색
- ▶ 학계 및 교육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치교육강화위원회> 구성 및 교재 개발
 - 중학교 단계 - (가칭) 「나와 미래가치」 교재 개발
 - 고등학교 단계 - (가칭) 「나와 미래가치」 교재 개발

■ 학점제 운영 모델의 개발·확산 및 전제조건 확보 사업(고교)

- 교과부 차원에서 2010년 하반기 60개 고교에 학점제 시범 사업 실시
- 2014년 학점제 전면 실시
- 2011년부터 학점제 정착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책아이디어]

- ▶ 학교유형별, 학점제 유형별 연구학교 지정 및 전면화 조건 탐색
 - 도시 대규모 학교형, 중규모 학교형, 농산어촌형, 남녀공학형 연구학교 운영
 - 학점제 유형별 연구학교 운영

유형	적용 방안
전체 적용 모형	전 교과에 대한 무학년제 적용
수준별 적용 모형	위계가 뚜렷한 교과(영어·수학 등)에 적용
선택권 확대 모형	영역으로 구분된 교과(사회·과학·예체능)에 적용

- 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 사업 추진
 - ▶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양성 학교」 개설·운영
 - ▶ 「고등학교 계절학기제 운영 방안 연구」 사업 추진
 - 학점 미이수 학생 관리 및 심화 과목 개설 가능성 방안 연구
 - ▶ 「학교간 학점교환제 운영 방안 연구」 사업 추진
 - 학생의 흥미와 특기·적성에 따라 타 학교 강좌 수강 가능 방안 연구
 - ▶ 「선택과목 개발 공모 사업」 실시
 -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과목 연구팀 공모 및 개발교과 교과서화 추진

■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연계 교육과정 운영체제 구축

- 대학과 연계한 특정 교과 특성화 사업 추진 필요
- 학습 진도가 빠른 학생에게 심화 학습기회 제공

[정책아이디어]

- ▶ AP(Advanced Placement) 제도 확대
 - AP 과목은 대학과의 학점인정 협약을 통하여 개설함
- ▶ UP(Universal placement-대학과목 선이수제) 제도 확대
 - 경기도 소재 대학과의 UP 개설 협약 확대

■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서비스 강화

□ 단위학교는 학부모의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 요람(要覽)작성 및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정책아이디어]

- ▶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의무화
 - 학교평가시 설명회 실시여부에 높은 배점 부여
 -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토요일 및 평일 야간에 개최
 - 학교교육계획 및 각 교과별 교수학습계획 및 평가계획 상세 공개
 - 설명회 자료 홈페이지 탑재
-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단위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추동을 위한 지원 사업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정책아이디어]

- ▶ 「학교교육과정팀」 구성·운영
 - 단위학교 컨설팅 및 혁신사례 확산(혁신학교추진위 연계)
- ▶ 단위학교의 지속가능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순환 근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인사트랙 확대
- ▶ 단일 업무조직에서 교육과정 업무 통합 추진

(2) 창의적 평가체제 도입

가. 실 태

□ 중·고등학교의 경우 2005년부터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문항 출제 확대,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음

- 제한적인 범위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항 출제
-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항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문제 제기 가능성 때문에 창의적인 문제 출제 기피

- 정기고사에서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 출제가 많이 이루어짐
 - 평가의 신뢰성, 채점의 편의성 등으로 선택형 평가 문항 선호
 - 고사시간(50분 이내), 채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답형, 완성형을 일부 출제
 - 학생들은 단편적인 지식 암기에 치중하게 되어 입시위주·점수위주 교육 강화

- 교사 평가 문화의 관행화
 - 학생의 성장경로에 관한 기록 및 학부모 제공 정보 미흡
 - 창의적 평가 문항 개발 연수 미흡
 - NEIS상에 학생들의 창의성 및 잠재력 관련 기록 미흡

나. 성과와 한계

- 양적평가 중심의 평가문화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
 - 객관식, 단답형, 일제형의 양적 평가로 인해 사교육의 의존성 강화

- 단선적인 평가체제로 인해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특성화 미흡
 - 학교간 차이가 없는 균질화된 교육과정 운영
 - 교과간 통합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의 실험성 부족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부적
 -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다양한 체험실적 쌓기를 위해 사교육 의존

- 교과 적합성이 부족한 수행평가로 인한 학생·학부모 불만 가중
 - 수업태도나 준비물 점검과 같은 수행평가 만연
 - 학생의 다양한 사고 형식을 고려한 평가척도 부재

다. 정책 대안

□ 방 향

- 창의성 계발을 위한 새로운 평가문화 기반 조성
- 평가방법 변화를 통한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전환 유도
- 적극적인 질적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신장
- 학생들을 ‘문제를 푸는 존재’(problem solver)가 아니라 ‘문제를 찾는 존재(problem seeker)’로 육성

□ 내 용

- 창의적 평가방법 도입으로 교수·학습문화의 전면적 변화 유도
 - 정기고사에서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보다 학생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서술형 평가 도입 및 반영 비율 확대
 -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실험·관찰보고서 등 교과특성에 적합하게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활성화
 - 협력적 교수·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모듈별 장기 프로젝트 수행평가 도입

□ 실행 과제

- 창의적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TFT 구성
 - 질적 평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평가문화 개선 계획 수립
 -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 실시
- 창의적 평가체제 현장 착근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
 - 논술 및 프로젝트형 수행평가 비율 확대
-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학교별 통지표 개발 추진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상담 자료로 활용
 -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학생이해 자료로 활용

- 교원 평가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창의적 평가 문항 개발 및 교수·학습방식의 혁신에 관한 연수 확대

- 학교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조직 운영
 -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교수·학습협의회」를 조직하여 평가관련 쟁점 처리
 -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수·학습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평가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평가에 평가 개선 실적 반영
 - 평가준거 개발(정기고사 서술형 평가 문항의 반영 비율, 평가 관련 연수 실적, 평가 문화 조성 노력 등)

2. 체계적인 학력 신장 방안

가. 실 태

-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한계
 - 학생의 개별적 수준이나 학습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제식 수업
 -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으로 학생 중심의 활동적·창의적 수업이 실현되지 않음.

- 입시 위주 교육과정과 사교육의 확대
 - 주입식 암기 위주의 수업은 학생들의 자율적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진정한 학업성취(Authentic Achievement)의 실현을 어렵게 함.
 - 또한 선행학습과 반복적 문제풀이 연습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에 비해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져,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수요 확대의 악순환이 형성됨.

- 학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수업’과 ‘방과 후 교실’의 확대
 -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학력 신장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준별 수업과 방과 후 교실 등이 확대됨.
 - 전국학력평가 및 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 등에 의해 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과 학교간 경쟁이 강조되는 조건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나. 성과와 한계

- 학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수업, 방과 후 보충수업,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

교사업 등이 전국 단위 학력 평가에서 일정한 성과를 나타냄. 학력평가에서 많은 학교들이 방과 후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력 향상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정규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인수 학급을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하지만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의 혁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지 못함.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학부모의 부담을 국가가 부담한 결과 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결국 정규 수업의 내실화,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의 개선 등 학교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체계적인 학력신장을 추진해야 함. 또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일체고사) 등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등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다. 정책 대안

- 방향
 -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수업을 극복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수 방법의 실현
 - 창의적 교수 학습에 적합한 평가 체제의 혁신
 - 단기적인 학력평가대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난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 교과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학점제, 무학년제) 및 입학사정관제에 적합한 고교 교육의 수월성 확대

□ 내용

■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

- 방과 후 교실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학력 신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
- 학생 중심의 탐구-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 및 성공적인 운영 사례 보급
-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평가,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강화, 서술형 평가 확대 등 창의적 교수학습에 적합한 평가 체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매뉴얼 보급
-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보충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별 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사로서의 사명감, 자발성, 헌신성을 높이고, 미래형 학교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신개념의 교사 연수(New Teacher Training)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수학습 중심의 교사 조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교원업무경감, 교사 연수의 확대와 다양화, 자발적인 교사연구회 지원, 수업 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원 인사제도 개선 등)
-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통한 우수 교원 집중 연수 실시

■ 학생 특성에 적합한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초등 전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학습능력 및 학습효율성 검사 실시
- 개별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지속적인 학습 상담 및 맞춤형 학습 지원, 학생별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학생·학부모·담임교사 등 교육 3주체의 협약에 의한 학습 목표 설정 및 피드

백 시스템 개발 및 운영 ('3주체 협약 학교' 시범사업 실시)

■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한 학습지원 체계 확립

- 「대학생 멘토링 시스템」의 확대 및 보완
 - 경기도 내 대학과의 협약 체결, 경기도 거주 대학생의 선발을 통한 대학생 멘토 확대 (대학생 봉사 학점 인정 및 경기도 교육청의 인증서 수여)
 - 대학생 멘토의 사전 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교수 능력 배양
 - 대학생 멘토와 학생의 상호 선택에 의한 소규모 스터디 그룹 구성 및 운영
-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확대
 - 사이버 가정 학습 「다높이 2.0」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 활용
 -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사이버 학습을 지원하는 '사이버 학습상담 교사제' 운영
- 저소득 위기 가정의 학생을 위한 사회·문화적 체험 활동 지원
 -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문화적 열등감 해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예술·문화 체험 확대
 - 학교(교육청)와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 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 입학사정관제, 학점제 등에 적합한 고교 교육의 수월성 확대

- 경기도 내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대학과목 선이수제도(University-Level Program)'의 체계적 운영
-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역 교육청의 학습 지원센터 기능 강화(1개 지역교육청 시범 운영)
-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른 개인 연구(Individual Research), 직업체험교과(인턴십) 운영을 위한 지역 교육청차원의 전문가 지원단 운영
- 「고등학교 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 설치·운영

3. 기초 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

가. 실 태

□ 2009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전국 대비)

(단위: 성취수준 비율(%))

구 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경기도 전국순위
초6	전국 평균	82.5	1.6	○ 보통학력 이상 :15위 ○ 기초학력 미달 :15위
	경기도 평균	79.2	2.1	
	전국 대비차	-3.3 (↓)	0.5 (↓)	
중3	전국 평균	63.7	7.2	○ 보통학력 이상 :14위 ○ 기초학력 미달 :13위
	경기도 평균	61.9	7.8	
	전국 대비차	-1.8 (↓)	0.6 (↓)	
고1	전국 평균	63.0	5.9	○ 보통학력 이상 :15위 ○ 기초학력 미달 :15위
	경기도 평균	59.3	7.5	
	전국 대비차	-3.7 (↓)	1.6 (↓)	

※↓은 전국 평균보다 기초학력이 낮음을 나타냄

□ 2009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전년도 대비)

(단위: 성취수준 비율(%))

구 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비고
초6	2008년 경기도 평균	77.3	2.5	
	2009년 경기도 평균	79.2	2.1	
	전년도 대비차	1.9 (↑)	-0.4 (↑)	
중3	2008년 경기도 평균	54.7	12.0	
	2009년 경기도 평균	61.9	7.8	
	전년도 대비차	7.2 (↑)	-4.2 (↑)	
고1	2008년 경기도 평균	53.4	11.4	
	2009년 경기도 평균	59.3	7.5	
	전년도 대비차	5.9 (↑)	-3.9 (↑)	

※↑은 전년도 평균보다 기초학력이 높음을 나타냄

□ 기초학력 미달 요인 분석

■ 학교 환경 요인

- 학교 규모와 기초 학력 미달 비율 :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의 규모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과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 가정 조력이 미흡하거나 교통 여건이 불리한 지역,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생의 전출입이 많은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 요인

- 신규 및 저 경력 교사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신규 및 저 경력 교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의 업무 부담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 : 교사의 업무 부담이 높을 경우 학습지도 시간 부족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요인

- 저소득층 가정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비율이 높을 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특성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 :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낮고 학부모의 관심을 적게 받은 학생일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성과와 한계

□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한 교과부,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과밀학급과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다 등은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교과서의 기초 개념과 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기존적인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정서적 치유, 학습동기 신장, 학습 태도 및 학습방법에 대한 지원이 요청됨.
-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의 경우,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임.
-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습결손의 누적으로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도가 어려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

다. 정책 대안

- 방향
 - 모든 학생에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의 바탕이 되는 기초학력은 보장되어야 함.
 - 학습의 결손과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조기에 원인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해야 함.
 -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학교의 가장 중요한 책무성으로 인식하고, 학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 학력 미달 해소의 책임을 학교 관리자와 담임에게 일차적으로 부여하고, 모든 학교공동체가 책임을 공유하도록 해야 함.
- 내용
 - 기초학력 미달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 조기 완성
 - 기초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일차적으로’ 완성되어야 함.
 - 기초학력 과제목록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정규교과시간에 기초학력이 완성되도록 해야 함.

- 초등학교 1~3학년 담임은 기초학력에 대한 책무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학적인 진단과 맞춤형 처방 시스템 구축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에 진급하는 경우, 학급 담임 외에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함.

- 기초 학력 미달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규명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함. 담임교사의 교과 지도 외에 외부 전문가와 연계된 심리 치유,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

■ 지원·관리 체제 재구조화

-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가칭)기초학력향상지원단」을 조직하여, 기초 학력 미달의 원인 분석, 맞춤형 학습지도, 심리 치유,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은 지도 위주, 실적 위주의 행정보다는 단위 학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개별 사례를 평가하고 컨설팅 하는 지원 중심의 행정 체계 운영이 필요함.

- 학력 미달 학생들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초 학력 보장과 관련한 학교장, 담당 교사의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해야 함.

■ 단위학교 교원의 기초학력 관련 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초등학교 교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기초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초학력 진단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과정 연수 의무화, 다양한 학습부진요인에 대한 심화과정 연수 개설 및 운영 등

- 기초학력부진 해소를 위해 헌신한 교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초 학력 부진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표창, 성과 상여금, 승진 가산점, 해외 연수시 우선 선정 등 적극적인 유인책 및 동기 유발

- 기초 학력 해소에 대한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관련 정보를 ‘학교연차보고서’에 명시하고 매년 운영 프로그램과 변화도 및 향상도를 공개하도록 함.
-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선천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학부모의 무관심 및 문화적 혜택의 결핍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학부모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실행 계획

- 학교 및 지역교육청 단위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한 운영 모델 정립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시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4. 신개념의 교원 전문성 신장

(1) 학교혁신을 위한 장학아카데미 운영

가. 실 태

-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선택형 장학전문과정의 개설·운영 필요
 - 현재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학교 장학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진단, 처방, 환류하는 전문성의 측면에서 부족함을 나타냄.
 - 장학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 교육과정과 수업, 생활지도 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장학이어야 함
 - 교사의 능력, 관심, 수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선택형 장학아카데미가 요구됨.

- 학교에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 인력의 부족
 - 수석교사제 시행으로 수석교사의 역할을 수업장학에 두어야 함
 -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제 미흡
 - 교내자율장학의 타율화 및 형식화로 새로운 형태의 장학지원이 요구됨

- 직급별·능력별 장학 역량 강화가 요구됨
 - 장학 대상에 따라 장학 방법, 내용, 수준, 집단 조직, 장소 등의 다양화 전문화가 미흡한 실정임
 - 직급별, 능력별 장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로 전문적 장학 풍토 조성
 - 장학 연수 프로그램의 단계별 적용 및 연수 이수 학점화 방안 모색

나. 성과와 한계

- 「경기장학 아카데미」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 장학 요원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비체계적이고 현실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음

- 「경기장학 아카데미」 운영 지원팀 조직 운영
 - 경기장학 아카데미 운영 지원팀의 형식적이며 비전문적인 인적 구성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장학아카데미와의 연계체제 미흡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환류작업으로 장학아카데미가 요구됨
 - 교원능력개발평가 후 체계적인 장학지원으로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함

- 교육과정과 수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는데 어려움
 - 장학담당자의 장학 기획 및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교실 수업의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장학 역량 강화

- 지속적인 「경기장학 아카데미」를 운영할 행정적 기반 미흡
 - 경기장학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팀 제공 미흡
 - 단시제적인 업무 추진으로 본질적인 장학의 의미를 구현하는데 한계

다. 정책 대안

- 방향
 - 교내자율장학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둠
 - 단위학교내의 자율장학 활성화(자기장학, 동료장학, 요청장학, 임상장학)
 -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육과정 및 수업의 변화에 중점을 둔 장학프로그램 제공

-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전문적인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둔 장학프로그램 개발 운영
- 수업과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는 장학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장학담당자의 장학 전문성 제고

- 학교별 장학담당자의 장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참여제 운영
- 수업컨설팅 및 신규교사의 멘토로서 수석교사를 활용하여 장학의 전문성 제고
- 지역교육청 장학사의 수업장학 컨설팅 역할 확대로 장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행함

□ 내용

- 교내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수업의 전문적 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정책 마련
- 장학담당자의 장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지원체제 방안 모색
- 관리자, 보직교사, 교사, 전문직별 장학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 방안 모색
- 지역교육청 수업장학 컨설팅 역할 제고를 위한 직제개편 및 재구조화

□ 실행 과제

- 교내자율장학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팀 조직 운영
 - 교내자율장학 기획 컨설팅으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장학 활성화
 - 교내자율장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적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및 수업에 중심을 장학지원체제 구축
 - 장학담당자의 교육과정 및 수업의 전문적 역량 제고 방안 모색
 - 교육과정 및 수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직급별, 능력별 장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장학담당자의 전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행정조직 재구조화
 - 수석교사의 지위 및 역할 제고를 위한 학교 내 교육조직체제 재구조화
 - 지역교육청의 수업장학 컨설팅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행정조직 재구조화
 - 경기 장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연수지원체제 구축 강화

- 「경기장학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교 경영 및 수업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과정 개발 운영
 - 보직교사의 리더십, 학교교육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개발 운영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선택형 장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내자율장학 및 수업장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장학담당자의 리더십 발휘를 위한 장학프로그램 개발 운영

(2) 교원 자율성 · 책무성 강화형 인사제도 혁신

가. 실 태

- 관리능력이 탁월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응모자격 및 임용절차가 넓게 열려있지 않은 현실임
 -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 학교단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장임용 정책의 미흡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대상의 교장공모제 축소
 -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 확대
 - 공개모집 등을 통해 능력 있는 교원이 임용되도록 교장의 임용방법 다양화

- 지역 · 학교단위의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인사의 자율성 제고

- 담임배정, 업무분장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인사매뉴얼 개발 보급 미흡
 - 지역교육청 인사시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미흡
 - 학교장의 요청에 의한 초빙교사의 확대 실시(학교별 40%로 확대)
- 직급별, 능력별 공모제 활성화 추진
-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학교장의 공모 추천 대상자의 제한 조건으로 본래의 취지 퇴색
 - 수석교사, 초빙교사의 역할 및 지위의 제고로 전문적 능력 향상 교육체제 미흡

나. 성과와 한계

- 직급별 열린 인사시스템 구축의 미흡
- 학교 내 능력 있는 교사로 하여 학교의 특색을 발현시킬 수 있는 풍토 조성
 - 교육장, 장학관, 학교장의 공모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적용으로 관리자 임용 방식의 다양화 추진
- 학교단위 인사제도의 관료화로 일방적인 학교운영체제 구축
- 학교 내 인사자문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신뢰성이 낮음
 -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학교 간 교사들의 불만 요소로 작용
- 수석교사 및 초빙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저하
- 수석교사와 성과급 제도를 비교해 보면 수석교사가 성과급이 낮게 되어 있음
 - 초빙교사의 소질 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
 -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미흡

다. 정책 대안

□ 방 향

- 직급별 여러 줄 세우기 인사시스템 구축 운영
- 교육장, 장학관, 학교장 공모 제한 완화 및 다양화 추진
- 학교단위 인사시스템 재구조화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수석교사 및 초빙교사의 역할 제고 및 우대책 마련

□ 내 용

- 직급별 인사제도의 다양화로 학교교육 신뢰성 및 민주성 확보
- 수요자 요구 중심의 인사시스템 재구조화로 인사만족도 제고
- 학교단위 인사 매뉴얼 개발 보급으로 민주적인 학교운영 풍토 조성
-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의 임용 방식의 다양화 및 공모 추천제의 비율 확대
- 도농 간, 학교 간 교육환경 및 근무여건을 감안한 초빙교원제도의 활성화
- 초·중학교 교사의 초빙은 관내 내신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초빙의 범위를 확대

□ 실행 과제

- 직급별 인사제도 다양화를 위한 T/F팀 구성
 - 직급별 인사제도 다양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 인사제도의 다양화를 위한 공청회 실시

- 학교 내 「인사자문위원회」를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
 - 학교 간 인사평준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

- 공모 및 초빙 교원의 비율 확대
 - 도농 간, 학교 간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자원교사 우선 임용 우대
 - 공모학교장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도 시군 간 초빙 범위 확대

- 교육장 및 장학관, 장학사의 임용 방식의 다양화

- 교육장 및 장학관의 임용 방식의 다양화로 능력 있는 교장 및 교원의 참여 폭 확대
- 장학사 임용 방식의 다양화로 적재적소에 역량 있는 인재 채용 방안 모색

- 수석교사의 선발 확대 및 실질적 우대책 마련
 -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
 - 현 학교관리직 상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재편하여 교직 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
 - 수석교사의 호봉체제 및 업무, 성과급 시스템 개선
 - 수석교사의 역할 확대(교육과정컨설팅, 교내 수업 컨설팅, 각종 연수강사 참여, 대외적 연구 활동 지원 등)

- 관내 지역청 인사시스템의 자율권 확대
 - 관내 인사시 교사의 요구를 최우선 반영한 인사체제 구축
 - 관내 인사시 관리자의 요청교사 우선 인사조건 완화 및 활성화
 - 관내 초빙교사제도의 활성화로 학교별 맞춤형 인사 제고

(3) NTTP(New Teacher Training Program)를 통한 교사역량개발

가. 실 태

- 교직생애단계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미흡한 실정임
 - 교직생애단계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미흡
 - 중견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전문적 소양과 식견에 대한 연수지원이 요망됨

- 연수생의 자발적 참여 시스템 미흡으로 연수의 의무적 참여로 연수만족도 저하
 - 학교단위의 자발적 참여 연수를 활성화 하는 방안 모색
 - 학교단위의 연수의 학점화 및 연수운영비 지원체제 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교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지원체제 구축이 안 된 실정임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자기개발연수 온/오프라인 운영체제 구축이 요구됨

- 신규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요구됨
 - 신규교사의 역량제고를 위한 임용전, 임용후 연수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미흡한 실정임
 - 신규교사 임용전 인턴과정을 거칠 수 있는 단계별 임용과정이 요구됨

-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있고 교수학습 역량 있는 교사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요망됨
 - 진로지도와 교수학습의 전문성, 학생생활지도의 역량 있는 교사로 재탄생하기 위한 전문화된 연수프로그램이 요구됨
 - 수석교사, 초빙교사, 공모교장,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등 직급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수지원체제가 미흡함

나. 성과와 한계

- 맞춤형 연수 운영 및 참여식 연수방법의 미흡
 - 학교의 특성을 발현시킬 수 있고 학교가 요구하는 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맞춤형 연수지원체제가 있어야함
 - 학교단위, 지역단위의 참여식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 업무 지원 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미흡
 - 교원능력개발 평가 매뉴얼 개발 미흡 및 평가 연계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려해야할 사항임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관된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연수지원체제 구비

- 신규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지원정책 수립
 - 신규 임용 전 인턴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개발 추진
 - 임용 전, 임용 후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신규교사의 역량 제고
 - 신규교사를 위한 수석교사 멘토링 시스템 운영 방안 모색

- 신개념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직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사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사리더십프로그램」(Teacher Leadership Program) 개발 운영
 - 진로교육 및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생생활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 정책 대안

□ 방 향

- 맞춤형 연수운영 및 참여식 연수방법의 확대
- 연수기관별 연수대상 제한 폐지 및 교원 참여형 연수 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신규교사역량 제고를 위한 임용전후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수업 및 생활지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지원체제 마련

□ 내 용

-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HRM 프로젝트의 활성화
- 연수 학점화 및 연수비 지원으로 현장중심의 연수운영체제 구축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지원체제 구축
- 신개념의 교사를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신규교사 임용전후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연수프로그램 운영
 -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 수업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사의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교사자기개발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 실행 과제

- 찾아가는 맞춤형 HRM 연수의 확대 운영
 - 학교단위의 연수활성화를 위한 학교단위연수 지원체제 구축
 - 학교의 신청으로 연수신설 및 학점, 연수비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 운영 체제 구축
 -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개발

- 교원능력개발평가 후 교원 맞춤형 연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기개발계획서와 연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 신규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 임용 전 인턴으로 활동한 내용의 임용시기에 반영
 - 신규교사 임용전후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임용 전 기초학습부진아에 대한 학습봉사활동 내용의 임용전형 가산점 반영 모색

- 교육장 및 장학관, 장학사의 임용 방식의 다양화
 - 교육장 및 장학관의 임용 방식의 다양화로 능력 있는 교장 및 교원의 참여 폭 확대
 - 장학사 임용 방식의 다양화로 적재적소에 역량 있는 인재 채용 방안 모색

- 「New Teacher Training Program」의 개발 및 운영 체제 구축
 - 교사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 수업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생애단계별 교직의 시대변화적응을 위한 변화관리프로그램 운영

-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Teacher Leadership Program) 개발 운영
 - 교사의 셀프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 초급, 중급, 고급수준의 교사리더십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자격연수와 연계 운영

5. 미래형 학교 거버넌스 구축

가. 실 태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 부족
 - 교육권(教育權)의 학교(교사) 독점,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 제한
 - 헌법적 권리로서의 학생 학습권 제한 및 유보, 학생 자치 활동 및 학교 운영 참여 제한
 -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부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의견 반영 미흡
 -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및 협력 시스템 부족

- 도시 대규모학교의 ‘익명성’과 ‘관료주의적 효율성’ 추구
 - 구성원간 ‘인간적 관계’ 형성의 한계, 돌봄과 배려의 문화 부족
 - 관료주의적 효율성에 기초한 분업화 및 획일적 통제 시스템 작동
 - 지식정보화사회의 개별화 경향과 맞물려, 집단적 정체성 확보 및 구성원간의 자발적 협력 문화 형성의 어려움

- 학교단위 책임경영체(School-Based Management)의 왜곡된 적용
 - 교과부가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의 ‘학교 자율화’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창조적 적용 노력 부족
 - 교육 주체간 권한 위임(Empowerment) 및 자율적 협력 관계 형성 부족
 -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가 ‘학교장 권한 확대’로 귀결됨

나. 성과와 한계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 학생 인권 및 교육권, 학교 운영 참여 권리에 인정
 - 하지만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제시 부족. 또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 미형성.

-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확대
 - 교과부의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학부모 지원센터 설립추진,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등에 따른 다양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 하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의 보조자·지원자(학부모지원단, 방과후 코디네이터 등)’, 혹은 ‘학교 교육에 대한 감시자·평가자’(학교평가 참여)로서의 학부모 역할 강조. 실제 학부모가 요구하는 학교(교사)와의 직접 소통, 학교 교육과정에 의견 제시 및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함.
 - 학부모 정책 관련 교육청 각 부서의 유기적 협조 체계 미흡

- 혁신학교를 통한 새로운 학교운영모델 도입
 -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과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운영모델 지향
 - 혁신학교의 운영과 확산을 통한 미래형 학교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
 - 하지만 혁신학교의 운영모델에 대한 구체적 개념 규정 및 운영 매뉴얼 부재

다. 정책 대안

- 방향
 - 단위 학교 거버넌스 재구축
 - 학교 구성원의 주체로의 재조직화(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공식화) 및 각 주체의 학교 운영 참여 권한 확대

- 학교 주체들의 분권(分權)과 협치(協治)에 의한 학교 운영 실현
- 학교 규모의 적정화, ‘인간적 규모’의 학교 지향
- 구성원간의 인간적 관계가 가능한 ‘작은 학교’ 지향
- 대규모학교의 미니스쿨(학교 내의 작은 학교) 도입
 - ☞ 스웨덴 미래학교(Futurum Skola) : Yellow, Green, Red School 등 3개 ‘작은 학교’로 운영
 - ☞ 핀란드 야르벤빠(Järvenpää) 고등학교 : 교과군별 교실 및 교사연구실 배치, 교과교실제·학점제·통합교과 등 운영
 - ☞ 성남 보평초 :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작은 학교로 편성.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구조로 운영
- 교육청의 역할 및 기능 변화
- 교육청의 권한 축소, 단위 학교 권한 위임 확대
- 지역교육청의 관리기능 축소, 학습 지원센터 기능 강화
- 도교육청 유사 업무의 통폐합, 유기적·효율적 업무 추진
- 교과부 정책의 창조적 적용

□ 내용

- 학생 자치 및 학교 운영 참여 확대
 - 민주적·자율적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
 - 학생(회)의 학교 운영 참여 범위와 방법, 절차 등 제시
 - 학생의 권익 보호와 자치 활동 역량 신장을 위한 지역별 학생위원회 구성
- 학부모와의 소통 확대,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 교사와 학부모와의 직접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예) ‘학부모 저녁모임’, ‘학생-담임교사-학부모 3자 대화’ 정례화)
 - 학급-학년-학교 학부모회 조직,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 권한 부여

- 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한 교사-학부모 공동 워크숍 진행
(예 '교과 포럼' : 연 2~4회 특정 교과 운영 관련한 토론회 개최)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참여
- 진로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 학부모 참여 확대
(예 '학부모 직업 교실', '지역사회조사', '생태 체험')

■ 교사 조직의 학습공동체화

- 각종 공문과 업무의 권한 위임 및 전결 시스템 확대
- 교과 및 학년부 중심의 교사조직 개편
- 정기적인 워크숍, 수업 공개 및 연구회 개최
- 단위 학교 내 직무연수 개설, 연구회 활동 확대
- 학생 인권 및 자치활동, 학부모와의 소통 관련한 연수 실시

■ 교육청의 업무 조정 및 개편

- 연간 교육청 사업 추진 계획 공개,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 예고제
- 공문 및 지침 축소
- 유사 업무 통합, 유기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TFT구성·운영
(예 자율학교 운영, 학부모 사업, 학력향상 및 교육복지)
- 지역교육청의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로의 전환 모색

■ 혁신학교를 통한 미래형 학교 운영 모델 실현

- 혁신학교 선정과 평가에 미래형 학교모델 지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
- 도시 대규모학교의 '작은 학교' 운영 모델 실현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지역공동체학교'로의 재구조화

□ 실행 과제

- 교원 업무 경감, 학습공동체로의 조직화

- 교사 업무 분장 간소화, 권한 위임 및 전결시스템 운영 사례 발굴·보급
 - 수업 공개 및 연구회 운영 매뉴얼 및 성공 사례 보급
 - 학생 인권 및 자치 활동, 학부모와의 소통 관련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학생,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학생(회)의 학교운영 참여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및 우수 사례집 보급
 -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우수 사례집 발간
 - ‘학부모 저녁 모임’, ‘학생-교사-학부모 3자 대화’ 등 학부모와의 직접적 소통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 (교사용, 학부모용 별도 제작)
 - ‘학부모 저녁 모임’ 시범 사업 운영 및 성공 사례집 발간
- 교육청의 업무 조정, 조직 개편
- 유사 업무의 통합, 유기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TFT 구성 및 운영
 - 「교육복지종합센터」 시범 사업(농촌 지역, 혹은 도심공동화 지역의 1개 교육청의 전환)
 - ☞ 교육복지종합센터 : 학교와 복지기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교육복지시스템 구축
 - 「교수학습지원센터」 확대 운영(도시 지역 중 2개 교육청의 전환)
 - ☞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육청의 관리 기능 대폭 축소,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다양한 선택교과 개설 및 운영, 학점교환 센터 등)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학교 모델 연구
- 도시 대규모학교의 ‘작은 학교’ 운영 모델 연구
 - 농산어천 소규모학교의 ‘지역공동체학교’ 운영 모델 연구
 - 다양한 선택교과운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간 학점교환제 및 지역 단위 교과 운영 방안 연구

- 혁신학교를 통한 미래형 학교 거버넌스 실현
- 혁신학교 운영 매뉴얼 발간 및 보급

6. 학생 감소에 따른 기피학교 재구조화

(1) 소규모 학교 재구조화 방안

가. 실 태

□ ‘소규모 학교’ 개념의 이중성

- 학생 수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운 학교
 - 도시 대규모 학교의 과밀학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상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조건의 학교
- ※ 전교생 60명 이상 180명 이하의 학교를 ‘이상적인 작은 학교’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음. 한 편으로는 전교생 60명 이하의 통폐합 대상 학교를 뜻하기도 한다.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 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에 입각하여, 1982년 이후 일정 규모 이하의 학생 수를 가진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통폐합시켜 옴.
- 소규모학교가 주로 농산어촌에 위치하고, 지역적·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학교 통폐합¹⁵⁾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옴.
-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15)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2016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촌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로 본교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 분교 학생 수 20명 이하인 학교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2년까지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500개 학교가 통폐합된다. 우선 농촌(읍면 도서벽지)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이 통폐합 된다. 또한 도심지역의 공동화 등으로 학생 수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통폐합 시 연간 학교 운영비 3배 내외(6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 통폐합을 독려할 방침이다.

나. 성과와 한계

- 재정 지원을 통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2003년부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사업’을 진행함. 50개 농촌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6억 70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전원학교’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총 110개 소규모 학교에 3년간 총 1,393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일방적인 통폐합위주의 소규모 학교 정책에서 선별적 재정지원을 통한 거점학교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그러나 재정지원 중심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은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 후 교육활동 등 일회적 사업에 치중함으로서 소규모 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교육적 발전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
- ‘작은 학교 운동’을 통한 학교 재구조화 방안
 - 2000년 폐교 직전의 남한산초등학교 살리기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작은 학교 운동은 지역주민과 인근 도시 학부모 그리고 뜻있는 교사들에 의해 시작한 자생적인 학교재구조화 노력임.
 - 소규모 학교가 갖는 학교 규모의 적정성과 전원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특성화함으로서 ‘도시에서 찾아오는 좋은 학교’의 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성공적 모델은 농촌 소규모학교 뿐만 아니라 도심주변의 폐교 위기에 있는 작은 학교,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폭 넓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의 학교자율화 정책이나 교원정책이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많은 갈등을 낳고 있음.

다. 정책 대안

□ 방향

- 이상적인 학교 교육을 수행하기 적합한 조건을 갖춘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
- 소규모 학교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원책과 경영개선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내용

-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작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원형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이를 통한 확산 전략을 모색함.
-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뿐 아니라 도심 외각 전원지역의 소규모 학교 또한 적극 육성하여 대안교육 혹은 생태적 체험학습에 대한 수요를 전원형 혁신학교로 담아냄으로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나감.
-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수급, 교육과정의 다양화, 업무 경감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함.

□ 실행 계획

- 전원형 혁신학교 (소규모 자율학교) 지정
 -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지닌 작은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1개 이상(지역 교육청 단위 소규모학교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거점학교로 육성함.
 - 소규모 자율학교의 학교지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르나, 학부모 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가 반하는 경우 교육감이 직권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학교장과 교감은 직권 전보함.

■ 전원형 혁신학교 클러스트 지정

-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작은 학교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작은 학교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 남한산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인근 광지원초등학교, 번천초등학교(돌아오는 농촌 학교), 분원초등학교 등이 '전원학교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작은 학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전원형 혁신학교 특성화 교육청 지정

- 전원형 혁신학교 요청이 많은 지역을 특성화 교육청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단위로 작은 학교의 재구조화를 전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공모한다.

※ 양평의 조현초등학교, 수입초등학교가 전원형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있으며, 인근의 세월초등학교, 서종초등학교, 정배분교 등에서도 혁신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촌형 작은 학교,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의 경우, '(가칭)농촌형 작은 학교 모델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심 공동화 학교 재구조화 방안

가. 실 태

□ 도시 형성이 오래된 도시, 혹은 도시재개발과정에서 소외된 구도심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취학 학생이 급감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 학교의 시설 환경 역시 학생 감소 및 교육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신도시의 경우에도 저소득 밀집 지역(임대 아파트 지역)의 경우, 기피학교로 알려져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크게 증가하고, 유휴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심지역의 공동화 등으로 학생 수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통폐합 시 연간 학교 운영비 3배 내외(6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통폐합을 독려할 방침임.

□ 현재까지 단위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심 공동화와 이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유휴 시설 현황, 도심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한 조사 및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나. 성과와 한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여건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취를 돕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해온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 913개교를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구도심 학교 공동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 도심 낙후 지역 및 기피학교에 지방 자치단체와 대응투자 사업을 통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전개하고 있음.
- 하지만 학교 시설의 지역 사회 개방성, 인근 학교간 시설 공유 방안, 향후 증가할 도심 공동학교에 따른 학교 통폐합 가능성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학교 단위 투자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유사 시설의 중복 투자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다. 정책 대안

□ 방향

- 도심 공동화 학교에 대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교육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효율화를 높여야 함.
-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교육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한 대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내용

- 도심 공동화 지역의 기피 학교 통폐합 정책은 단순한 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며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학교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또한 취학 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 교실을 증가에 따른 시설 활용과 학교가 보유한 문화체육시설을 인근 학교 공유하고 학교별 특성화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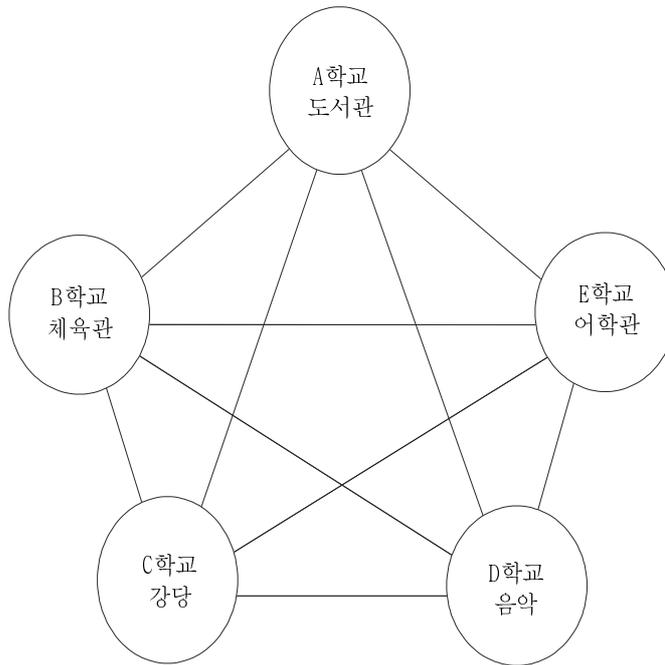
□ 실행 계획

- 도심 공동화 학교 통폐합을 통한 우수 학교 만들기
 - 도심 공동화 지역의 학교 밀집지역에서 기피 학교 두세 개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학교로 개교함. 이 경우 학교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학교로 개교하여 통폐합을 촉진함.
 - 이에 따른 재정은 국고지원 또는 민간투자 리스방식을 취하되 교원 인사, 예산 집행, 교육과정 편성 등 학교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폭 위임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교간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도심 공동화 지역의 학교 밀집 지역의 학교간 클러스트 사업을 통해 학교별 특

성화 교육을 위한 시설물과 인력을 집중지원 하고 공유체제를 구축함. 4~5개 인접 학교의 문화, 예술, 체육, 방과후 교육, 보육 시설물과 인력의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별도의 공공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경영케 함.

- 이로써 지역의 청소년 교육문화 인프라의 강화 및 학교시설물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활용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

<표 20> 학교 특성화 및 시설 공유에 기반한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모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미래형 학교 정착을 위한 교육청의 장단기적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미래형 학교 정착을 위한 단계별 과제

단계	과제	설정 목표
1. 미래형 학교를 위한 단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과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선진화 - 교육자원 연계체제 구축 □ 가치교육 브랜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 학생의 선택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선택교과> 복수 선택 허용 - 고등학교 기초교과 및 탐구교과 선택권 확대 (새로운 교과목 개설) □ 학교단위 학습케어 시스템 개발 	<p>이 단계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들은 '미래형 학교 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미래형 학교란 기존의 학교운영문법 체계를 미래준거에 맞도록 재구조화하는 학교이다. 따라서 교육관련자들의 인습적인 사고를 전환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는 실행 과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제시된 과제들 중 일부는 현재 '혁신학교'들이 추진하는 주요한 액션플랜이기도 하다.</p> <p>이런 점에서 단기과제의 목표 달성여부는 혁신학교들의 성패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p> <p>요컨대, 이 단기과제는 고전적 학교체제에 미래지향적 요소를 접목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및 프로젝트형 평가 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 □ 다양한 평가 모형 개발 □ 평가전문성 신장 연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 보급 □ 정규수업 내실화를 위한 '질 관리 시스템'의 정교화 □ 수준별 수업, 방과후 수업 확대 □ 대학생·지역자원 멘토링제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차원의 인증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미달자 조기 진단 및 개입시스템 개발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다수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교사 정원 확대 □ 지역단위별 심리치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혁신 마인드 제고 연수 강화 □ 교수(수업)리더십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장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단위학교별 HRM 연수 확대 □ 협력적 교수학습모델 개발 연구사업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참여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p>거버넌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간 토의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권한 확대 □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기구의 학교운영 참여보장 □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저녁모임' 및 '교과포럼' 운영 	
	<p>기피학교 재구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전개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전원형 혁신학교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유도 □ 도심 공동화 학교 통폐합을 통한 신모델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현대화 및 자율권 확대 	
2. 미래형 학교를 위한 중기과제	<p>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협력적 교수학습모델 개발 □ 교육청의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의 전환 □ 학점제 학교로의 전환 및 교과교실제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과 학기이수제 전환 □ 학점 미이수 학생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발 (방학학기제, 학교간 학점 교환제 도입) □ 속진학생 지원 시스템 제도화(AP, UP, 하이스쿨칼리지 Highschool college 운영) □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양성 프로그램 개발 	<p>이 단계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들은 '미래형 학교 모델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미래형 학교는 이전과는 다른 복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돌봄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p> <p>따라서 학습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이에 더하여 개별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학습케어 및 생활케어가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중시된다. 또한 미래형 학교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범주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p> <p>전통적인 교수 능력 못지않게 학생에 대한 돌봄</p>
	<p>평가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평가권 부여 및 학교단위 평가자율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집단별 평가 및 평가 시기 및 횟수 학교 자율결정 	
	<p>학력신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년단계별 학습능력 및 학습효율성 검사 실시 및 처치 □ 학습능력에 대한 자가진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TV를 통한 맞춤형 시스템 도입 □ 교과별 보조 교사 배치 확대 	
기초 학력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학교 학교장에 대한 관련연수 의무화 □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교사에 대한 인 사상 인센티브 확대 	<p>역량과 다양한 미래적 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 서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p> <p>또한 미래학교에서는 학교의 지배구조 역시 다자적 지배구조를 갖추게 되면 만큼, 실질적인 협치를 견인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강조하는 것이다.</p> <p>요컨대, 이 중기과제들은 미래지향적 학교모델의 보편화를 시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p>
교원 역량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 NTP(New Teacher Training Program)을 통 한 ‘돌봄’ 능력 신장 □ 입직 전 연수 프로그램 개선 - 연수내용, 연수 기간의 심화확대 □ 교직원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전문직 장학능력 함양 프로그램 운영 	
거버 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학교 참여 - 지역단위 교육위원회(주민자치기구) 구성 및 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 □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주민대표 참여 - 주민통제 원리의 제도화(주민참여정책집행제) 	
기피 학교 재구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형 혁신학교 클러스트 지정 -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간 네트워크 구축 □ 학습기관간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학습기관간 전략적 공유체제 구축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급별 졸업요건 설정 및 학교단위 교수 책무성 측정 시스템 개발 □ 무학년제, 무계열 교육과정 운영 	
3. 미래형 학교를 위한 장기과제	평가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참조평가체제 전면적인 도입 - 교과별 성장기록 방식의 평가로 전환
	학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형식 선택제 수업 운영 - 강의식, 토론식, 주제 탐구식 수업선택 가능 체제 □ 학습협약제 실시 - 학생, 학부모, 교사간 학습협약 및 피드백 시 스템 개발 □ 학습 자율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 - 각 학교급별 학습 자율성 측정 및 교정 프로

	그림 개발 보급	
기초 학력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아웃소싱(outsourcing), 혹은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교원 역량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역량개발 포맷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과 강의듣기 중심에서 전문적 연구 중심으로 전환 □ 교과목 개발 능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개발 비용 지원 및 교과목 개발자 인센티브 부여 □ 연구년제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교가 갖는 형식적·문화적 형식을 뛰어넘는 메타적 모델을 구안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거버 년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에 의한 학교자치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학교 모델 확산 □ 단위학교는 '교육문화체육복합시설'(Edu-Culture-Sports Complex)로 전환 	
기피 학교 재구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차 기피학교에 대해서는 차터스쿨 운영 모델 도입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1. 요약

□ 미래사회는 기존 지식의 암기나 단순 반복보다는 스스로 독창적인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 중시됨. 따라서 미래사회는 지식을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보고, 학습은 모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함. 아울러 학생들이 무엇을 반복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사상(事象)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의 연쇄를 통해 세상 이치를 터득하고,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익히고,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게 됨. 이런 과정에서 개별적인 우수성을 넘어서는 ‘집합적 창의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글로벌 리스크(Global Risk)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공공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공공성의 요구도 점차 증대되는 상황임. 따라서 미래형 학교에서는 ‘공공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중시하게 됨. ‘공공하는 과정’이란 공동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것,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공통의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 문제해결 과정에서 타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 동료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 상호 호혜적 공동규범을 만들어 가는 것 등을 의미함.

□ 따라서 개별 단위학교는 미래교육 코드를 담지하는 배움과 돌봄의 공간, 삶을 함께 나누는 공간, 더불어 사는 노력을 조직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일차

적으로 기존의 학교문법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운영원리가 채택되어야 함. 즉 ‘성장우선주의’를 중시해야 함. 개별 학생들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 동기’를 자극하는 일에 주목해야 함. 나아가 성장 동기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지식학습과 체험학습의 조화, 의존형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조화, 사유와 실천의 결합을 조직화가 필요가 있음. 이러한 원리가 채택될 때 개별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할 교육활동이 기획될 수 있음.

<표 22> 현재 학교와 미래 학교의 차이¹⁶⁾

구분	현재의 학교	미래의 학교
학교의 지배구조	집중적 지배구조	분산적 지배구조
교육행정체제	중앙집권식 행정	지역, 학교중심 행정
학교 프로그램	획일적인 학교	다양한 학교(학교선택제)
학교의 형태	고정적, 물리적 상태	지역사회의 학습센터
학교의 기능	교수학습 가능 강조	다양한 기능(MFO)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계적 결합관계	유기적 결합관계
교원의 자격	획일적 자격기준(자격)	개방적 자격기준(능력)

□ 현존 학교가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5대 핵심과제와 액션 플랜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핵심역량 강화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미래형 학교가 가르쳐야 할 지식은 ‘미래중심 지식’, ‘의미중심 지식’, ‘인간관계지식’이 되어야 함. 이런 차원에서 학교교육과정은 핵심역량 신장체제로 재편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의 고품질화, ‘창의적

16) 강영혜 외(2009),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교육복지 강화형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p.68.

· 협력적 교수·학습 모델' 개발, '학점제 방식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의 구축, 지역사회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휴먼웨어 구축), 교육과정 서비스 체제(교육과정 요람제작 등) 등이 구축되어야 함.

■ 창의적 평가체제 구축

현존 학교에서는 교육활동과 평가간 도치 현상이 나타남. 즉 평가체제가 교육활동 디자인의 준거 구실을 함. 따라서 교육활동이 평가에 종속되고, 학생들은 평가를 위한 학습에 진력하는 왜곡이 나타나고 있음. 단기적으로 현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미래핵심역량 신장 차원에서 창의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질적 평가문제 개발, 수준별 평가를 위한 세트문항 개발,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준거 개발, 교사의 평가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

미래형 학교는 지역과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는 학교단위 차원의 자율적 경영체제를 갖추어야 함. 이때의 자율적 경영체제란 집단적 지혜에 기반을 둔 협치(協治)를 의미함. 따라서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 경영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장 중심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함.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액션 플랜이 필요함. 예컨대, 교사회의 권한 확대, 학생자치기구의 학교운영 참여권 확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보장 및 학부모 성장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그것임.

■ 맞춤형 케어 시스템(care system)의 구축

미래형 학교는 삶을 총체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전담교육기관(total edu-care institute)이 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서비스(total educational service)체제를 마련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맞춤형 케어 시스템 구축의 정당성이 있음. 따라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학습준비도 진단 및 처치 프로그램

램의 정교화, 학습상담의 일상화·심층화, 멘토링제의 질적 수준 제고, 또래 집단에 의한 튜터링제 정착, 교육적 소외집단을 위한 다분야 지원팀 (multi-disciplinary team)을 조직·가동할 필요가 있음.

■ 교사 성장 프로그램 개발 운영

미래사회에서도 교원은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교원에 대해 교직 자로서의 전문성, 시민으로서의 자질, 생활인으로서의 태도 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원은 늘 ‘학습을 즐기는 존재’여야 하며,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해 ‘삶을 나누는 존재’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민감한 ‘시대정신의 담지자’가 되어야 함. 따라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교직효능감’ 증진을 위한 워크숍 운영, 수업공개를 매개로한 수업연구회 일상화, 다기능(MFO) 역량 신장을 위한 학교단위 HRM 연수 실시, 교과협의회의 학습·연구 조직화,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함.

□ 장차 미래형 학교는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로 포지셔닝 되어야 함. 즉 ‘배움의 즐거움’, ‘소통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을 통해 주체 간에 동반성장이 가능한 학교가 되어야 함. 물론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정책의 현실적인 리미팅팩터(limiting factor)로 작용하고 있지만, 장치 기존의 인식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단계적 이행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함.

2. 결 론

□ 미래형 학교는 특정한 유형의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준거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는 학생중심의 학교, 핵심역량중심의 학교, 복지시스템을 갖춘 복지학교, 나아가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공동체 학교를 의미함. 이런 점에서 교육 관련자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프레임의 전환이 가장 시급함. 통상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특정 목적론적 도식(예비기-성공적인 입시준비-명문대학 진학-일류기업 취업=성공적인 삶)의 주요단계에 정치됨. 그리고 그에 합당한 기능이 요구됨. 따라서 대개 학교는 균질적임. 입시준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가급적 좋은 성과(입시실적)를 얻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함. 이러한 인식도치 현상으로 인해 학생 삶의 왜곡이 나타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임.

□ 기존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함. 요컨대, 배움의 자기 이유를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실존적 고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과 텍스트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집합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적 학업풍토를 조성할 것인가? 학생 개개인의 기획활동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을 단순한 교과학습체계로 이해하기보다는 진로설계체계 혹은 삶의 설계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 운영 문법이 바뀌어야 함. 일차적으로 교과목 간 통합적 운영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또한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 필요함. 즉 학생들의 가치감수성을 강조하는 교과목, 존재와 삶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자극하는 교과목, 자기주도성과 실천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목, 진로개척 능력 함양을 위한 진로 교과목 개발이 필요함. 또한 개인의 특기와 자질을 개발하기 위한 적성관련 교과목 및 각종 공동체성 신장 프로그램과 ‘사고실험 기회’를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고민해야 함. 이러한 교과목 개발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장차 ‘문제를 푸는 존재’(problem solver)가 아닌 ‘문제를 찾는 존재’(problem seeker)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실험적 요소의 반영이 필요함. 개별 교과목의 교수·학습활동에서 토론과 발표 등 학생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료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배움의 증진’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움의 장소를 교실로 한정하지 않고 교과 간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교과적 체험활동도 중시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은 활동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 -예컨대 자연에 대한 감수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감각, 공동체성의 함양 등- 도 중요하지만 준비과정(사전 워크북 제작)과 실행단계, 그리고 그 이후의 평가과정을 통해 기획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이러한 교수·학습 형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목이수 시기 및 시간 조정의 유연화가 선행되어야함.

□ 교육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혁신적 접근’이 필요함. 즉 지필 평가에 의한 성적 산출 보다는 교육활동 과정평가에 대한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때의 수행평가란 자기탐구 보고서, 모둠 프로젝트 보고회, 작품발표회, 공연, 전시회, 논술문 쓰기 등을 총 망라하게 됨. 특히 학생들은 다양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게 됨. 즉 ‘개인체험의 지식화’ 및 ‘개인지식의 공유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임. 이런 점에서 새로운 평가과정은 학습결과의 확인 절차이기 이전에 ‘표현을 통한 자기점검’, ‘다른 이의 경험을 통한 간접 체험’, ‘문제의식의 객관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장차 미래형 학교,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점제(학교의 교육활동 책무성 강화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영어, 수학과 같이 계열별 또는 수준별 단계 설정이 가능한 교과는 교과별 단계를 설정하고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의 학습속도와 수

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 그리고 기타 위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별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년 간 교차 선택을 통해 필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학점제 학교로 운영하는 경우, 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진로결정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 개설을 요구할 수 있어서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존의 학교가 미래형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체제의 전환은 물론 새로운 학교운영 원리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 첫 번째는 ‘교사 자율성 원리’임. 교사는 교육목표를 현실화하는 직접적인 실천자임. 따라서 이들의 자율성 발휘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성장의 질’이 영향 받게 됨. 두 번째는 ‘교육권재학생’(教育權在學生)의 원리가 지켜져야 함. 학생의 교육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임. 따라서 학교는 어떤 경우라도 ‘정상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됨. 특히 단위학교가 학생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는 ‘학생에 의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도 그들을 교육권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같은 맥락에서 ‘교육권재학부모’(教育權在學父母) 원리도 지켜져야 한다. 학부모는 학생의 친권자인 만큼 학교운영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이런 점에서 학부모를 학교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 가지 원리는 하나의 세트개념으로서, 협치(協治-Governance)에 의한 학교운영 충족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 경영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학교운영체제 즉 실질적인 학교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함. 즉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인 학교 의사결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학부모의 집단적 참여 가능) 제도적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의결기구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미래형 학교의 교사는 지식의 전수로 대표되는 교육적 역할 외에 ‘돌봄’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임. 그러나 돌봄의 의미를 빈곤 또는 해체 가정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문제까지 확장할 경우 교사의 역할은 감당하기 어렵게 되므로 학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 이외의 돌봄의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 즉 ‘교육지원인력’(non-teaching staff, teacher supporting staff)을 확보해야 함. 미래학교는 교원과 교육 지원인력이 차별되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후자가 더 큰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함.

□ 미래형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배움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교육복지형 학교’가 되어야 함. 여기서의 ‘교육복지’란 단순히 결핍을 해소하는 차원의 복지 개념이 아닌 모든 학습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습복지의 의미를 담고 있음. 따라서 학생의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계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보육기능의 충족, 교육기회(기초, 심화교육)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대응 복지’(reactive welfare) 형태를 탈피하여 ‘선대응 복지’(proactive welfare)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심리적 불완전성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기주동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구체적인 돌봄 사업이 정규교육과정과 결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미래형 학교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학교혁신 요소와 혁신 수단의 발견 전략이 이전의 그것들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학교혁신은 명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당한 혁신요소와 적절한 혁신 수단의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의 혁신수단의 주된 발견전략은 ‘자원투입 요소를 찾아라’에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많은 재정 지원 과제를 찾고, 이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끌어 오리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문제는 이러한 발견의 전략이 채택되는 조건에서는 ‘고비용-고효율 구조’가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래형 학교의 구조는 ‘적정비용-고효능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 혁신 수단의 발견 전략은 ‘단위학교의 자율 요소를 찾아라’가 되어야 하며, 이런 자율요소를 승인-지지하는 정책방향이 채택되어야 한다. 일련의 정책과정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혜 외(2009),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도정일(2007), “경쟁력, 수월성, 창의성의 비극”, 『비평』 제15호, 생각의 나무.
- 박병량(1997), 『학급경영』, 학지사.
- 안진환·박슬라 역, John Naisbitt (2007), 『마인드 세트』, 비즈니스 북스.
- 이수광(2009),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미나 자료.
- 이수광 외(2009), 「고한교육 재활력화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사)함께여는교육연구소.
- 이순형(2003),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학교혁신과 학부모참여”, 교육개혁포럼(2003. 6)
- 한국교육개발원(2009), 「한-OECD국제 세미나 -새천년 학습자 및 교원」 세미나 자료집.
- 한유경(2009), 「내일을 위한 학교개혁 프로젝트」, 교육과학기술부.
- 매일신문, 2009.9.17
- 연합뉴스, 2009.3.2
- D. Blackledge & B. Hunt(1985), Sociological Interpretations of Educational, London : Croon Helm.
- Mulgan, Geoff(2000), "The Prospects for Social Renewal", in OECD, The Creative Society of the 21st Century,
- Nikitina, Svetlana (2002) From a Community of People to a Community for Disciplines:
The Art of Integrative Humanities at St. Paul's School , Interdisciplinary Studies Project, Project Zero,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Noddings, N.(2005), “교육에서의 돌봄”, 『돌봄과 배움의 작은 학교 만들기』 제5회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심포지엄 자료집.
-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프로젝트.

City High Charter School : <http://www.cityhigh.org/>

Gailer School : <http://www.gailer.org/>

Northwest School: <http://www.northwestschool.org/>

Ross School : <http://www.ross.org/>

Poughkeepsie Day School : <http://www.poughkeepsieday.org/>

St. Paul School : <http://www.sps.edu/>

부 록

1. 교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 사례(해외)
2. 국내외 학점제 운영 사례

[부록]

1. 교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 사례

이 부록에서는 미국에서 인문사회계열 교과통합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총 여섯 곳의 학교(City Charter High School, Gailer School, Northwest School, Poughkeepsie Day School, Ross School, St. Paul School)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섯 학교 중 City High는 공립학교이면서 교육과정을 차별화한 협약학교(Charter School)의 형태이며 나머지는 모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교육과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립(Independent) 학교이다.

<표 23> 해외사례 학교 기본정보

학 교 명	위 치	인문사회계열 대표 통합과정
형 태	학년/학기제	
City Charter High School	Pennsylvania주 Pittsburgh	문화리터러시 (Cultural Literacy)
협약학교(Charter School)	9-12학년 / 3학기제	
Gailer School	Vermont 의 Middlebury	다빈치인문학 (DaVinci Humanities)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	7-12학년/2학기제	
Northwest School	Washington주 Seattle	인문학 (Humanities)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	6-8, 9-12학년/	
Poughkeepsie Day School	New York주 Poughkeepsie	문화사 (Cultural History)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	5-8(혼합및단일연령반)/4학기제	
Ross School	New York주 East Hampton	인문학 (Humanities)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	5-8, 9-12 학년/	
St. Paul School	New Hampshire주 Concord	인문학 (Humanities)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 기숙학교(Boarding School)	9-12/3학기제	

이 중 City High를 제외한 나머지 사립학교들은 소위 명문 사립 고등학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학교의 재정 상태 및 학생들의 수준, 교육에 대한 준비도 및 기대 수준 등의 교육 요건이 본 연구의 국내 사례에서 다루어진 대안학교들과는 매우 다르다. 또한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학 입시제도 및 국가 교육 정책의 흐름도 한국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학교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 통합의 사례가 한국의 사례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쓰고 있으며, 그 학문적 수준이 매우 높고 교사의 공동 업무에 대한 학교의 정책적 지원의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어, 우리 대안학교와의 상황과 맥락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교과 통합 사례로서의 분석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위 학교들은 모두 중등학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통합과정을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 과정으로서 중요한 한 영역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문사회계열 통합과정은 일반적으로 언어영역, 사회 및 역사, 정치, 문화 등을 통합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과정 조직의 방법이나 과정을 이끌어가는 중심 동력이 되는 교과 혹은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통합하고 있는 핵심 개념에서는 서로 차이점을 드러내 학교의 핵심 교육과정으로서의 통합적 교과과정이 어떻게 세밀하게 다양해 질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학교의 미션과 통합교육과정의 특징, 학교의 정책적 지지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 본 후 이러한 사례들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을 한국 교육의 상황과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며 논의 해 보기로 한다.

1. City High Charter School (이하 City High)

(1) 인문사회계열 교과통합 교육과정 : 문화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가 되는 학교의 중심 교육과정은 문화 리터러시, 과학 리터러시, 직업 기술 리터러시, 복지 리터러시, 그리고 기타 선택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문화 리터러시 과정이 바로 인문사회계열 교과통합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표 24> City High 의 문화 리터러시 교육과정

교육과정 묶음	펜실베이니아법 제4장의 학문과목들	City High 수업 과목들
문화 리터러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8학기: 언어 9, 10, 11, 12 선택과목: 읽기 전략 창의적 글쓰기 연설 텍스트에서 영화 드라마
	사회과- 윤리사회와 정부, 지리, 경제, 역사	사회과 8학기 미국사 9, 10학기 세계 문화 11학기 세계화 이슈 12학기
	예술과 인문학	(최소)한 학기 예술 선택과목 디지털 음악 I, II, III 미술- 그래픽 디자인 I, II 디지털 사진 미술- 스튜디오 I, II 디지털 미디어 데스크톱 출판 1,2 음악
	세계 언어	스페인어 I-IV

(2) 통합과정의 구체적 실행

문화 리터러시 교사팀은 그 학년의 영어와 사회(역사) 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과정은 주제 중심적인데 그 동력으로서 사회과 테마를 사용하며 4년간의 영어와 사회과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영어 수업들은 사회과 주제들에 속한 문학작품을 사용하며 다양한 장르들의 소설, 단편 이야기, 수필, 영화 등이 읽기, 쓰기, 그리고 언어 기술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다. 사회과와 맞닿아있는 영어 언어의 교수는 깊고 폭 넓은 지식을 격려하는데 통합적인 방법 안에서 주제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과 수업들은 원전, 도서관, 인터넷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공부하도록 한다.

각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9학년 : 19세기와 20세기초기의 미국사
- 10학년 : 미국 현대사, 윤리사회과와 정부
- 11학년 : 세계 문화
- 12학년 :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철학을 포함하는 세계학 선택과목들.

문화 리터러시 블록은 매일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되며 약 56명의 학생들이 역사와 영어 교사 그리고 2명의 도우미들과 함께 작업한다. 블록은 30분 동안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한 활동으로 시작하는데, 학생들은 매일의 뉴스를 요약하며 그 안에서 3~5개 증거를 찾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요약본과 증거들은 매 2주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의 주제에 관한 에세이를 쓸 때 사용된다. 두 번째 활동은 특정 수업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활동은 역사 혹은 영어 언어 교육 쪽으로 초점을 둘 수 있다. 활동은 소그룹 혹은 개별 프로젝트 또는 대그룹 수업으로 약 30분~45분가량 진행된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두 번째 활동에서 수업을 더 발전시키는 세 번째 활동에 이어 블록은 저널을 쓰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마침 활동으로 끝난다.

(3) 교사 조직 구성 및 학교의 정책적 뒷받침

① 교사들의 공동 계획 블록

City High의 교육 프로그램은 펜실베이니아주법 제 4장 학문적 기준의 묶음 위에 세워졌다. 이러한 묶음은 교과 통합간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학습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상식을 제공하고 일정표를 짜는 것과 교직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City High는 공통적으로 교과 통합간 학습이나 학생 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육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일정표가 이러한 개념의 중요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영역간의 묶음과 유연한 일정을 통해, 교과 통합적이고 프로젝트 기반인 학습을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의 구체적인 예로 City High는 교과통합 수업에 참여하는 두 교사가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매일 2시간 10분의 공동 계획 블록을 보장해 주고 있다.

② 팀 티칭

교사진은 개별 사무실을 갖지 않는다. 대신, 각각 학년의 교사들은 공동 사무실을 갖는다. 새로운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교사들은 협동적으로 후보자를 인터뷰 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몇몇 수업들, 특히 직업 준비 수업과 연구 수업들은 두 교사가 동시에 가르친다.

③ 교사-학생 지속성

교사들의 같은 그룹이 각각의 졸업 학년과 고등학교 4년 동안 함께 작업한다. 이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에 더욱 익숙해지도록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의 가르치는 스타일과 더 친숙해지도록 한다. 또 다른 이득은 교사들이, 매 년 다른 학년을 가르침으로서, 단순 반복에 의해 지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4학년이 졸업을 하면 그 교사들은 새로운 9학년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 교사들은 이 주기를 끝낼 때마다 급여 인상을 받으며 새로운 졸업 학급과 새로 시작하게 된다.

④ 교사 성장

City High 교사들은 종신신분보장을 받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비록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교사들은 완벽한 혹은 거의 완벽한 출석을 유지하면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대리교사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의 3가지 등급은 도제공(Apprentice), 도제를 마친 기능인(Journeyman), 그리고 거장(Master)으로 나뉘어져 있다.

2. Gailer School (이하 GS)

GS는 버몬트의 미들뷰리에 위치해 있는 사립학교로서, 7학년에서 12학년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GS는 학생들이 학습을 사랑하고 통찰력 있는 세계 시민이 되도록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이러한 학교의 미션은 상호 존중, 지적 도전, 창의적 표현, 봉사, 다양성, 그리고 대학 준비 환경에서의 높은 기대와 같은 학교의 핵심가치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1) 인문사회계열 교과통합 교육과정 : 다빈치 인문학 (Da Vinci Humanities)

역사에 기반을 둔 다빈치 인문학 교육과정은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되고 현대로 확장되며 이러한 폭넓은 맥락은 학생들을 방법적으로 굉장히 넓은 폭으로 사고하도록 훈련한다. 선사시대 사건들의 역사 공부는 GS 학생들이 지식의 기본적 원리를 탐험하는데 수단으로서 작용하며 학생들은 다빈치 수업의 세미나들을 통해 학습의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 다빈치 7 인문학 : 기원과 변형

이 과정은 언제나 가능하면 인문학과 과학간의 연결지점을 만들어내며 다빈치 과학과 나란히 이루어진다. 이 코스는 진실, 변형, 창조, 우주의 기원과 진화 등과 같은 주제를 탐구하며, 작문, 문학, 미술과 역사가 이러한 주제에 통합된다. 주요 문학작품은 파리대왕, 앵무새 죽이기,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전달자(The Giver) 등이며, 그밖에도 비소설, 시, 창작 이야기와 제인 구달의 인간의 그늘에서(In the Shadow of Man)와 같은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

㉡ 다빈치 8 인문학 : 고대 문명

다빈치 8 인문학 교육과정에서는 6개의 고대 문화를 공부한다. :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그리스, 로마, 중국 이 문화들의 각각은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 관점을 통해 탐구된다. 몇몇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문명을 꽃피우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나타나야 하는가? 가정생활, 사회의 조직, 그리고 종교와 같은 문화적 측면들이 각각의 문명마다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문명들의 전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현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 교재: 길가메시 서사시와 오디세이, 동물농장, 화씨 451, 양자강의 뱃사공(A Single Pebble), 조리 안의 꿀(Nectar in a Sieve) 등과 같은 매우 현대적인 소설 작품들을 포함.

③ 다빈치 9 인문학 : 세계 종교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동양의 가장 오래된 전통 및 그 후세에 나타난 전통들(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을 가을에 배우기 시작해서, 봄에는 서부 아랍의 전통들(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훑고 세계의 주요 종교를 공부한다. 그 후 수업은 고대 지구숭배 전통과 신이교주의의 생태적 바라보기로 끝맺는다. 학생들은 이렇게 종교들의 역사와 지리를 공부할 뿐 아니라 숭배의 장소를 방문하고, 그 곳의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나온 바그하바드지타(The Bhagavadgita), 싯다르타, 남아있는 나날(Remains of the Day), 나선형 계단(The spiral Staircase), 이스마엘(Ishmael)과 같은 것을 포함해 여러 (고대 그리고 근대의) 문학들을 읽음으로써 체험을 통해 그 종교들을 문화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이 반은 쓰기 집중 반이며, 학생들은 가치관, 추상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세계 속에서 또한 그들의 가치와 문화 안에서의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주문 받는다.

* 교재: Huston Smith의 The Illustrated World's Religions: a Guide to Our Wisdom Traditions 와 Philip Novak의 The World's Wisdom Traditions: Sacred Texts of the World's Religions.

④ 다빈치 10 인문학 : 근대 문화의 출현

다빈치 10 인문학은 1400년에서 1750년까지 시기의 유럽 문화의 세 가지 큰 변화 -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 혁명- 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와 새로운 유럽의 조우 시기 동안 다른 문화들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수업은 미국 식민지 시기와 서구 문화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출현에 대한 공부로서 마무리된다. 이 수업에서는 단테, 마키아벨리, 셰익스피어와 로크, 그리고 더 현대적인 시, 단편소설, 소설과 희곡들의 원전을 읽는다.

⑤ 다빈치 11 인문학 : 혁명 - 변화하는 세계

다빈치 11은 20세기의 익숙한 사건들을 위한 무대를 조성했던 혼란스러웠던 18세기와 19세기에 대해 언급한다. 학생들은, 계몽주의의 생각들이 어떻게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의 사회, 정치, 산업적 혁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공부를 시작한다. 근대, 서구의 사회적 정치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면서 다빈치 11은 학생들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아편전쟁 (Opium Wars)을 사용하는 동쪽으로 초점을 돌린다. 원전들과 더불어 수업에서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검은 고라니는 말한다(Black Elk Speaks)와 몇몇 단편들을 읽는다. 요약하면, 다빈치 11은 역사, 문학, 그리고 예술을 현재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로 들어가는 창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작은 지구에 존재하는 다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⑥ 다빈치 12 인문학 : 근대 세계의 생존

다빈치 12는 학생들이 미국 시민전쟁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문학으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도록 교육한다. 세계적인 범위를 다루며 서양 문화와 20세기 혼란을 주로 바라보는 원전들이 강조된다.

교재: 킬러 엔젤스(Killer Angels), 해는 또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 우리들의 시대에(In Our Time),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재즈(Jazz), 사모아의 성년(Coming of Age in Samoa), 미들타운(Middletown), 캐치 22(Catch-22), 나이트(Night), 히로시마(Hiroshima), 도살장 5(Slaughterhouse-Five), 담배밭(Tobacco Road), 미시시피의 성년(Coming of Age in Mississippi), 그리고 상하이의 삶과 죽음(Life and Death in Shanghai)과 함께 선택된 시와 희곡들을 포함한다.

⑦ 10, 11, 12학년을 위한 다빈치 인문학

이외에도 10-12학년 학생들은 가을과 봄에 다빈치 인문학 수업을 하나씩 들을 것인데, 다음과 같은 수업들이 있다.

- 서유럽에서의 혁명과 사회 변화 (2006가을-2007봄)

- 미국 여성: 역사, 문학, 예술과 과학 (2006 가을)
- 미술, 역사, 그리고 근대 세계
- 미국 민주주의

⑧ 작문 세미나

또한 10-12학년 학생들은 작문 세미나도 한 해 내내 듣는데, 이 작문 세미나는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한다.

- 학생들에게 구성, 메커니즘, 그리고 스타일 분야의 특정 기술을 가르치기
-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주기
- 학생들이 학교의 다른 수업들을 위해 글을 쓰고 대학과 그 이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킴에 따라 학생들을 돕기

가을 학기에 학생들은 노출적인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며 봄에는 창의적 글쓰기 초점을 둔다. 아이들은 작은 그룹으로 수정하고 비평하고 편집하면서 가깝게 함께 작업한다. 매 학기 말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며 봄 학기에 학생들은 공개 찾집을 열고 그들의 최고의 작품을 읽는다.

* 교재: The Next American Essay

(2) 교수 학습

GS에서의 가르침은 귀납적 논리와 교과 통합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형식은 세미나 기반의 토론, 강의, 학생 발표, 실습 또는 그룹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 교사들은 종종 수업 시간에 박물관의 유물이나, 원전 문서, 혹은 연구소 실험 결과 등을 통해 토론으로 시작한다. 학생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추론하며, 가설을 발달시키고,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기초'들은 그러나 더 나아간 지적 작업을 위한 기초로 여겨지는데, 다빈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인문학, 과학, 사회과학들로부터의 정보를 포괄적인 지식체로 종합하도록 그들을 촉구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이디어들을 표현하곤 한다.

3. Northwest School (이하 NS)

워싱턴 주 시애틀에 위치한 사립학교인 NS는 6학년-8학년의 중학교 과정과 9-12학년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NS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환경을 존중하는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협동적인 분위기 안에서 서로에게 배우도록 자극을 주는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표방한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합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그리고 세계적인 시각을 가진 졸업생을 배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 기초하여 NS는, 인문학, 과학, 예술 안에서 학생들이 연속성이 있고 학제를 넘나드는 학습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사진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1) 인문사회계열 교과통합 교육과정: 인문학(Humanities)

NS는 인문사회계열 교과통합 교육과정으로서 인문학(Humanities) 수업을 제공한다. 인문학 과정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모두에서 제공되나, 그 교과과정의 핵심은, 전자의 경우 글쓰기 활동에, 후자의 경우 역사 및 정치에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별된다.

먼저 중학교 인문학 수업에서는 작가들의 워크숍(Writers' Workshops)¹⁷⁾ 과 작고 큰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창의적, 분석적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인문학 과정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사회에 대한 3년간의 조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예술적 시각으로부터의 역사를 분석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12학년에서 들을 수 있는 대학 수준의 선택 과목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준다. 이러한 인문학 수업은 세계를 가로질러 정치적 결정들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정의 문제를 조명하기도 한다.

특히 고등학교 인문학은 역사, 영어, 철학, 예술사, 문학을 통합적인 3년의 과정으로 묶고 있다. 수업은 강의, 소그룹 토론, 3-4명 학생들의 글쓰기 모임 등이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매주 9번씩 만난다. 수업은 교과서 보다는 원전을 교재로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높은 수준의 독립적 연구와 함께 세련된 읽기와 분석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작은 그룹의 학생들

17) 초등학생을 위한 작문 프로그램으로 작문의 과정에의 지속적, 반복적 노출을 통해 학생들의 유창한 글쓰기를 발전시켜주는 교과 통합적인 작문 테크닉 프로그램.

<http://www.teachersfirst.com/lessons/writers/index.html> 참고

은 자신의 글을 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매주 토론한다.

통합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학년별 구체적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표 25> Northwest School 인문학 수업의 학년별 주제

학 년	주 제
6학년	"공동체에서의 인간" 주제에 초점 둔 문학, 작문, 문화, 역사, 지리의 학제간 탐구
7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주의 역사, 문학, 경제, 그리고 정치적 삶에 대한 폭넓은 학습 - 해변 및 프라토 미국 인디언들, 유로 아메리칸 정착민, 그리고 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 문법, 창의적 글쓰기, 그리고 수정 기술을 강조함
8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서 및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지리 - 장기 연구 논문을 포함하여 위 국가들에 연관된 문학과 쓰기 숙제 - 미국 문화와 사회에의 미디어의 영향 탐구하기
9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의 역사 : 선사시대-1700년 : 고대 세계와 중세, 르네상스, 종교개혁, 바로크 시대 탐색
10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사_문명사 : 1700-1900 : 계몽주의, 식민주의, 프랑스 및 미국 혁명, 산업 혁명, 제국주의, 다윈과 마르크스 그리고 프로이드의 작업들을 포함 (10학년들은 다윈을 생물학과 인문학 맥락에서 동시에 학습한다)
1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사_문명의 역사 : 1900-현대 : 이 코스는 20세기의 사건들의 비교학이다 : 세계 1차 대전, 할렘 르네상스, 대공황, 파시즘의 출현, 세계 2차 대전, 유대인학살, 냉전, 식민지 시대 이후, 그리고 자유화 움직임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_ 11월 선거를 통한 선거운동에 참여해야 함 : 2해 동안의 선택 세미나들: 세계화 이슈, 법과 사회, 현대적 사건들, 라틴 아메리카 연구, 비교 문학, 철학, 졸업생 글쓰기 - 선택과목들 :가을학기엔 12학년들은 정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면서 미국 의회와 선거 구조를 공부한다. 그들은 또한 다양한 세미나 수업들로부터 선택한다.: Street Law, 여성학, 비교 문학, 식민후기 연구, 세계화 이슈 등 (이 중 특히 세계화 이슈들은 세계적인 환경 문제들, 세계적 힘으로서 중국의 출현, 그리고 국제적 경제를 탐구함에 따라 국제 관계를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수업은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에서 외국 관계에 대한 의회의 출판물에 이르기 까지 국제법을 세우는 것의 복잡성을 검토하기 위한 원전들을 사용한다.)

(2) 관련 통합 프로젝트: 졸업 논문 (Senior Thesis)

12학년들이 듣는 2개의 1년짜리 선택 세미나를 비롯한 이러한 통합 수업을 통한 여러 달에 걸친 창의적인 연구는 학생들이 스스로 고른 주제에 대한 30장짜리 졸업 논문으로 이어지며 인문학 교사 5명이 이를 담당한다. 다음은 2006년 12학년 아이들이 실행 발표한 졸업 논문 주제들 중 일부이다.

- 기초 농기 : 중앙아메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핵심으로서의 사회기본시설
- 쓰이는 의미 : Ludwig Wittgenstein의 일상 언어 철학의 검토와 진보
- 오, 엄마, 이게 정말 끝일 수 있나요? Hunter S. Thompson의 1960년대의 새 저널리즘운동의 맥락에서의 독단과 편견에 찬 저널리즘의 지속적인 전설
- 제 3세계의 테러리즘 : 개발도상국들에게 득인가 실인가?
- 의사의 명령 : 안락사술과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이 의사-환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푸르게 살기 : 21세기 친환경 건축의 성장
- 아기로서 양자가 된 십대들과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 길러진 십대들의 적응
- 이중정체성 : 무슬림 여성의 프랑스 문화에의 통합에 관한 연구
- 빠른 수정 : 미국의 성형수술에 대한 집착
- 무지를 가르치기: 미국의 오직 금욕 성교육
- 한류 : 아시아와 해외의 한국의 팝 문화 영향

(3) 교사진

NS는 기본적으로 교장을 채용하고 그를 성공적인 학교 운영에 책임을 지게 하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학교의 독립성은 NS만의 미션을 만들고, 학교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교사들을 채용하며, 학교가 가장 잘 복무할 수 있는 아이들을 입학시킨다.

① 팀제, 학술적 학제간 통합 수업

NS의 교사들은 학제간 통합 학습에 있어 다른 부서들과 가깝게 협동하며, 학생들을 인문학, 과학, 예술의 연속적인 교과간 학습에 참여 시킨다. 학교에 전반적으로 스며들어있는 상호 존중의 문화와 동료 간의 강한 협력관계를 통해 NS의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과정을 팀 안에서 발전시킨다. 인문학 교사팀 교사들은 서로 다른 강의 스타일을 선보이고 서로의 시각들을 대조시키면서 강의를 공유한다. 학제간 협력은 생물학 교사가 다윈을 19세기 인문학 수업에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진 교사가 화학 학생들과 함께 사진화학 프로젝트를 사막에서 실험한다는 의미이며, 또 인문학 교사가 Voltaire의 칸디드(Candide)를 프랑스어 시간에 프랑스어로 토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개별 학생들을 위한 파트너십

각각의 학생들을 위한 지도교사들은 학교와 가족이 중학교 기간 동안 함께 밀접하게 협력하도록 보증한다.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는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의논하는 독립적 학습 전문가와 연계하고 있다.

③ 교육 자원으로서의 교사들의 다양성 및 개별 흥미

NS의 교사들은 개혁적인 남성과 여성들이며 교사 자신의 과목들에 대하여 그런 것처럼 외적인 흥미들에 대해서도 열정적이며 그러한 집중력을 학교에 가져오도록 격려된다. (예. 모든 미술 교사들은 직접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교사 중 많은 인원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이것은 학교에 국제적인 시각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게 평가된다.

4. Poughkeepsie Day School (이하 PDS)

뉴욕시의 퍼킵시에 위치한 사립학교인 PDS는 통합성, 책임, 그리고 상호 존중을 요구하는 학교 공동체로서, 배움과 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육된 시민들을 키우는 미션을 바탕으로 5-8학년의 중학교와 9-12학년의 고등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교과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중등학교는 5,6학년 통합반과, 7,8학년 통합 반을 비롯하여 혼합연령 학생들로 구성된 가장 학문적인 반들과 몇몇 개의 단일학년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내에는 다양한 혼합연령 그룹에서나 다른 학년 수준이나 분과를 가로질러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함께 작업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PDS의 강도 높은 학문 프로그램들은 활발한 학습을 강조하며, 수업들은 전체 그룹 강의와 토론, 개별 작업과 소그룹 활동을 통한 협동적 학습간의 균형을 통합하기 위해 계획된다. 교육 과정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근본적인 기술들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기 주도성과 독립 학습을 늘려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중학교 수업들은 비판적 읽기, 쓰고 사고하는 능력, 분석적 연구 기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논리, 그리고 다른 언어에의 초보적 문해의 발달을 강조한다.

(1) 인문사회계열 교과통합 교육과정: 인문학(Humanities)

중학교에서 인문학은 미술, 음악, 드라마 교육과정으로의 통합으로 더 풍부해진 역사, 문학, 언어의 전통적인 영역에 기반을 둔 교과통합적인 프로그램이다. 테마의 내용은 5-6학년들을 위해 두 해 주기(A해 B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7-8학년들의 인문학 수업들은 이러한 두 해를 확장하는 넓은 범위의 학문적 발달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누어진다. 인문학 수업은 읽기, 분석적 창의적 글쓰기, 영어의 어휘와 구조, 그리고 사회과를 통합한다. 교재의 분석, 연구, 토론, 글쓰기와 다른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가 문학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며 문학 작품이 문화의 발달을 반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높이면서 그들의 분석적 기술을 강화한다. 추론, 질문, 요약, 필기, 배열, 교재 구성하기, 그리고 활동적으로 토론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기술들을 발달시키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학자, 문학 비평가, 그리고 통찰력 있는 독자가 된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5~6학년

과정 글쓰기는 인문학의 각 해에 걸쳐 계속되며 글쓰기 워크숍 형태로 발표된다. 학생들은 생각과 글쓰기의 메카닉을 구조화 하는 것에 대해 그룹 안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학생들은 창의적 이야기 쓰기, 일기 쓰기, 책 읽고 글쓰기, 규칙적인 철자 및 어휘 작업, 지도 작업, 연구, 현재의 사건들과 프로젝트에 초점을 둔 토론 등에 참여한다. 모든 학생들은 한 해 내내 독서 그룹에 참여한다. 이러한 그룹들은 문학에 초점을 맞추며 소그룹 토의와 쓰기 분석을 통해 주어진 교재를 가지고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준다. 각각의 학생들은 초반 반 년 동안은 짧은 연구 프로젝트와 구술 발표를 하며, 그리고 그 해 말에는 그 해의 테마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매일 인문학 숙제, 폭넓고 다양한 글쓰기와 읽기 숙제 등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토론, 개별 및 그룹 프로젝트, 쓰기 숙제, 연구 프로젝트, 리뷰와 퀴즈 등을 통해 평가된다. 본 교과과정의 목표는 학생들이 언어적으로나 글쓰기를 통해서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쓰고 말하는 언어를 미래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

* A해 주제 : 고대 그리스

* B해 주제 : 중세시대

② 7-8학년

사회과와 언어를 통합하는 이 두 수업에서 학생들은 역사, 문학, 지리, 어휘 및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공부한다. 특히 미국에의 역사적 전설과 문화적 만남의 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어떻게 사회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우세했던 주요한 개념들을 배운다. 또한 언어 교육과정은 문학, 쓰기, 어휘, 문법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학생들은 그 의미를 전달하는 문학적 장치의 사용과 특정 장르의 분석과 함께 소설, 시, 극본, 단편소설 등의 다양한 선집들을 읽고 그 해에 검토된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작품들과 작가의 솜씨를 감상할 수 있는 텍스트를 읽는다. 어휘는 문학작품과 검토된 사회적 주제들로부터 얻어지며 그리스와 라틴 어원, 전치사와 후치사에 대한 작업으로 보완된다. 문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글쓰기에 문법적인 구조의 더 복잡한 적용을 경험하며 그 해를 마치면서 모든 부분의 말하기에 대해 배운다. 학생들은 이 해 동안 여러 번 문학 그룹에 참가하면서 고전 텍스

트를 같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문학작품에 대해 분석적으로 쓰고 읽기를 배운다. 또한 매 해마다 주요한 연구와 쓰기 프로젝트가 있다.

* 7학년 주제 : 미국에서의 식민적 충돌

* 8학년 주제 : 시민권법

(2) 평가

중학교는 쿼터 시스템(4학기제)을 따르는데, 교사들은 각 쿼터 끝에 학생들 진보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 진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수업과 개별적 학문적 성장 발달에 관한 작업을 구술적으로 요약하되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거나 학생 성적의 누적성적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숫자나 ABC 점수는 공식적인 성적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작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해주고 학생이 필요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제때에 알려주기 위해 각 학생 및 그 가족들과 가까이 작업한다. 학생 지도교사와 가족들 1년 적어도 2회의 협의회를 가지며, 필요하면 더 자주 가질 수 있다.

(3) 관련 통합 프로젝트: 중심연구 (Central Study, CS)

중심연구는 PDS의 특징적인 학술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7-12학년 아이들은 깊이 있는 개인적 탐색과 그룹 작업이 통합된 다양한 교과통합적인 수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학생들은 각 학기마다 다른 수업들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흥미를 탐색하는 기회로 쓸 수 있으며, 또한 특정 흥미 분야의 집중탐구로서 중심연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중심 연구는 수요일마다 4시간씩 진행되며 매 4째 수요일에 수업은 리허설, 답사, 및 다른 학교 밖 활동을 위해 하루 종일 진행된다.

2006-2007년도에 실시된 중심 연구 수업에는 리더십 탐구 / 사진 기록/ 스탠글라스 초급 / 지구 온난화/ 초콜릿 : 콩에서 바로/ 오필리아 프로젝트 / 셰익스피어 공연/ 무대 및 영화 뮤지컬 쓰기 등이 있었다. 특히 Challenge 20/20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했던 사회과 수업을 토대로 발전한 것으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 역사와 영어를 통합한 인문학 교육과정에서 역사 중심 주제 학습을 계속 하면서 발전되었다. 중학교 인문학 교사 Geetha Holdsworth와 고

등학교 역사교사 Bemadette Depaz에 의해 제공된 Challenge 20/20 중심연구에서 학생들은 국제 학교 또 미국 학교들에 연결된 웹 사이트를 통해 가난의 세계적 위협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했다. 학생들은 ‘어떻게 세계의 감소하는 자원들을 세계의 증가하는 인구들에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와 같은 큰 질문들을 묻고, 연구하고, 배우는데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며 협동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결과물을 창조했다.

(4) 교사 조직 구성 및 학교의 정책적 뒷받침

PDS는 또한 학교차원 교육과정 감독의 한 부분으로서 부서(Department) 구조를 사용한다. 세 개의 분과에서 온 교사 대표자들과 함께 부장은 학교의 학문적 의회를 구성한다. 의회는 분과장, 부장, 분과 교사, 학교 차원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난다.

또한 각각의 중학교 학생들은 학문적, 창의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영역에서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학생과 가족과 가까이 작업하는 지도교사를 둔다. 지도교사 그룹과 12~16명의 학생들은 매일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매 주 한번 긴 시간에 걸쳐 만난다. 바로 이 토론의 시간 안에서 교사들은 시간 경영, 조직, 갈등 해결, 학습 전략, 의사결정, 또래 관계와 같은 학습과 삶의 기술들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해결한다. 이 지도 교사들은 중학교 학생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정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5. Ross School (이하 RS)

뉴욕시의 이스트 햄튼에 위치한 RS는 교육이 미래를 만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 교과 통합적이고 통합된 사고와 혁신적인 리더십을 키우고 세계적 공동체에 완전히 속하며 평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그 교수 방법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중학교 5-8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9-12학년 과정을 통해 중등교육을 제공한다.

(1) 인문사회계열 교과통합 교육과정 : 문화사(Cultural History)

RS의 인문사회계열 교과통합 교육과정의 핵심에는 수학, 과학, 언어, 미술, 공연, 미디어 연구, 테크놀로지, 체육과 복지 등의 다른 모든 학제들과 풍부한 용단 안에 엮어진 문화사 수업이 있다.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RS는 문화사를 시대 순으로 가르치며 그것을 모든 다른 영역을 보는 렌즈로써 사용한다. 교육과정은 선사시대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으로 쌓여진 역사적 사건의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확장 형태의 중심에 교육적으로 위치하게 된다. 그러한 핵심적인 관점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다면적이고 동시적이며 비교적인 관점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 모두의 지역적 국가적 사건들을 세계의 역사 맥락 안에서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사는 지리, 신화, 영적 실행, 종교, 철학, 미술, 공연예술, 문학, 건축, 수학적 사고와 연습, 과학적 발견, 기술적 혁신, 법, 정부, 시민의식,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RS 교육과정의 핵으로서 작용한다. 문화사는 학년을 거치며 시간 순으로 가르치지며 다른 영역들을 탐구하기 위한 발판으로 쓰인다. 각 학년의 학생들은 여러 문화에 초점을 두며 세계적 주제의 전개와 동시대의 주제는 물론, 같은 기간의 미국 역사와 지역 역사에 대해 공부한다. 학생들이 학년을 거치며 발전해 감에 따라 그들은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사전 학습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하는 계속 확장되는 나선형을 경험하면서, 역사의 다양한 시대의 문화들을 재방문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장소와 날짜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시대를 가로질러 역사적인 과정의 이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탐색과 이해는 서로 연결된 세계 안에서의 통찰력 있고 열정적인 시민의식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교과 통합의 주제들은 다

음과 같다.

① 중학교

- 문화사5 : Matristic 사회부터 가부장 문명
- 문화사6 : 예언과 문화적 변형
- 문화사7 : 세계 제국과 보편적 종교
- 문화사8 : 중세문명의 절정

② 고등학교

- 고급 유럽사
- 문화 인류학
- 문화사9 : 중세시대 정신부터 모더니즘까지
- 문화사10 : 혁명과 개인의 출현
- 문화사11 : 세계의 고려와 이상적 반란
- 문화사12 : 세계화된 세계의 문화적 변형의 다이내믹
- 박물관 연구 : 큐레이터의 실행에 관한 이슈들
- 철학
- 심리학
- 세계종교 : 기독교와 이슬람
- 세계종교 : 힌두/도교/공자사상
- 세계종교 : 유대교와 불교

(2) 통합과정의 실행 및 평가

RS의 학급 작업 중 많은 부분은 여러 개의 학제로부터 학습을 통합할 수 있게 디자인된 프로젝트들을 포함한다. 가장 저학년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혹은 팀에서 작업하며 그들의 발견을 또래들에게 발표하고 멘토와 작업하며 그들의 작업을 파트너 학교와 온라인에서

공유한다. 개인이나 그룹 프로젝트와 체험식 학습은 그 연구 안에서 학생들을 부각시킨다. RS의 교사들은 학년별 팀으로 일하며, 특정 학제적 기술의 의미 있는 적용과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또 학생들이 국가 교육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학생들의 작업에 대해 함께 계획하고, 가르치고, 평가한다.

RS에서의 학생 평가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지식의 습득, 과목 특정의 기술과 사고의 습관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들의 발전, 그리고 그들의 학습을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 등을 감독, 보고하게 해준다. RS 교사들은 학생들의 작업의 모든 면- 과정, 결과물, 수행-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은 서로 비교되거나 순위 매겨지지 않는다. 대신에 학생들의 작업은 RS 교육과정 목표와 주 및 국가의 기준을 반영한 목표에 기반을 두어 평가된다. 목표는 모든 학년 학생들에게 명확히 인식되어있으며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무엇이 기대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해한다. 평가는 형식적이거나 비형식적이며 연령 그룹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모든 학년에서 평가는 종종 교사들이 그들의 수업을 계획하는 것을 안내해주며 형성적으로 이루어진다.

(3) 관련 통합 프로젝트

① 독립 연구 (Independent Study)

RS 학생들은 과외 활동 동안이나 졸업생 프로젝트를 통해, 그리고 수업들에서 개인 교사들과 함께 1-1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작업은 종종 비형식적이지만, 적어도 한 학기동안 형식적인 프로젝트나 학습에 종일 열중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교사는 독립 연구 코스를 제안할 수도 있다. 만일 제안서가 허가를 받고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독립 연구는 학생의 공식 성적표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독립 학습을 위한 제안은 수업이나 프로젝트의 이름, 목적, 일반적 수업 만남을 위한 일정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할 때 쓰일 수 있는 증거나 경험들의 서술을 포함해야 한다. 학생들의 지도교사와 학부모의 제안에 대한 사인과 허가가 필요하며 11학년에 시작하여 대학 카운슬러 또한 제안서를 검토한다.

② 졸업 프로젝트

졸업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2학년 말에 개인 연구 주제를 고르고, 프로젝트 멘토의 도움으로 지속적인 사고와 상당한 에너지를 그들의 프로젝트 주제에 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과정 작품집(Process Folio)의 완성과 주요한 '최종'생산물 (연구논문, 예술작품의 작품집, 실험 보고서, 영화, 음악 구성 등의 시리즈)의 완성, 그리고 평가자 패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RS에 다니면서 발달시킨 학습 기술을 더욱 발달시키고 정교하게 만든다. 촉진자로서 기능하는 멘토 교사, 그리고 교사, 지도교사, 편집자, 비평가와 옹호자들이 각 학생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작업한다.

졸업 프로젝트는 촉진자로서 기능하는 멘토 교사, 그리고 교사, 어드바이저, 편집자, 비평가와 옹호자들이 각 학생들의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작업한다. 또한, 학생들의 독립 연구를 위해서 지도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이 프로젝트 제안서를 내고 허락받는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다.

6. St. Paul School (이하 St. Paul)

St. Paul 학교는 9학년에서 12학년을 위한 남녀공학의 기숙사 학교이며 인간적이면서도 엄격한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1856년 세워졌다. St. Paul에는 520명의 학생들과 100명의 교사진들이 살고 있다. 성공회의 부속인 St. Paul 학교는 해 전 세계 18개 나라 미국 내 38개 주에서 온 학생들 가운데 신앙을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우정, 이해, 믿음, 그리고 존중을 높이는 학교의 전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1) St. Paul School의 인문학 프로그램

인문학 교사들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키우고 학생들 사이에서 생각의 교환을 환영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르친다. 3년간의 통합적인 핵심 프로그램은 학술적인 궁극증과 함께 시작되며 어떻게 답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질문이 발전되는가를 조명하는 “중대한 문제” 접근법을 차용한다. 학생들은 통찰력을 분명히 표현하고 인문학에 관계되는 학문 과목들 사이의 연계를 만들도록 배운다. 프로그램은 주로 문학과 역사의 통합이며 종교학, 예술사, 철학, 그리고 정치 또한 포함시킨다. 이러한 통합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과 역사적 사건을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텍스트,” 예를 들어 예술작품, 신학 서적, 단편소설, 혹은 영화와 함께 상호작용하도록 허락한다. 선택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특정한 흥미 토픽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더 발달시키도록 하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교사 협력과 지속적인 혁신성은 인문학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교사들은 다학제간의 통합적인 인문학 접근을 통합 교실 안에서 가르침으로써 모범을 보인다. 인문학 교사들은 엄격한 수업 내용의 토론, 학술적 리서치, 그리고 반성적인 읽기와 추리와 연관된 기술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다. 학생들은 분석적 논문, 개인적 이야기, 예술 비평, 그리고 창의적인 작업 등과 같은 다른 장르의 글쓰기를 한다.

학기 시작의 가이드에 보면,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들과 더불어 독자의 반영 저널(Reader's Reflection Journal)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대부분의 수업이 5~10분의 활동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은 숙제로 읽어온 글에 대한 질문, 코멘트, 걱정, 반성 등에 초점을 맞춘 글쓰기 활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특정 질문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보도록 하지만 때로는 그냥 특히 혼란스럽거나 매력적이거나 혹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을 옮겨 적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 활동은 ‘다시 말하기’도 아니고 단순한 ‘응답도’ 아니며, 읽기에 대한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교사는 강조한다.

수업들은 인문학 III, 인문학 IV, 인문학 V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1년의 과정이며 학기당 2학점을 얻어 1년 과정 동안 총 6학점을 수강하게 된다. 인문학에서는 청소년과 인간의 조건,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과 문화, 미국 문화학, 미술사 세미나, 자서전과 전기, 생명공학 윤리, 브라마에서 부처까지 아시아의 종교적 전통, 불신의 도전, 냉전시대,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자세한 인문학 수업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Ⅰ 인문학 III

<표 26> St. Paul School의 인문학 III

분야 및 내용	역사적 시대	핵심 테마	활 동	기 술 개 발
문학, 종교, 역사를 통한 서양 전통	그리스 시대~ 중세 유럽	신성에 대한 개념, 영웅의 역할, 사회에서의 여성, 이성과 열정, 사회적 정체성의 진화	시, 드라마, (문화적 역사적 관점 모두에서 쓰인) 산문시 읽기, 범세계적인 테마 인식(고대 및 현대 텍스트 사이, 혹은 텍스트와 영화, 미술, 음악 사이의 연결지점 발견)	매주 쓰기 숙제, 잘 구성된 문단 쓰기부터 시작하여 분석적인 에세이 쓰기. 1,2차 자료들의 쓰기, 읽기 및 사고력 기르고 다른 형태의 사고 표현법도 기름, 소설 및 시 쓰기 숙제를 통해 사고력과 상상력 기름. 연구 전략 익히기 및 독립적 연구자로서의 성장

- * 질문의 예 : 미신이란 무엇인가? 누가 타인인가? 사회는 그 영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의무를 지고 있는가? 누가 예술가인가? 역이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어떻게 종교가 오늘의 세계를 모양 짓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미덕인가? 등

* 교재의 예

- 가을 : 오디세이, 소포클레스의 앙티곤,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의 비극, 히브루

성경, 오비디우스의 변신

- 겨울 : 다비드 멀루프의 가상적 삶, 기독교 경전, 그리고 베오울프
- 봄 : 이슬람, 십자군전쟁의 역사기록, 트리스트란과 이졸테, 초서의 켄터베리 이야기, 베리 언스워드스의 도덕극 (주 텍스트: 『서양사회의 역사』)

② 인문학 IV

<표 27> St. Paul School의 인문학 IV

분야 및 내용	역사 시대	핵심 테마	활동	기술 개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미국역사	초기 식민시대~대공황	미국 사회, 그리고 소외되어온 사람들.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미술학, 문학, 음악, 종교, 역사 등을 통한 통합적 고찰	공동 가치와 개인의 필요 모두를 껴안는 안정적 정부 구조를 만들려 했던 미국의 노력 방법 검토. 미국 사회의 이상적 비전과 현실 사이의 긴장	좀 더 효율적인 비판적 사고자, 창의적 문제 해결자, 독립적 학습자가 되기 위한 기술 발달 위해 설득력 있는 쓰기와 구두 논쟁, 시각 이미지, 문학, 그리고 역사적 소스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강조됨. 봄 학기 연구 논문 필수.

* 질문의 예 : 미국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찾는가? 어떻게 미국 식민지가 민주주의가 되었나? 초기 19세기의 미국 성장의 적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시민전쟁은 두 번째 미국 혁명인가? 재건축은 시민전쟁 이후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이끌었는가? 나라가 급격히 팽창됨에 따라 미국인들은 19세기로의 전환에서 어떤 경계선들을 마주쳤는가? 미국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 미국인들은 두 세계전쟁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나? 미국 혁명의 정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등

③ 인문학 V

<표 28> St. Paul School의 인문학 V

분야 및 내용	역사적 시대	핵심 테마
21세기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유용한 시각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문해적, 시각적, 음악적, 역사적, 철학적, 종교적 테마	르네상스~1차 세계대전~계몽주의~ 산업혁명	유럽 문명의 풍부한 다학제간 학습

A. 가을학기 : 르네상스~1차 세계대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출발이 된 중세적 세계관 소개에서부터, 마사치오의 작업 속의 소실점, 명암법과 같은 기술을 통한 예술의 시각적 현실주의,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페트라르카의 편지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휴머니즘의 출현에 대한 탐험. 르네상스 문화의 피렌체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토론, 라파엘,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영광스러운 고급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을 내용과 더불어 구성적인 구조도 분석, 초점은 그런 다음 종교개혁과 엘리자베스 영국 및 특히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의 그 영향으로 넘어간다.

- * 질문의 예 : 중세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나?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 본성의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제안했나? 어떻게 사람들이 정부와 통치권의 다양한 생각들을 발전시켰나? 과학 혁명은 인간의 우주와 우주 내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바꾸었나?

B. 겨울학기

강조점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철학적 문화적 힘을 포함한 계몽운동 계승의 발달로 옮겨간다. 이상주의와 계몽 사상가들에 의한 전통적 종교적 행위의 회의적 비판에 대한 강조와 함께 과학 혁명의 통찰과 효과를 검토해 본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인문학 V의 교육과정과 연관된 주제 하나를 정하고 탐구하여 8-10장짜리의 독창적인 이론 중심 연구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어떻게 도서관에서 참고문헌을 모으며 목록을 작성하고, 개요를 만들

고, 또래 간에 교정을 하는지 등을 배운다. 겨울 학기는 낭만주의의 출현에 대한 학습으로 마쳐진다. 제인 오스틴과 낭만주의 시들을 특별히 학습하는 동시에 학생들은 다비드와 같은 신고전주의 예술가의 작업과는 대비되는 고야 등과 같은 낭만주의 예술가들에 익숙해지기도 한다.

* 질문의 예 : 햄릿은 인간 조건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구조화하고 답했는가? 정치적 혁명은 왜 일어나며 사회는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자연과 예술과 인간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였는가? 기술적인 혁명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제국주의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모더니스트들은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가? 다양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들은 왜 20세기에 일어났으며 어떻게 사람들은 그에 응답하였나?

C. 봄 학기

학생들은 산업 혁명의 영향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계몽주의의 공화적 영감을 형성한 자유민주주의적 혁명과 1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드리운 유럽에서의 국가주의의 성장, 사회적 비판으로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입센의 연극 인형의 집, 그리고 콘래드의 짧지만 강력했던 중편 소설 '암흑의 핵심'은 유럽 제정주의에 둘러싸인 문제들에 여러 가지의 접근법을 활용하며 분석한다. 학급 토의와 다양한 창의적 글쓰기 및 발표 숙제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주마다 "공동 블록" 시간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다주간의 창의적 글쓰기 숙제 그리고 AP 영문학 시험을 위한 학생들의 준비와 관련한 토픽들에 대한 강의를 연결된다.

유럽 역사를 공부하는 시기는 큰 창의성과 변화의 시기를 반영한다. 그 시기는 예술이 번성하고 인간이 새로운 자기의식을 개발시키는 시기였다. 게다가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인지, 문화, 정치적 힘들은 풍부하고 때로는 문제가 되는 유산으로 채우며 함께 이 시기에 일어났다. 인문학 V 코스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최고 및 최악의 요소들 중 일부에 대한 감각을 제공한다.

④ 장면 : 교사 David Pook의 인문학 교실¹⁸⁾

(David Pook : 새로운 인문학 교사이자 철학박사. 지식을 통합하는 것에 열정이 있으며 학생들이 자기 교실에서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를 예술, 문학, 그리고 역사와 연관시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수업은 내가 도착했을 때 진행 중에 있었다. David Pook은 입증하며, 자극시키며, 캐물으며, 학생들 사이와 교단 사이를 열정적으로 오가고 있었다. “이것이 니체가 세상을 묘사하는 방법일까?”, 그는 스크린에 아름다운 누드의 고전적인 미술작품을 가리키며 물었다. “어떻게 마르크스는 이것을 연결시킬까?” 그런 다음 캐서린 맨스펠드가 쓴 이야기 “가든파티”로 넘어가며, 그는 학생들이 사고와 예술의 역사 안에 이 이야기를 위치시킬 수 있도록 도우려 노력했다. “너에겐 Laura가 어떻게 여겨지니?” “알고, 물질적으로요” 한 학생이 도전해 본다. “어떻게 그렇지? 마르크스주의 개념에서? 어떻게 작가는 이러한 인상을 느끼게 했을까?” Pook은 학생들의 문학적 분석 기술을 불러 모은다. 그가 질문을 할 때마다 그는, 학생들이 완전히 안전하거나 혹은 어떤 한 가지가 끝났다고 느끼게 하지 않고, 학생들을 분석의 새로운 장으로 이끄는 듯하다. 나는 그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토픽들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이 충분히 불 붙어지면, 그가 그 논쟁의 장을 쉽게 학생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행되는 동안, 그는 토론의 불을 지속시키기 위해 계속 더 많은 칩을 던졌다.

“이건 어떤 종류의 서술자지? 신뢰할만한? 전지적인? 신뢰할 수 없는?” 그는 지난 시간에 토론되었던 문학 이론에 다다르면서 묻는다. 그는 학생들이 이 용어들에 유동적인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철학적 영역으로 뛰어들게 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언어인가?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은지 어떤 지점이 그러한지 5분 동안 생각해 보자.” Pook은 토론을 그 정점에 올려놓는다. 이 지점에서 대화는 더욱 활발해진다. 학생들의 눈은 스크린의 뒤에 있다. “어떤 종류의 가든파티를 마네는 여기 그리고 있지? 이게 삶의 표면일까?” 그는 묻는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그들의 철학적 문학적 이해를 시각적 표현으로 전환시키도록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어떤 종류의 미학이지? 어떤 종류의 진정함일까? 키에르케고르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기능하지?” Pook은 계속 진행한다. 다른 그림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쿠르베다. Pook은 학생들을 계속 같은 질문에 머무르게 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종류

18) 2002년 9월 하버드 교육대학원 Project Zero의 교과통합 연구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Veronica Boix Mansilla)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학문들의 공동체로: St. Paul’s School의 통합적 인문학”에서 발췌

의 파티이지?” 많은 눈들이 이제는 쿠르베를 다층적 레벨에서 읽으려 한다— 맨스필드, 키에르케고르, 마르크스, 그리고 19세기 말의 서유럽의 역사. 동시에 그들은 마네에 대한 연결지점도 구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Pook의 궁극적 질문이 따른다. : “St. Paul은 어떤 모임(Party)이지?” 학생들은 이 질문에 의해 혼란스럽고, 양극화되고, 또 활발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언어 분석도 아니었고 해외 미술사 교실도 아니었다. 테이블은 그들에게 돌려졌다! 과거로부터의 철학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화가들은 St. Paul’s School의 학생들로서 그들은 누구인지의 그 관통하는 질문을 묻기 위해 모아졌던 것이다. 이 예외적인 뉴잉글랜드의 학교에 오는 행동들에 의해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삶을 선택했는가? 갑자기, 그들은 그들 자신 앞에서 별거벗겨졌다. “왜 내가 선택해야 했는가?” 불안한 저항 속에서 한 학생이 묻는다. 마네와 쿠르베,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 사이의 선택은 그에게 일생의 선택이 되었다. Pook은 심지어 더 강하게 밀어 붙인다: “여기의 이 생은 마르크스가 묘사한 것과 같은 상중위 계급의 회피에 관한 것인가? 그것은 (Mansfield의 이야기안의 등장인물인) Laura와 그녀의 엄마가 빠졌던 것과 같은 환영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어떤 종류의 삶을 당신은 택하는가 — 표면적인 삶? 무지와 망각의 삶? 혹은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수업은 거기에서 끝났지만 학생들이 일어나 떠나는 동안, 비록 그것을 견디기에는 너무 떨리고 위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그 토론을 끝내지 않았다.

7. 교과통합 교육과정 해외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처음에 밝혔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한 미국의 협약학교 및 사립학교는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사례 학교들을 미국 교육정책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 특히 협력 학교의 경우 낙오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NCLB) 정책을, 또 사립학교의 경우 대학들의 입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분석을 시작하고자 한다.

(1) 국가의 교육 정책적 맥락의 차이

□ No Child Left Behind 정책

우선, 기초학력의 점검 및 향상을 위한 미국의 국가수준 교육정책인 낙오방지법(NCLB)은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정부와 각 지역학교가 읽기와 수학능력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연방교육기금을 배정하는 골자의 법으로, 부시 행정부가 2002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3학년부터 8학년(한국의 중2)까지는 매 해, 고등학교 때에는 총 1회의 읽기시험과 수학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며, 성취수준이 낮은 학교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요구받게 된다. 국가수준의 평준화된 시험이 과연 학생들의 성취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또 실패한 학교들의 교육이 더욱 위축되며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정책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는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육과정 구성 자체가 평준화 시험을 위해 거꾸로 변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가 낮은 성취 학교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관련 교육과정을 강화 시킨다거나 시험보기를 연습, 훈련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시험의 중요한 과목인 영어 수학 이외의 다른 과목들의 실질적 수업 시간마저 줄어들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학력 평가의 경우, 학력의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전체 학생 수의 약 3%에 달하는 표본을 뽑아 실시하며, 학업 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역시 약 3%의 표본을 뽑아

주요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한다.

② 대학의 입시제도

미국에서는 NCLB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시와 연관되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대학입시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업들이 준비되며 그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과목들은 일상 교육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수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입시는 학생의 전반적인 활동과 미래의 학업 계획보다는 과거의 내신 성적과 단 한번 수능시험 점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미국의 대학입시는 학생들의 내신과 SAT 점수가 물론 중요하게 반영되기는 하지만, 입학에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독단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성적과 더불어 아이들의 과외 활동 및 에세이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시험 점수나 반 석차와 같은 객관적 평가 수치와 함께 다양한 활동 보고서와 학업계획서, 에세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적이 성향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학습을 통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등 가치관의 문제까지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특성화된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입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준다.

두 가지 중요한 교육 정책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해외의 교과통합 사례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사례 학교들의 교육과정, 교사, 학생, 학교 정책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교과통합 교육과정 해외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① 교육과정의 특징

A. 학교의 핵심 철학 및 가치로서의 통합 교육

한국의 일반 학교의 홈페이지를 무작위로 방문해보면 그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철학에 대한 안내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상 정도를 추상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은 많이 있지만, 이 학교가 어떤 철학과 미션에서 그러한 고민들이 출발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찾기 힘들 때가 많다. 일반학교의 경우 특별

한 교육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들이 모여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며 교장과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되기에 학교 내 구성원들의 철학과 미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재해석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대안학교들보다 적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한국의 대안학교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국내 사례가 되는 학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각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나 미션이 비교적 특색 있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과정 또한 그러한 철학의 바탕 위에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로 살펴본 미국의 학교들 역시 미국의 일반 공립학교들과는 달리 한국의 대안학교들처럼 대부분 학교의 핵심적 철학이나 가치, 미션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통합적 교육과정'의 내용이 그러한 학교의 철학과 가치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통합적 교육 그 자체가 학교의 철학적 핵심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NS, PDS, 그리고 RS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핵심 목적을 가장 짧으면서도 명확하고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학교의 '미션' 문장에도 통합적 사고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Gailer의 경우는 학교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통합적인 인간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그러한 통합적인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 학교의 통합적 교육과정에 상징적으로 '다빈치 인문학과정', '다빈치 과학 과정' 등과 같이 '다빈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었다. City High의 경우는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능력으로 문해 능력을 중시하며 그것을 키워주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통합교육과정을 들고 있다.

B. 학교의 핵심 교과과정으로서의 통합교육

우리나라에도 대안학교들을 포함하여 교과 통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학교들에서 교과통합 교육과정을 핵심 교육과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보통은 일반적인 교과 분류 체계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와 같은 기존의 교육과정 및 수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특정 단원의 필요에 따라, 혹은 통합 기행 등과 같은 학문 교과 외적 활동의 성격을 띠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사례에 나온 여섯 학교는 교과통합 교육과정을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부수적인 수업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 교육과정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전통적인 과목 분류,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세밀하게 분화되는 국어(문학, 작문, 문법 등), 사회(한국

지리, 사회문화 등), 역사(국사, 세계사 등) 등과 같은 과목 대신, 이런 과목들의 내용이 적절히 통합적으로 엮어진 '인문학'이라는 과목을 교과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든 인문학 교과통합 교육과정은 졸업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적인 과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은 특히 협약학교보다 사립학교 사례에서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섯 개의 사립학교들이 국가나 주에서 재정적 보조를 전혀 받지 않으며 교육과정 또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수준 평준화 시험에서 자유로운데 반해, 협약학교인 City High는 위에서 설명했던 NCLB의 시험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단락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읽기와 쓰기에 대한 국가 시험점수가 매년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역사공부와 읽고 쓰기 학습의 통합의 의미를 설명하는 City High를 보면, 협약학교들 역시 이러한 시험에서의 성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의 학교들이 교과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핵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미국 입시제도의 유연성과 교육과정 구성의 자유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정해진 시간 내에 가르쳐야 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의 일반 학교들과는 큰 차이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또 한국의 대안학교라 하더라도 인가된 학교들의 경우, 어느 정도 이상 국가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 교과서 선택의 자유 등 교사의 재해석 권한이 일반학교보다는 크게 보장된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 가르쳐야 할 내용의 과중한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의 학교들이 인문학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핵심적인 교육과정으로서 배치하고 있는 것은 교사들의 상시적인 협력을 끌어내어 보다 수준 높은 교과 수준을 유지하며 교육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데 핵심적이다. 즉, 앞 장에서 살펴본 통합교육과정의 유형에 따라 보면 주로 '간교과적' 접근과 가까운 접근법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간교과적인 통합교육에의 접근은 교과의 내용보다는 교과들 속의 중복되는 기능, 개념, 태도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하므로 각 분리된 과목의 자세한 내용을 모두 다 다루는데 연연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합의가 우선적으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어지는 단락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C. 내용적 탐구와 기술적 성장

각 학교들의 통합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다. 인문학에 대한 접근법은 각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과에 대한 '내용적인 탐구'와 '학습기술'적인 성장의 조화를 고려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내용적인 면은 주로 사회계열 과목들에 기반 한다. 예를 들어 Gailer의 경우는 역사, City High의 경우는 사회, PDS의 경우는 문화사가 내용면에서 인문학 수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학습 기술적인 면은 주로 언어 관련 과목에 기반 한다. 내용을 배우기 위해 책을 읽고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무언가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능력들과 관련된 기술들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의 통합적 배움을 위해 모든 학교들에서는 원전을 직접 읽는 것을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NS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전을 읽는 것이 높은 수준의 독립적 연구와 함께 세련된 읽기와 분석 기술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NS의 경우는 특히 연령대에 따라 인문학 수업 내에서의 이 두 가지 영역의 강점을 달리하고 있다. 즉, 중학교에서는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한 분석적 글쓰기를 강조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고등학교에서 인문 사회계열의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경험하도록 한다.

PDS의 경우는 5-7학년 과정에서 두 가지를 모두 혼합하여 통합을 하되, 7-8학년에서의 더 깊이 있는 인문학 통합과정을 실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5-6학년 혼합반에서는 좀 더 기초적인 글쓰기 워크숍 형태를 사용하여 언어를 미래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그 기반을 닦을 수 있게 한다.

Gailer, Ross, St. Paul의 경우는 특별히 저학년과 고학년의 과정에 각각 언어와 사회계열의 강점을 두고 진행하지는 않되, 두 가지의 요소가 항상 적절하게 섞여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과 기술의 통합적인 접근은 학년별로 심화 되고 최종적으로는 학생이 졸업을 위한 개인 연구를 할 때, 깊이 있는 학문에 대한 탐구를 기술적으로 잘 연구하고 표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지향한다.

문해 능력의 기술 습득은 사회교과와 내용 습득만큼 모든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초점에 있어 협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협약 학교인 City High는 다른 학교들과 공통적으로 사회과 테마를 내용적인 동력으로 사용하여 두 영역의 적절한 통합을 추구하고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학교들이 교과 내용과 밀접한 학문적 글쓰기를 강조하는데 비해 City High는 비교적 일상생활에서의 문해 능력을 강조하는 것 같다. 예

를 들어 St. Paul에서 매 수업을 시작할 때 갖는 글쓰기 시간은 주로 그 시간의 수업을 위해 읽어왔어야 하는 원전을 다시 정리하고 그로부터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 궁금한 것,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또는 더 알고 싶은 것 등, 어떤 글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인 분석과 글쓰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City High에서 매 수업 시작과 함께 제공하는 글쓰기 시간은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뉴스를 읽고 요약하는 것이며 그런 활동들의 반복을 통해 이후의 더 본격적인 글쓰기를 위한 기술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즉,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과 밀접하다는 면에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특별히 교과 내용과는 밀접하게 구성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신문 요약 활동이 반드시 그날의 수업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주제가 아닐 수는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읽고 요약하고 쓰는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City High는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City High가 국가수준 평준화 시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보면, City High의 수업장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논술시험 대비 수업 장면을 발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수업 중의 깊이 있는 교과 내용 탐구를 통해 비판적인 분석과 글쓰기 기술까지 통합적으로 달성하기 보다는, 따로 논술 수업을 만들어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요약하며 관련된 자기 의견을 설득력 있게 잘 쓸 것인가를 반복 훈련하는 장면과 비슷하다.

보통의 분화된 교과 교육을 하는 장면에서는, 한 편에서는 내용적 지식을 암기하고(주로 역사, 사회 관련교과), 한 편에서는 글쓰기 기술을 훈련하는(주로 언어 관련교과)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인문, 사회 관련과목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문사회계열의 교과 통합이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 따로 논술 수업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지식교과와 내용을 습득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삶과 연관된 의미를 발견하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기술 습득까지 함께 달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사례의 다섯 사립학교들은 보여주고 있다.

D. 학문적인 엄격함과 깊이

본 해외사례에서 소개된 모든 학교들은 하나같이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학문적인 탐구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Gailer는 그 미션의 하나로 ‘지적 도전’을 들고 있고, PDS는 학습을 강조하는 ‘강도 높은 학술적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다고 선전한다. 또 St. Paul은 ‘엄격한 교육을 위한 장소’라고 학교를 소개한다. 통합적인 교육을 가장 활발히 실험한다고 하는 한국의 대안

학교들이 내거는 학교의 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데, 이는 미국의 협약 또는 사립학교와 한국의 대안학교들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사례로 택한 협약학교나 사립학교들은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이상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대안을 고민하게 하는 미국의 공교육의 주된 문제점은 낮은 질의 교사, 기초학력 부족, 수준 높은 학문 탐구 불가, 중등학교 중퇴 (즉, 대학과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문제) 등과 같은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입식 암기식 교육, 대학입시에만 맞춰진 수업, 인성교육 및 체험교육 간과 등으로,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들조차 대입시험만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의 대안을 고민한다는 것이 미국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대안학교들에서 제공하는 교과 통합적 교육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을 중시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며 인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좀 더 치우쳐 있다면, 미국에서의 교과 통합적 교육은 오히려 학문적 탐구를 더 깊이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 수준 높은 상급학교로 더 잘 진학할 뿐 아니라 그 상급 학교에서 학습하기에 충분한 학문적 기술적 능력을 기르는 방향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교과 통합적 수업을 통해 더 좋은 상급학교, 즉 대학에 더 잘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학입시 제도의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일괄적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내신 성적과 한번 실시하는 수학능력시험만으로 입학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과외 활동과 지원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지원 에세이 등이 함께 중요하게 반영된다. 더 좋은 학교일수록 무조건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할수록 점수와 함께 다양한 경험, 대학에서의 학습에 대한 명확한 동기 및 계획 등 더 통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중등학교에서의 수준 높은 학술적 통합교육이 기존의 공교육에 대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사례는, 학술적, 경험적으로 수준 높게 통합된 교과통합 교육은 한 수준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즉, 중등학교에서 통합적인 교육이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면 고등교육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등학교에서 받는 교과통합적인 교육이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과정에서 가치 있게 인정될 때 비로소 중등교육에서의 교과 통합적 교육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교사

A. 미션에 대한 헌신

미국의 경우 보통 공립학교들도 국가가 아닌 학교가 교사의 채용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례 학교들이 일반학교보다 뚜렷하게 학교 자체의 명확한 미션과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미션에 헌신할 수 있는 교사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일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례로 뽑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재정상황이 넉넉하고 환경이 좋으며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수준 높은 교사들, 또 적극적으로 학교에 헌신할 수 있는 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확률은 더 크다. 교사가 직접 지원하는 학교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편으로는 흑인이 많고,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 위험한 지역, 날씨가 극히 안 좋은 지역 등에는 지원하는 교사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백인이 많고 생활수준이 높으며 학생들이 성실하고 기후가 좋은 곳은 교사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편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지역에 따른 선호도와 수준 차이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사례 학교의 대부분은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학교의 미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특히 NS의 경우는 ‘통합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를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학교의 미션에 학교에서 원하는 교사상까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교사로서의 직업 정체성과 업무에 대한 묘사 안에 이미 통합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의 상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이 풍부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립학교라는 특성상,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용된 교사들이 통합적 교육을 중시하는 학교의 특징을 처음부터 잘 이해하고 높은 수행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미션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교사들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일반학교들에 비해, 특히 교사들이 국가에 의해 배분되는 일반 공립학교들의 경우에 비해, 대안학교들은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사립학교들과는 달리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는 대안학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업무의 약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학교의 미션을 함께 이루어내고자 대안학교의 교사가 된 경우가 많기에 학교에의 헌신의 정도는 어쩌면 미국의 사립학교보다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과통합 교육을 학교의 핵심적인 교육과정으로 정립시키

고자 한다면, 학교의 핵심적 가치와 미션 안에 통합적 교육을 실천 해내는 교사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통해 교사 채용시부터 그 가치에 대한 헌신을 요청하고 교사간의 동의를 끌어내는 일 또한 교과통합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B. 교사간 협력 중시

사례의 학교들은 통합적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사들이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이 또한 학교의 미션, 교사 업무 안내 등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ity high의 경우, 새로운 교사를 뽑을 때 교사들이 그들을 단체로 인터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통해 교사들의 협력관계가 그들의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교사들이 교사 채용 과정의 의사 결정자로서 존중된다는 것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학교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인문학 팀 혹은 학년팀으로서 함께 일하도록 격려한다.

교과통합적인 교육에 대한 언급과 함께 교사간의 협력을 학교의 철학과 교사의 업무 안에서 언급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한국 공통적으로 교실 안에 고립되어 혼자 계획하고 혼자 가르치는 교사 문화가 팽배해 있는 학교 문화를 고려할 때, 통합교육 역시 교사 개인의 수업 능력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가 쉽다. 교사간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격려하는 학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교사가 그룹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통합교육이 교사간 협력을 통해 잘 달성 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그런 철학에 대한 교사들의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서도 의의가 있다.

C. 교사의 분야 전문성과 차이를 중요한 교육 자원으로

사례로 소개된 학교들은 이렇게 학교에 대한 교사간 협력을 중요시 하는 동시에, 영역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외부에 대한 흥미, 그리고 교사간의 차이와 다름 또한 중요한 교육 자원으로 여기고 있다. 학교는 교사들이 외부에서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격려하며(예. 예술과목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전문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것), 교사의 가르치는 스타일이나 시각들, 그리고 출신 배경 등의 개별적 차이를 학교에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자원으로 여긴다.

③ 학생

A. 가장 준비된 학생

선착순 모집 후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는 City High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 사례로 다룬 사립학교들의 경우, 학부모 면접, 학생 면접, 이전 학교의 (주요과목) 교사 및 교장 추천서, 그리고 몇몇의 경우 중등학교 입학시험인 SSAT 등을 보게 되어 있어, 학생들은 일반 학교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준비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와 관심이 크고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재비, 교통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1년간의 순수 등록금이 작게는 \$ 15,000 에서 많게는 \$35,000(기숙사학교)까지 이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부 장학금 및 학생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고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 학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가정환경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일반 학교 혹은 대안학교에서는 교과통합 수업의 깊이와 수준을 아이들에게 잘 맞도록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또한 아이들이 그러한 수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B.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됨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준비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양의 원전을 읽고 토론, 연구하며 개인별 흥미에 맞는 개인 프로젝트로까지 수행, 발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준비도는 깊이 있고 도전적인 과제가 가득한, 지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통합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어 교사의 준비도 못지않게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한다.

학생들의 준비도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은 소위 명문사립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의 전통 안에서 어느 정도 암묵적인 공유가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마치 많은 우리의 대안학교들에서, 학생들에 대해 자신을 발견하는 주체적인 개인으로의 성장이라든가 다양한 체험위주의 교육, 혹은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지향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대가 있고

그것에 대한 노력의 요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과 비슷하다. 즉, 입학에 지원하는 동시에 그러한 철학에 대해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 간의 암묵적인 공유와 동의가 있게 되며 그것을 따를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입학의 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교과통합의 내용적 기술적 학습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전과 노력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촉진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만일 학생의 선발권을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교과 통합적 지향점과 기대 수준은 교사뿐 아니라 입학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미리부터 공유될 필요가 있다.

4 학교 정책

A. 교과과정 자체의 통합적 구성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례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과통합 교육과정을 중요한 핵심 교육과정으로서 정하고 있으며 분리적인 각 과목의 수업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교육과정의 구성 자체는 교사들의 협력적인 업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그러하듯이 일단 교사들이 각각의 교수 과목이 따로 있는 경우, 교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개별 수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설사 개별 교사가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교사 개인의 열정에 의해 통합적인 수업을 준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교사 업무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단 통합적 수업들이 핵심 교과과정으로서 구성되면, 그것은 교사의 통합적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과 실행의 가이드가 되어 준다.

B. 교사들의 협력의 시간적 보장

City High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직접 공동 기획 블록을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다. City High는, 교과통합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언급해도 실질적인 시간표 구조가 그것을 도와주는 형태로 되어있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교사들이 하루 2시간 10분의 블록을 공동 계획 및 준비를 위해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교사들의 협력 시간 보장은 교장이나 학교 행정가의 결단이 없이는 어느 학교에서도 쉽게 마련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업을 제외한다면, 일반학교일수록 과다한 행정업무, 대안학교의 경우 보다 민주적이고 직접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추구함으로써 인한 수많은 회의로 인해, 따로 교사협력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교의 철학과 핵심적 교과과정 자체가 교과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적인 협력 시간의 보장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교과 통합적 교육방법은 다시 개인의 열정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좌절되기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C. 팀제 활용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은 팀을 이루어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았다. 교사들의 팀을 분석해 보면 크게 학년 중심, 과목 중심, 아이들의 개별 성장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학년 중심 교사 팀제는 City High의 경우가 특이한데, City High는 교사가 팀으로서 고등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들을 4년간 가르치도록 했다. 즉 아이가 한 학년이 올라갈 때 교사들의 팀도 함께 학년을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는 교사들이 매년 새로이 다른 학년의 수업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어 교수의 반복을 피하게 하는 동시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의 교수 학습 스타일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과목중심 교사팀제는 St. Paul의 인문학 팀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St. Paul의 인문학 팀은 인문학 수업을 위해 긴밀하게 함께 일하며 수업내용을 함께 기획, 운영한다. 그러나 영어와 사회 교사가 함께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하는 City High의 리터러시 블록의 경우와 달리, St. Paul은 기본적으로 교사 1인에 의한 수업을 지향하되, 그 수업의 장면 뒤에서 수업을 위한 교사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을 택한다. 특히 인문학 팀 내에서의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한 통합교과의 수업을 여러 명이 주제에 따라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개별 성장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팀으로서, 과목과 학년을 떠나 학생 개인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즉, 교사를 주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나 학습전문가, 프로젝트를 위한 멘토, 비평가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를 아우르는 팀이다. 이러한 팀은 개별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학습과 삶의 기술들에 대해 학생,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렇게 팀을 이룬 교사들, 특히 학년 및 과목중심 팀의 교사들은 통합적 교육과정 안에서, 경우에 따라 한 교실에서 함께 가르치는 팀티칭을 하거나, 또는 긴밀한 협조 속에 주제에 따라 한 통합교과를 나누어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 수업의 장면에서 팀티칭이 반드시 더 통합적인 교육을 이끌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최종적으로는 1인의 교사가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 수업의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깊은 교사간 협력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수업에서의 통합 정도와 깊이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국의 학교들에서도 어디든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일을 한다. 그렇지만 그 팀이 무엇을 위해 이루어진 팀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과 성장에 대한 협력보다는 학생들을 관리 및 지도하고 연간 행사 및 관련 행정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팀 또는 부서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이외에 수업을 위한 동일 과목 또는 관련 계열 선생님들의 팀이라든가 학년 선생님들의 모임은 비교적 비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간 협력 하에 학생을 위한 좀 더 나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일이나 학생의 성장을 위해 교사들이 함께 도우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팀 업무와는 별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는 교사들의 협력적 역량이 학생 성장을 위한 일에 효율적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는데 통합적 수업과 그것을 통한 학생의 통합적 성장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교과 통합적 교육과정을 설계하려 한다면, 그러한 교육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교사팀을 구성해야 할 것인가는 더욱 신중히 설계되어야 한다. 학생 관리와 행정 처리에 중심을 둔 팀제에서의 교사의 업무량이 과하고 그 책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열정이나 의지만으로 추가적으로 교과 통합적 수업을 위해 교사와 팀으로 협력하기를 주문한다면 교사들의 협력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관리 및 행정처리 중심의 교사 부서를 각 학교가 설정한 수준과 유형의 교과 통합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은 교과 통합적 교육과정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사전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학점제 고교 운영 사례

(1) 한국과학영재학교

▶ 학교 기본 정보

-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제작
- 교사 72명, 학생 428명으로 교원 대 학생 비율이 1:6('09년 기준)

▶ 학점제 운영

- 1학년에 보통 필수과목(교육과정 압축을 통한 고교 3개년 과정 속진이수)이수 후 2·3학년에 학년 구분 없이 선택과목(심화과정으로 AP교과, 대학학점인정 : 56학점) 이수

※선택과목 이수는 반드시 '교과별 위계*'에 따라야 함

- * 1단계 : 고등학교 수준을 심화·보충하는 내용, 2단계 : 대학의 기초과정과 동등한 내용으로 구성, 3단계 : 전공과목의 보다 심도 있는 주제나 통합된 주제를 다루는 특강, 세미나 형태의 수업

- 속진과정 : 1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희망학생에 한하여 필수 과목인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영어에 한하여 PT(Placement Test)를 거쳐 학점을 부과
- 총 165학점 이상(교과 135학점 이상, 창의·연구 활동 3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

▶ 평가

- 평점제 평가의 경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A와 B학점을 합쳐 70%를 초과할 수 없음
- 교과별 평가표기 방식

보통교과의 예체능과목	Pass / Fail
나머지 교과	평점제 (4.3점 만점)
창의·연구 활동	Pass, Merit, Distinction

- 총 3과목까지 재수강 신청이 가능, 앞의 학점은 삭제하고 나중의 학점을 인정, 재수강시 B+가 최고학점. 과목당 3학점 또는 6학점 단위로 학기제 운영(3학점 과목 : 75분 수업을 한 학기 17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

(2)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FCPS)

▶ 학교 기본 정보

- 미국 Virginia주 Fairfax County 정부 산하기관으로 Fairfax County에 위치한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 시스템

• 17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해 있어 Virginia주에서는 가장 크고, 미국 전체에서는 12번째로 큰 공립학교 시스템

• 산하 고등학교 수 : 고등학교 21개, 대안고등학교 3개

▶ 학점제 운영

- (필수과목) 영역별로 필수이수학점이 정해져 있고(예: 영어 4학점, 과학 4학점 등), 과목 별로 이수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교과군내/과목간 위계 설정) 설정된 위계에 따른 이수 권장

• 교과군내 이수순서 : 과학교과군의 경우 생물(9학년부터~), 화학(10학년부터~), 물리학(11학년부터~) 순으로 이수 권장

• 과목간 위계 : 필수 사전이수과목과 동학기 동시수강과목이 정해짐

※ (예) Engineering Mathematics 사전이수과목 : Algebra 2,

동시수강과목 : Precalculus with Trigonometry

- (심화과정 운영) Honor course, AP, IB

• 운영 현황 : 16개 고교에서 AP, 8개 고교에서 IB course 운영

• 운영 학년 : Honor course는 9~10학년, AP/IB는 10~12학년

• 가중치 부여 : Honor course는 0.5, AP/IB는 1.0

※1년 수강 강좌기준이며 AP/IB는 강좌이수 후 테스트에 통과해야 함

※AP/IB 강좌 Grade 'A' GPA 계산에서 5.0(4.0+1.0)이 됨

- (온라인 강좌) FCPS Online Course 운영

• 수강대상 : 시간표가 겹쳐 해당강좌를 수강하지 못한 학생이나 WBI(Web-based Instruction)이 필요한 학생

• 개설강좌 : 주로 심화수준 강좌(AP course 15개, honor class 6개 포함)

▶ 평가

- (학년 진급 요건) 학점 관련 진급 기준에 따라 진급 가능

학 년	진 급 요 건
9	8학년에서 진급
10	5학점 이상 이수
11	10학점 이상 이수
12	졸업요건에 충족되는 학점이수가 가능한 계획 있어야 함

- (평가 척도) 엄격한 점수부여 방식(6점 척도, 94점 이상 A등급)을 사용하여 FCPS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정책 시행

- (성적 기재 방식) A~F까지의 등급과 P/F 기재

A→B+→B→ ...→D+→D→F	- 획득 점수에 따라 A부터 F까지의 등급으로 변환한 표기 방식 - GPA 산정시 4.0 만점으로 환산됨
P/F (Pass/Fail)	- 학점으로 인정되지만 GPA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표기 방식 (단, F학점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GPA에는 포함됨) - 개강 후 22일내에 'Pass-Fail Status Request Form' 을 작성 후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제출

- (표준화시험) Virginia SOL(Standards of Learning) Test

- 특정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Virginia주 차원에서 실시
- 교과 영역 및 과목 수 : 수학(3), 과학(3), 역사(3), 영어(2)

- (졸업 요건) 학생이 추구하는 졸업장의 종류에 따라 졸업을 위한 선택과목 영역, 총 이수 학점, 인증학점 수가 달라짐

- FCPS advanced studies diploma : 총 24학점(9 인증학점 포함)
- FCPS standard diploma : 총 22학점(6 인증학점 포함)

(3)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for Science and Technology, TJ

▶ 학교 기본 정보

- 과학, 수학, 기술 분야 특성화 학교로 심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 학교 자체에 신입생 선발권이 있어 입학시험과 중학교 GPA를 기준으로 우수한 입학생을 선발함

▶ 학점제 운영

- (수강신청) 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교사가 함께 상의하여 수강과목과 단계 및 시기를 결정. 입학 때 설정한 4개년 수학 계획(Four-year Academic Plan)에 따라 매 학기 수강신청. 학기 시작 후 1주일간 수강 변경 가능, 학점 부여 시점 전까지 수강 철회 가능. → 재수강 가능(성적표에는 원래의 성적과 재수강한 성적을 병기). 사전 승인을 거치면 외부에서의 계절수업도 학점으로 인정
- (필수과목) 학년별로 필수이수과목이 정해져 있고, 과목별로 이수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존재
- (선택과목) 영역별로 제공된 여러 개의 과목 중 하나를 택함
 - 학생이 추구하는 졸업장이 무엇이나에 따라 선택과목의 영역이 달라짐(예: TJ diploma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학과 컴퓨터 영역의 과목을 추가로 선택해야 함)
 - 영역별로 여러 개의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음
- (과목 내 위계 설정) 위계 과목의 경우 위계에 따라 이수
 - 수학의 경우 대수학1은 입학 전 필수단계이며 졸업 전 AP 미적분학까지 마쳐야 함
 - Pass 기준에 미달하였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상급 단계 진입도 가능
- (심화과정) Honor class, AP, post-AP 등의 심화과정 운영
 - AP 및 post-AP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됨
 -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이중등록제(dual enrollment) 운영

▶ 평가

- (기본방향) 과목별로 4.0 만점의 학점제 평가
- (심화과정 가중치 부여) Honor class, AP, post-AP 과목을 수강하고 AP 시험에 통과하면 GPA 산정시 가중치 부여
- 가중치는 0.25~0.5 범위였으나 최근 0.5~1.0까지 상향 조정됨
가중치는 county별로 다름 (예: Virginia주 Loudoun County Public School의 경우 0.7~1.0)
- 가중치는 대입 전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활용됨
- 가중치 적용으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과목 선택 기피 등 문제점 발생
- (성적 기재 방식)

A→B+→B→ ...→D+→D→F	획득 점수에 따라 A부터 F까지의 등급으로 변환한 표기 방식, GPA 산정시 4.0 만점으로 환산됨
P/F (Pass/Fail)	이수학점에 포함되지만 GPA에는 계산되지 않도록 학생이 선택한 과목 표기 방식 (단, F의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I (Incompletes)	결석 등의 사유로 주어진 과제를 끝내지 못한 경우의 임시 점수 표기 방식. 다음 학기 점수 부여 시점 직전 과제 완수여부를 확인 후 점수화됨

- (표준화시험) Virginia SOL(Standards of Learning) Test
- 화학 등 교육과정에 정해진 11개 과목을 수강한 학생에 대해 학기말에 Virginia SOL Test를 실시하여 통과한 학생에게 인증학점(verified units of credit)을 부여
SOL Test 교과 영역 및 과목 수 : 수학(3), 과학(3), 역사(3), 영어(2)
- (졸업 요건) 이수 영역 및 총 이수학점 수, 인증학점 수에 따라 수여되는 졸업장이 차별화됨
- TJ diploma : 총 26학점(9 인증학점 포함)
- FCPS advanced studies diploma : 총 24학점(9 인증학점 포함)
- FCPS standard diploma : 총 22학점(6 인증학점 포함)

[참고 1] 4개년 수학 계획(Four-year Academic Plan)

REQUIRED COURSES FOR GRADUATION

NINTH	TENTH	ELEVENTH	TWELFTH
<p>Subject *IBET Biology English 9 Design and Technology Mathematics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Foreign Language Computer Science or Elective (see course guide)</p>	<p>Subject *World Civilization (HUM I) English 10 World History/Geography II Chemistry Mathematics Foreign Language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Computer Science or Elective (see course guide)</p>	<p>Subject *American Civilization (HUM II) English 11 US/VA History Physics Mathematics Foreign Language or Elective Additional Required Course (Science/Math/Technology) Elective (see course guide)</p>	<p>Subject **English (see course options in course guide) **US/VA Government (see course options in course guide) Geosystems Senior Research Lab Mathematics Additional Required Course (Science/Math/Technology) Elective (see course guide)</p>
ADDITIONAL REQUIRED COURSES FOR GRAD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uter Science to fulfill TJ course requirements OR • Fine Arts/Practical Arts/Cultural Studies (see course guide, p. 3) to fulfill state course requir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uter Science to fulfill TJ course requirements OR • Fine Arts/Practical Arts/Cultural Studies (see course guide p. 3) to fulfill state course requirements OR • 4th Social Studies course(s) to fulfill FCPS course requirements OR • Additional Science, Math, Technology course to fulfill TJ course requir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e Arts/Practical Arts/Cultural Studies (see course guide p. 3) to fulfill state course requirements OR • 4th Social Studies course(s) to fulfill FCPS course requirements OR • Senior Research Lab prerequisites or recommended courses OR • Additional Technology, Science, or Math course to fulfill TJ course requir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e Arts/Practical Arts/Cultural Studies, (see course guide p. 3) to fulfill state course requirements OR • 4th Social Studies course(s) to fulfill FCPS course requirements OR • Additional Technology, Science, or Math course to fulfill TJ course requirements

*These courses are offered as an integrated block

**These courses are offered as separate classes or as an integrated block

***Summer School options: Computer Science, Chemistry, World History/Geography I

[참고 2] 졸업 필수 학점

	TJ Diploma	FCPS Advanced Diploma	FCPS Standard Diploma
영 어	4	4	4
수 학	4	4	3
과 학	4	4	3
역사/사회	4	4	4
외국어	3	3	.
체육/보건	2	2	2
미술/예술	2	1	1
기 타	3(기술)	2(선택)	5(선택)
합 계	26 (9 인증학점 (verified units of credit) 포함)	24 (9 인증학점 (verified units of credit) 포함)	22 (6 인증학점 (verified units of credit) 포함)
인증학점 영역	영어 2 수학 2 과학 2 역사/사회 2 선택 1		영어 2 수학 1 과학 1 역사/사회 1 선택 1